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김정위

발행일 · 2005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년정신

ISBN · 978-89-959164-8-3 03910

비매품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상

김정위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차례

제1장 서론 · 7

제2장 사료와 문헌 · 21

(가) 개요 · 23

(나) 아랍어 사료 · 28

(다) 페르시아어 사료 · 35

(라) 유럽어 문헌 · 40

제3장 10세기경 중동 무슬림의 세계지리관 · 43

제4장 중세 중동 무슬림의 중국관 · 51

(가) 개요 · 53

(나) 고대 이란 서사시 속의 중국 상 · 56

(다) 중세 중동 무슬림의 중국개념 · 66

제5장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기사 · 77

(가) 개요 · 79

(나) 아랍어 문헌 · 81

(다) 페르시아어 문헌 · 105

(라) 중세 이슬람 문헌의 평가와 과제 · 111

제6장 한반도와 중동 이슬람권과의 교류 · 117

(가) 개요 · 119

(나) 대상과 해상무역의 계승자 아랍인 · 123

(다) 해로(海路) · 130

(라) 육로 · 175

제7장 결어와 후기 · 233

제1장
서론

해상왕 장보고(張保臯, 846 죽음)가 중국과 한반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황해의 뱃길을 무대로 교역에 종사한 9세기 전반기는 통일신라(654~992)의 해상활동 전성기였다. 이 시기에 산둥 반도의 등주(登州)를 비롯하여 양주(揚州) 및 초주(楚州) 등 중국 해안에는 신라방(新羅坊)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장보고가 살해당한 이후에도 신라방은 모국 신라와의 교류관계 때문에 중국 땅에 오래 존속해 왔다.

장보고가 사망한 9세기 중엽에서 그 후 약 300년 동안 중동의 무슬림 상인들도 광둥(廣東), 천주(泉州), 강도(江都), 양주(揚州) 등 당대(唐代) 중국의 대표적 항구에는 이미 활동거점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거점들은 신라방에 버금가는 규모였기 때문에 신라의 무역상을 비롯한 거류민 집단과 또 중동의 무슬림 상인 및 그 거류민 집단 사이에는 상담을 나누거나 친분을 맺는 등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동 무슬림들의 중국 진출은 이슬람이 세계역사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이 진출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육상 교통로인 세칭 실크로드(Silk Road, 비단길)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 교통로인 남해로(南海路)이다(요즘의 학계는 이 육로와 해로를 모두 실크로드로 부르기도 한다). 실크로드의 기원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이기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한 것이다. 반면에 인도양과 동남아 및 중국대륙의 해안선을 따라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남해로는 기원전 5세기경 혹은 6세기경에 처음 열린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이슬람의 등장 이후 중동에도 우마이야 조(서기 661~750)와 압바시아 조의 전기(750~950년경)에는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중국에도 당(唐, 618~907)이 통일과 안정을 달성했기에 이 두 지역 간의 교역은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더구나 이 시대에 중동의 무역선들은 인도양과 남중국해의 해류를 타고 자주 중국의 항구를 찾아 들었고 심지어 한반도에까지 진출했다. 또한 중국 상선(junks)도 스리랑카를 넘어 페르시아 만까지 빈번하게 진출했기에 아랍어와 페르시아 고어(古語)에서는 중국 배를 선박(船泊), 즉 sombak 또는 sunbuk으로 불렀을 정도다(아래 151 쪽 제 6장 b) 남중국해상의 교역 참조).

9세기 후반기부터 약 300년에 걸쳐서 나온 아랍어, 페르시아어 문헌에서 단편적이거나 한반도의 상황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신라(Sila), 카울리(Kauli, 高麗의 중국식 발음)라고 부

른 점과 지형, 위치 및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심지어 정치상황을 저서(著書)마다 제각각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를 카올리라 기술한 세 사람의 학자들은 신라로 기입한 여러 저자들보다 시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도 대식국(大食國) 상인의 한반도 출입을 기록하고 있어 중세 이슬람 문헌의 기록을 확인해 주고 있다.

9세기 후반기와 10세기 초에 저술된 아랍어 역사와 지리 서적에 이미 신라의 국호가 기술되어 있는 점과 고려사의 대식국 상인에 대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의 중동 무슬림들은 한반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었고, 또 직접 교역하고 있었다. 그들의 한반도 접촉은 그 이전에 중국 땅에 확립된 그들의 거점과 신라방(新羅坊) 사이에 진전되어 왔던 교류에서 연유되었을 것이다.

신라에 대한 아랍어 문헌의 기록은 유럽인의 한반도에 대한 그것보다 무려 350년 내지 400년이나 앞선 것이다. 한반도를 신라로 지칭한 대표적인 저술이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hbich, 912 죽음)의 『도로들과 왕국들의 책』과 무역상 술레이만(Sulayman al-Tajir)의 『중국과 인도 소식』이다. 둘 다 850년 전후에 출간되었다. 반면에 한반도를 언급한 최초의 유럽인은 1255년경 원(元) 조정에 온 프랑스 수사(修士) 루브루크(William of Rubruck, 1215~1295)이다. 그는 여행기에서 원(元) 조정에 들린 각국 사절단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기술한 “섬나라에 사는 카올레(Caule) 사람”이란 한마디가 바로 고려의 중국식 발음으로 풀이된 것이다.

그 이후 스페인의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 1551~1811)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종군신부로 한반도를 방문했다. 그 외에도 유럽인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마르크 폴로를 비롯하여 몇이 더 있으나 “카올리”란 단어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매우 애매모호하다.

반면에 중동 특히 페르시아어 문헌에서는 카올리, 즉 고려에 대한 언급은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루브루크보다는 시대적으로 조금 늦게 태어났으나 거의 동시대 사람인 라쉬드 알 딘(Rashid al-Din, 1247~1318)은 그의 저서 『집사(集史, Jami al-tawarikh)』에서 고려를 중국의 세 번째 성(省)으로 소개하고 그 정치상황도 기술해 두었다.

중국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장보고와 신라방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자료는 이미 우리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중세의 아랍어, 페르시아어 문헌에 언급된 신라와 고려에 관한 기록과 그 해설은 필자의 논문 「중동 문헌에 비친 한국 상」(1977, 한국사논총)이 그 최초였다. 그 후 이희수 교수의 역저 『한·이슬람 교류사』(1991, 서울, 문덕사) 및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교수의 역작 『신라-서역 교류사』(1992,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와 또 다른 최신 명작 『셀크로드학』(2001, 창작과 비평사)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개 내지 해설되었다.

또 위의 네 연구논문에는 아랍어 문헌을 비롯한 모든 중동 이슬람 문헌을 시대순 혹은 필요에 따른 항목으로 분류, 번역하여 순수한 교류사의 관점에서 한반도 관련 기사가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인용문의 한글 번역문은 대체로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그 원문이 어떤 형태로든 거의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인용된 사료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즉 언어별로는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나 미래의 이슬람 역사, 중동사, 실크로드학 분야의 학도들이 겪는 고충, 즉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고전 원문을 찾아야 하는 난관과 언어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주려고 이글의 말미(末尾)에다 현재 필자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사료를 각각 별도로 게재했다. 물론 중국어 사료도 첨부함이 마땅하나 위에 소개한 서적에 이미 들어 있기에 삼갔다. 하지만 필자가 구할 수 없는 원문은 영어, 불어판 번역문 또는 위에 언급한 두 한국어 서적에서 인용하여 이 글에서 활용했다.

또한 한반도에 관한 중세 아랍어, 페르시아어 문헌의 소개와 더불어 이 문헌을 유럽어로 번역하여 주석을 붙인 연구서적도 제2장 사료와 문헌에서 언급하여 한반도 관계 사료를 총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도록 애썼다. 사료의 중요성을 새삼 논의해 보자는 뜻보다는 중동의 사료에 생소한 한국인에게 그 대강이나마 소개하여 그 특징과 규모를 알고 한반도 관계와 중세 중동 이슬람 사료의 문헌사적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써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헌 사이에도 앞서 나온 것이 후대의 것에 영향을 주었기에 그 관계도 음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를 유럽어 문헌은 그 나름대로 분석했기에 이 글에서는 제2장에서

더불어 다루었다.

한반도를 언급한 중세 중동 이슬람 문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중세 중동 무슬림이 지닌 세계 지리관과 우주관의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제3장에서는 중세 중동 무슬림의 세계지리에 관한 지식, 특히 지구의 생김새, 대륙과 대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세 중동의 옛 지도에 대한 해독법도 얼마간 다루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중국에 관한 지식도 우리 한국인은 소화해야 할 부분이다. 중세 무슬림들은 한반도를 한결같이 중국의 한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4장에서는 이 분야를 취급했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 대한 중세 중동 무슬림들의 한반도에 대한 단편적 기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두루 소화한 후에 제5장에서는 중세 이슬람 문헌에 제시된 보도 자료를 먼저 언어별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나눈 후 각 저자의 생존연대순으로 소개하고 그 자료의 한글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그 내용을 분석, 비평, 해설한 후 이 사료의 진위 여부를 논의해 보았다. 또한 사실과 어긋난 사료가 나온 경우 그렇게 기록된 원인을 추정도 해보았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중세 이슬람 사료의 역사적 가치를 가늠해 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과정을 음미했다.

제6장에서는 한반도와 중동을 연결해 주는 해로(海路)와 육로를 각각 분리해서 개괄해 보았다. 길이란 예부터 사람들이 오가려고 만들었기에 고대의 대제국(大帝國)은 길을 따라 팽창해 갔고 또 반대로 길을 따라 수축되었다. 즉 길을 지배하는 세력이 곧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길은 곧 마을과 마을, 마을과 도성, 도성과 도성,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시켜 준다. 즉 길은 곧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지만 때로는 또 반대로 길을 차단함으로써 고립 또는 격리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 이 원리는 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바닷길에도 마찬가지다. 이 바닷길을 연결시켜 주는 곳은 곧 포구와 항구이다. 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길에 대한 연구가 오늘날 세인(世人)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동서 문화교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실크로드(Silkroad, 즉 비단길)인데 그것을 요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세 가지 모두다 비단을 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즉 육로(陸路)의 초원길(Steppe route)과 오아시스길(Oasis route, 혹은 사막길) 및 바닷길인 남해로(南海路)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이 글에서는 역사의 흐름과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인류에게 그 중요성과 활용의 빈번도가 변천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 보고 또 가능하면 증명 내지 추정 또는 주장이라도 해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서기 500년 전후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 이전은 초원길이 한반도에 더 중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오아시스길이, 또 다른 한편으로 1000년 전후를 기준 삼으면 그 이전, 즉 서기 500~1000년 사이에는 오아시스길이 그 이후에는 바닷길이 더 인류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심증(心證)이 가는데 그 사실을 가능하다면 물증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에는 그 어떤 길보다 하늘길, 즉 공로(空路)가 더 중요시되어 다른 길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 실감(實感)된다.

또한 실크로드(초원길, 오아시스길, 남해로)를 따라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다 보면 곧 세계사의 큰 흐름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시대, 즉 기원 전후에서 1000년경까지의 중근동, 인도, 동남아, 중국 및 한반도를 잇는 남해로 상의 변천과 또 다른 한편으로 중근동, 중앙아시아, 중국 및 한국을 연결하는 육로 상의 변화도 분석해 보았다.

즉 문명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육로(陸路)에선 자동차가, 해로(海路)에선 배가 공로에선 비행기가 제각각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여기서는 장거리, 즉 원거리적 관점에서만 보자는 뜻이다. 또한 이 원리를 한반도의 역사의 진전(進展)에 연결시켜 고려해 보면 서기 500년 이전에는 초원길을 통해 온 문물에 한겨레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에 그 이후에는 우수한 중화 문화와 문물에서 더 크고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마유목민족친화(親和)에서 중화민족친화로 넘어가는 것은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을 오가면서 들어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한번 증빙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고도로 발달된 문화는 그보다 낮은 문화와 종족에게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눈에 띄게 된다.

또한 동서를 연결해 주는 육로와 해로 상의 거점 도시와 항구를 설명하는 도중에 가능한 경우에는 한반도에 미친 영향이나 또는 한반도 출신 인물과 그 장소와의 관계도 저울질해 보았다. 한반도를 신라 또는 고려라 언급한 사료의 근원이 모두 남해로나 육로인 실크로드를 오간 사람들에서 연유했고 또 그들이 오가다

머문 곳마다 족적을 남겼기에 항구나 오아시스 도시 중심으로 취급했다. 그것도 대표적인 몇몇만 제6장에서 다루었다. 특히 육로의 거점인 오아시스 도시와 해로의 기착항구 가운데 몇 개를 골라 항구와 오아시스의 기능도 추정해 보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혔음을 숨길 수 없다. 예를 들면 자료의 부족이라든지, 구한 자료도 부실하거나 또는 난해(難解)한 고어(古語)가 되어서 해독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항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의 등대역할을 해 왔기에 그 비중을 가늠해 보도록 노력했다. 또한 오아시스 도시도 문화의 봉화대역을 맡았기에 항구의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짚어 보았다. 해로와 육로는 길이기에 사람과 사람이 오가고, 만나서 접촉한다. 그 접촉에서 상거래, 외교, 심지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즉, 문화와 파괴도 길을 따라 오가는 사람들이 행한 발자취일 따름이다.

대부분의 동서교류사 서적에서는 해로나 육로나 관계없이 대체로 역사적 인물의 여로(旅路)를 설명하기 위해 경유 항구나 도시의 이름만 주로 열거한 반면에 이 글에서는 항해선박의 기착 항구와 대상(隊商)들의 경유 도시들을 중시하여 그 이름과 더불어 정확한 현재의 위치와 또 문화 교류상의 기능과 비중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취급하려 애썼다. 그러나 자료수집과 올바른 이해라는 한계에 부딪쳐 많은 제한을 받았다.

또한 이 글의 제5장에서는 이슬람 사료가 발간된 시대적 순서대로 모두 열거하여 취급했으나, 제6장 해로와 육로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000년경까지 활동한 뱃사람들의 기항지인 항구와

포구, 또한 기마(騎馬)유목민족과 그들의 거점도시나 또는 지역을 몇 개 골라서 논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한겨레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인물과 연관이 있으면 비록 한겨레가 아니더라도 이해의 차원을 넓히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특별 취급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육로인 실크로드(실크로드)는 스텝로(초원길)와 오아시스도로 나뉘는데 정확한 교통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 두 거대한 교통로를 통하여 교류된 문물을 다루어 한반도의 문화형성에 끼친 영향을 재고(再考)해 보았다. 또한 이 두 길의 차이점과 한반도와의 관계도 고려했다. 가능하면 고증해 보려고도 애썼다. 특히 이 두 길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한겨레의 원류(源流)가 유목민 내지 기마민족 계통임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을 비교하다 보면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는 정착민이 인류 역사상 주로 문화와 문명의 창조 역할을 맡은 반면에, 그것을 전달 내지 보급하는 역할은 적어도 서기 8세기 이전의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는 초원길을 달리는 여러 유목민도 상당한 공헌을 해 온 것 같아 그것을 밝혀 보려고 애썼다. 특히 서기 6, 7세기까지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 그 대표적인 몇몇 민족 또는 종족(스키타이, 흉노, 월지족)을 예로 들어 설명 내지 증빙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가능하면 한반도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점은 인도, 중국 및 그리스와 같은 문화 창조의 주역, 또 동시에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경시 또는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즉 중국의 한(漢)과 당(唐)은 서역(西域), 중앙아시아 경영을 통한 중국 문화의 서진(西進)과 또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중근동과 중앙아시아 정복으로 인한 그리스 문화의 동진(東進)은 조직적인 국가무력에 의한 동서(東西) 문화 교류의 촉진임은 매우 잘 알려져 있어서 이 글에서는 논외(論外)로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유목민은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통해서라기보다 그들 자신이 기마민족(騎馬民族)이란 사실에서 소위 문화민족(중국인, 인도인, 그리스인 등)들로부터 유익한 문물을 입수하여 말(馬)을 이용하여 여러 다른 기마민족 또는 다른 정착민(定着民)에게 전해 준 흔적을 가능한 한 제6장에서 밝혀 보려 했다. 또 동시에 한겨레와의 접촉 흔적도 찾아보려고 애썼다. 또한 한겨레의 역사는 초원길의 번영과 쇠퇴와도 연관이 깊은 것 같아 그 분야도 다루어 보았다.

특히 중국 문화, 즉 한문(漢文)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점차 한겨레의 기마민족, 즉 유목민족에 대한 친밀도가 줄어들고 그 대신 중국인에 대한 친화도가 증대함을 엿볼 수 있어 가능하면 이 현상을 부각시키려 노력했지만 자료와 역량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한(漢)과 당(唐)대의 중국 중원(中原)이 번창하여 문화를 꽃 피우게 되자 초원길, 즉 스텝로는 제자리걸음인 반면 오아시스길은 점차 그 중요성이 점증한 사실도 참조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책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제2장

사료와 문헌

(가) 개요

한반도를 언급한 중세 이슬람 문헌을 소개하기 전에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문헌의 집필에 얽힌 과정을 개괄해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14세기 이전에 발간된 아랍어 문헌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추정하기조차 힘들며 현존하는 것만 해도 약 20만 권 이상이다. 또 같은 조건을 페르시아어 문헌에 적용하면 약 5만 권이 현재 남아 있다.

더구나 그 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거의 다 망라할 정도이다. 현존 이슬람 문헌 가운데 일부 유명한 학자의 대표적 저서만이 현대의 편집기술로 제본, 편집되어 출간의 행운을 맞보았으나 상당한 수의 문헌은 아직 필사본의 형태로 여러 도서관, 박물관 등 기관에 소장되어 잠자고 있다.

대체로 중세 이슬람식 학풍에 따르면 저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책을 쓰기도 하지만 주로 저자인 스승이 큰 소리로 읽어 주면 그 제자들이 받아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 어떤 특정 사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합리화하기보다 그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장과 설(說)을 모두 나열하는 식으로 망라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사료는 길고 또 다양한 목소리를 읽을 수 있어 그 내용 파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부한 맛이 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주석(註釋)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탓으로 생소한 인명이나 지명이 되풀이 될 때마다 기다란 설명을 붙이는 것이 관례다. 즉, 신라라는 어휘가 다시 나올 때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 없는 설명을 간단히 덧붙인다.

또한 중세 이슬람 고전(古典)의 집필 작업은 대체로 저자가 직접 손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즉, 저자가 문장을 낭송하면 제자들이 받아쓰기 때문에 매우 길었다. 대학자들의 저서 한 권에는 오늘날의 인쇄술로도 500~600쪽에 달하는 책이 7, 8권에 달하기가 예사이다. 즉 한 질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아랍 제일의 역사학자 따바리(al-Tabari)의 『연대기』이다.

또한 중국의 인쇄술이 최근까지만 해도 중동 이슬람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이 필요할 때에는 입수를 원하는 사람이 남에게 돈을 주어 실사(實寫)하게 하였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읽어 가면서 옮겨 썼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었다. 사실 아랍어문자는 거의 속기문자와 같아서 교수의 강의를 빠짐없이 재빠르게 학생들이 기술할 정도이다. 인쇄술이 발달한 현재의 실상과

철자법이 규격화된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쉽게 이해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서구열강의 중동진출 이전까지만 해도 이 중근동의 고전(古典)은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집필되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18세기 이전에는 이슬람세계의 지식인들은 비록 비 아랍계 무슬림이라도 대체로 아랍어를 해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0세기경에 들어와 이란계 학자와 문필가들 사이에 이란 문화 부흥운동(shu'ubiyya)이 일어났다. 즉 아랍인 내지 아랍 문화가 비 아랍계 특히 이란계 종족이나 문화보다 우수할 것이 없다는 문화운동이 이란인들 사이에 거세게 일어나 그들은 페르시아어로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적이어서 이슬람의 망토를 입고 행하는 아랍우위정치에 대한 반항은 아니었다.

페르시아어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이란계와 투르크계 학자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아랍어로 집필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삼은 사만 조(Saman朝, 819~1005, 중앙아시아의 이란계 왕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아랍어는 중동의 비 아랍 지역출신 지식인에게는 낯선 외국어는 아니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아랍어로 책을 지었다. 심지어 오직 모어인 페르시아어로만 집필하는 이란계 학자들도 아랍어를 해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것은 아랍인들의 이슬람 문화가 중근동의 비 아랍계 무슬림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란인에게는 페르시아어가 모어가 아니면 제1의 언어였기에 당연했다. 특히 투르크인 및 인도인 다수 거주 지역의 무슬림 학자들도 11세기경부터 점차 신학, 즉 이슬람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저서를 페르시아어로 집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아랍계 학자들은 시종일관 아랍어로만 저서를 내 놓았다. 그들은 페르시아어를 대체로 해독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사실은 페르시아 문학을 한번 훑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다.

신라 또는 카올리(고려)란 이름은 10세기 이후의 이슬람 사료에서 중국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 즉 중국의 각 지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특히 고려를 언급한 문헌에서는 심지어 중국의 한 성(省)으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반도를 카올리라고 지칭한 사료는 모두 세 권(페르시아어 두 권과 아랍어 한 권)에 들어 있지만 그 저자들의 명성과 비중도 드높고 또 이 세 권이 차지하는 문헌적 가치도 커서 신라라고 언급한 사료와 구분하여 다루었다.

육로의 실크로드와 남해로를 통하여 한반도에 들어온 문물을 다룬 제6장에서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및 『후한서(後漢書)』의 『서역기(西域記)』를 포함한 중국 문헌과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도 필요시에는 활용했다.

18세기 이후 유럽 열강의 동방 진출과 더불어 유럽학계에도 중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특히 구미의 학자들은 연구 중에 10세기 이후의 아랍인 또는 이란인의 해상활동에 관한 사료가 눈에

피자 번역에 몰두한 뒤에 역주를 달고 또 해설도 붙여서 발표했다. 또는 그 가운데서 한반도를 언급한 사료만 별도로 추려서 논문으로 내놓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유럽어로 된 서적도 중동사료와 그 문헌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편의상 별도의 절(節)에 묶어 설명했다.

다음은 한반도관련 기사를 언급한 저자와 저서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저자 이름	저서 이름	출간 또는 생존연대
1. 이븐 후르다드비	도로와 왕국들의 책	초판 846/ 재판885
2. 무역상 솔레이만	중국과 인도 소식	집필 851/ 출간 916
3. 이븐 루스타	값진 귀중품 목록	집필 903~913/ 출간 916
4. -마수우디	황금 초원과 보석광	956 죽음
=====	학습과 개관	
5. -마끄디시	창세와 역사의 책	집필 974
6. 이븐 알 나담	색인 목록	집필 988
7. -이드리시	먼 나라 총횡을 꿈꾸는 자의 책	1154 죽음
8. 자카리아 까즈위니	창조의 경이와 존재의 희귀성	1203~1283 생존
9. 이븐 사이드	7개 지역에 대한 지리서	1213경~1286 생존
10. 라쉬드 알 딘	집사(페르시아어)	1247~1318 생존
11. -디마쉬끼	대륙, 대양의 경이와 현재의 정선	1327 죽음
12. -누와이리	문학예술의 궁극적 목적	1332 죽음
13. 아부 알 피다	왕국들의 안내목록	1273~1331 생존
14. 이븐 할둔	서문	1332~1406 생존
15. 압드 알 라쉬드	제왕들의 자취와 경이의 요약	집필 1402

알 바쿠위		
16. -마끄리지	새 정착지와 유적지의 해설과 학습	1364~1442 생존
17. 알리 아흐바르 하타이	중국 안내서(페르시아어)	집필 1546
18. 아부 알 파즐	아크바르대제 치세기(페르시아어)	1602 죽음

* 저서의 이름 가운데 ()속에 페르시아어라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아랍어임

(나) 아랍어 사료

아랍어는 이슬람교의 성장, 발전에 발맞추어 나란히 뻗어 나갔다. 더구나 이슬람력(曆) 제2세기 초에 압바시야 조(750~1258)가 들어선 후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루게 되자 아랍어는 학술어로 발전했다. 결국 문화와 학술의 번영과 함께 아랍어 서적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한반도를 언급한 아랍어 사료도 그 종류가 많아 여행기, 지리서, 역사서 및 사전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처럼 당시에는 학문분야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지리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다. 이 두 학문분야는 다 같이 천지학(天地學, Cosmography)의 영역에 속하는 우주의 창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행기와 지리학의 구분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았다.

아랍어 사료는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권이나 되고 그 모두가 한결같이 한반도를 신라로 표기하고 있다. 물론 아랍어 문자표기로는 다소 음역이나 철자상의 차이가 약간 있으나 한반

도의 신라를 지칭하고 있음은 그 발음으로 보아 너무나 명백하다. 단지 아부 알 피다의 『왕국들의 안내목록』에는 신라라는 지명과 더불어 카올리, 즉 고려라는 용어도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이름의 나라가 같은 나라임을 알지 못하고 따로따로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랍어 사료에는 중국을 다녀온 상인, 항해자, 선교사 및 외교사절이 여행 중에 들은 신기한 소식을 각자 고향에 돌아와서 동료나 이웃에게 전한 여행담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에 관한 언급이 그러하다. 여행기로 손꼽히는 책으로 이름난 것은 항해자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인도소식(Akhbar al-Sin wal Hind)』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저자인 무역상 술레이만(Sulayman al-Tajir)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 책은 851년에 집필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60여 년이나 지난 뒤였다. 즉 아부 자이드 알 시라피(Abu Zaid al-Sirafi)라는 상인이 916년에 이 여행기를 출간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글도 첨가했다(Minorsky, *Hudud al-Alam*, 224쪽). 이 저서에는 신라에 대한 기사가 한 단락 들어 있는데 비교적 객관적 사실(史實)에 충실한 것 같다. 그러나 무역상 술레이만이 직접 한반도를 다녀갔는지 여부(興否)는 그의 글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저서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여행기로는 아랍인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이븐 바투다(Ibn Battuta, 1377 죽음)가 있는데

그는 중근동,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지로 방랑하면서 한 곳에 수 개월 또는 몇 년간 머물면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다. 중국에서도 수개월간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만년에 고향인 모로코로 돌아가서 큼직한 여행기를 남겼다.

이 책은 『이븐 바투다의 여행기』(정수일 역주, 창비사, 2001)란 제목 아래 한국어로도 완역되어 매우 호뭇하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상하게 기술했지만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제4장 중동 무슬림의 중국관을 논의할 때나 또는 참조로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다소 활용할 것이다.

이 두 여행기 외에도 여행담에서 인용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른 여러 지리서나 역사서에도 각 국 또는 각 지역에 관한 이야기 속에 산발적이지만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단편적으로 들어있다. 특히 중세 이슬람 문헌 가운데 한반도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븐 후라다드비(Ibn Khurradadhibih)의 『도로들과 왕국들의 책(Kitab al-masalik wal mamalik)』은 오늘날 아랍문학사의 전문가들조차 각자의 주관에 따라 여행기로 때로는 지리서로도 분류할 정도이다. 이 책은 현존하는 아랍어 지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니콜슨, 481). 또 저자 자신도 프톨레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한반도를 언급한 지리서는 -이드리시(al-Idrisi 1166 죽음)의 『먼 나라 종횡을 꿈꾸는 자의 산책(Nuzhat al-Muahtaq fi ikhtiraq al-afaq)』이다. 그는 시실리 섬의 로저(Roger II, 재위 1130~1150)

의 궁전에 근무하면서 당시까지 알려진 중동과 유럽의 지리 관계 도서를 모두 섭렵한 후 그 지식을 이 책에 집대성하였다. 그 때문에 문예부흥기의 유럽에서는 이 책에 매력을 느껴 일찍이 1592년에 라틴어로 초역(抄譯)되었고 1916년에는 부정확하게 프랑스어로 완역(完譯)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유럽어로 계속 번역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드리시 보다 약 100년이나 늦게 태어난 자카리야 까즈위니(Zakariya Qazwini, 1203~1283)는 『창조의 경이와 존재의 희귀성(Ajaib al-maqluqat wa-gharaib al-mawjudat)』과 『나라들의 남긴 자취(Athar al-bilad)』라는 두 천지학(天地學) 저서를 남겼다. 앞의 책은 주로 천지창조와 조화를 부문별로 자상하게 다루었고 뒤의 책은 앞서 간 지리학자 50여 명의 서적을 참조하여 지은 것이다.

까즈위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븐 사이드(Ibn Said, 1213~1286)는 『7개 지대에 관한 지리서(Kitab al-junghrafiya fi'il-aqalim al-sab a')』를 남겼다. 이 책은 앞서 나온 지리서에서 언급한 지구(地球)의 7개 지대(地帶)설을 더욱 발전시켜 각 지대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켰다. 또한 각 지역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를 활용하여 수치로 밝혀 놓았다.

그 다음에 나온 유명한 지리서는 천지(天地)학자 -디마쉬끼(al-Dimashqi, 1327 죽음)의 『대륙과 대양의 시대적 정선(Nukhabat al-dahr fi aja'ib al-barr wa'l bahr)』이다. 이 책에는 다른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와 또 기이한 얘기를 담고 있다. 신라에 대한 언급도 그 예외는 아니다.

-디마쉬끼와 동시대 사람인 아부 알 피다(Abu al-Fida, 1273~1332)는 이븐 사이드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킨 학자이다. 그의 유명한 지리서 『여러 나라 안내목록(Kitab taqwim al-buldan)』은 그의 시대까지 알려진 6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17세기에 와서 여러 유럽어로 번역되었으며 또 유럽의 대학에서 지리학 교재로 활용되었다. 이 책에서는 신라와 고려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외에도 제3장 중동 무슬림의 세계 지리관과 제4장 중동 무슬림의 대 중국관에 필요한 전거(典據)로 -이쓰따흐리(al-Istakhri)의 『왕국들의 도로망(Masalik al-Mamalik, 930~933 집필)』과 이븐 하우갈(Ibn Hauqal)의 『지구의 형상(Sutat al-Ard)』도 활용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요하게 활용된 지리서는 야꾸트(Yakut, 1229 죽음)의 『나라들의 사전(Mujam al-Buldan)』이다. 이 책은 지리 지식의 보고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언급한 세권의 책은 한반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은 없지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당대 무슬림들의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역사 서적 가운데 신라를 언급한 것으로는 -마수우디(al-Mas'udi, 957 죽음)의 『황금초원과 보석광(Muruj al-dhahab wa ma'adin al-jauhar)』과 『학습과 개관(al-Tanbih wa'ishtaf)』이다. 앞의 책은 천지창조에서 그의 당대인 947년까지의 세계 역사를 다루었지만 체계적인 면은 미흡하나 모든 사건을 편견 없이 기록하였다. 아랍역사서 가운데 이 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높다. 뒤의 책은 그가 전에 저술한 책에서 피력하지 못한 아쉬운 이야기

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불충분한 곳을 자상하게 기술하려는 의도에서 지은 것이다.

-마수우디의 저서에 뒤이어 신라에 대하여 언급한 역사서로는 -마끄디시(Mutahhar al-Maqdisi)의 『창세와 역사의 책(Kitab al-bad' wa al-tarikh)』이다. 그 속에는 비록 신라라는 어휘는 빠져 있어도 그 내용으로 보아 신라를 묘사한 구절에 틀림없다. 이 책은 비록 『황금초원과 보석광』과 같은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문화사적 자료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엮어 놓았으며 그 일부 기록은 다른 사료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들어있다.

-마끄디시 이후에 거의 4세기나 지나 등장한 아랍역사가들은 그들의 저서에 신라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은 기존의 선행 역사서에서 발췌 내지 침삭하여 기록했으므로 그 독창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슬람 역사에서 도태된 세력들의 피난처로 신라를 규정했기에 여기서는 그 저자와 저서의 이름과 그 비중을 소개하는데 그치겠다.

우선 이슬람 역사상 최대의 사상가로 꼽히는 이븐 할둔(Ibn Khaldun, 1332~1406)의 저서 『서론(Muqadima)』에는 비록 한반도에 대한 기사는 간략하지만 저자와 저서의 명성은 현재 세계적이다. 이 저서에서 역사발전의 법칙이 거론되었기에 저자는 역사철학의 아버지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의 위치만 간략하게 두 번 언급했을 따름이다.

이븐 할둔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쿠위('Abd al-Rashid Salih al-Bakuwi)는 1402년에 집필 완료한 그의 저서 『왕들의 남긴 자취와

경이의 요약(Talkhis al-athar wa aja'ib al-malik al-quhhar)』에서 신라의 경이로움을 두 줄로 간단히 묘사했다.

그 다음에 나온 역사학자 -마끄리지(al-Maqrizi, 1364~1442)는 그의 저서 『신 정착지와 유적지에 대한 해설과 학습(al-mawa'iz wa al-i'tibar fi dhikr al-khitat wa al-athar)』에서 신라에 대하여 그 위치만 언급한 뒤 무슬림들 간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세력의 피난처로 기술했다.

그 외에도 -따바리(al-Tabari, 839~923)의 『예언자들과 왕들의 연대기(Kitab Akhbar al-rusul wal-muluk, 약칭 연대기)』도 활용했다. 이 책은 이슬람의 등장 시부터 -따바리의 당대까지 약 250년간의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정렬한 것인데 그 속에는 중국에 대한 것도 상당히 들어있다. 그 외에도 -디나와리(al-Dinawari, 895 죽음)의 『옛날 이야기책(Kitab Akhbar al-tiwal)』과 -야꾸비(al-Yaqubi, 897 죽음)의 『역사』 등등 다른 사료(史料)도 가끔 이용했다.

사전류의 사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이븐 루스타(Ibn Rusta, 912 죽음)의 『값진 귀중품 목록(Kitab a'laq al-nafisa)』이다. 이 책은 903년에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세상에 나왔다. 그 저자는 이란계이며 신라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븐 후르다드비의 책에서 따온 것 같다.

그 후에 발표되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이븐 알 나딤(Ibn al-Nadim, 995년경 죽음)의 『색인 목록(al-Fihrist)』이다. 이 책은 977년에 편찬되었는데 주로 당시까지 알려진 문헌의 저자와 저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오늘날의 문헌학 서적처럼 체계적이지는 못하

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서적으로는 세계 문헌사의 백미에 속한다. 신라에 대해 새로운 기술은 없으나 당시까지 알려진 것을 오늘날의 일반 백과사전에서 보는 것처럼 각 항목에다 간단한 설명문을 첨부해 두고 있다.

이본 나뉘는 것보다 무려 300년이나 뒤늦게 나온 -누와이리(Ahmad al-Nuwayri, 1332 죽음)는 이집트인으로 백과사전적인 박식가였다. 그는 『문학예술의 궁극적 목적(Nihayat al-arab fi funun al-adab)』이라는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 속에서 신라를 언급했다. 그 내용은 -디마쉬끼의 저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 학술적이지만 오락용의 서적으로 -사알리비(al-Thalibi, 1037 죽음)의 『진리의 진수(Lataifal-Maarif)』도 종종 이용했다.

(다) 페르시아어 사료

이란이 아랍 무슬림 군대에 정복 당한지 60년이 지난 7세기 말경에 페르시아어는 이란 고원 핵심영역에서조차 아랍어에 공공석상에서는 밀려났다. 그때부터 근 300년이 흐른 후 페르시아어는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서 사만 조(Saman朝 819~1005)의 등장과 또한 슈우비야 운동의 전개(앞의 25쪽 참조)와 함께 부활의 날개를 치기 시작했다.

그 후 이란인 거주 지역은 물론이고 투르크인 다수 지역 및 인도 전역에 걸친 동부 이슬람세계에서는 종교계를 제외한 거의 모

든 분야에서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의 지배적 지위를 대체했다. 특히 사만 조의 뒤를 이은 가즈나 조(Gazna 朝, 977~1186)가 페르시아어를 궁정용어로 채택하자 점차 이 언어는 투르크족 사이에도 힘을 얻게 되었다.

이 왕조는 투르크족 출신의 사만 조 장군 마흐무드(Mahmud, 998~1030)가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나를 수도로 삼고 세운 나라였는데 그는 당시 맘룩군(Mamluk軍) 사령관이었다. 이 맘룩군은 주로 투르크계 병사로 이루어졌지만 사만 조의 오랜 통치 아래서 이란화되어 있었다. 그 후 가즈나 조는 영역을 인도 서북 지역까지 넓혔다. 그 때문에 그 후 등장한 투르크계 왕조나 인도의 무슬림 왕조는 모두 마흐무드의 모범을 따라 페르시아어를 궁정언어로 또는 공용어로 사용했다.

특히 몽골족의 일한 국(Ilkhan 國, 1256~1353)은 물론 투르크족의 오스만 조(Osmam 朝, 1281~1924)도 초기 100여 년간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삼자 이 언어는 날개를 단 듯 아랍인 다수 지역을 제외한 이슬람권 전역의 학술 내지 문화언어로 발전했다. 그 후 이 언어의 위력은 유럽열강의 동방 진출과 더불어 인도와 투르크족 거주 지역은 물론 심지어 이란 영토 안에서조차 시들어져 그 막강한 지위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10세기 이후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 즉 유럽열강의 중동진출 이전에는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및 투르크계 인종 다수 지역 출신 학자는 그 저자가 이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체로 페르시아어로 집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다.

페르시아어 사료에서 한반도를 언급한 저서로 필자가 입수한 자료는 현재까지 불과 세 권에 지나지 않지만 다소 더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저자와 저서도(예 Giat al-Din Naqqas. Safar Name ye Ketay, 즉 중국여행기로서 1419년 11월~1422년 8월 사이에 명명의 수도까지 왕래한 여행기) 알고 있으나 아직 현대적인 편집기술로 출간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남아 있고 입수하기가 어려워 한반도가 언급되어 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반도를 언급한 기사는 대체로 중국을 소개한 사료 속에 있는 점을 생각하면 꼭 구해 봐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란, 인도 및 투르크계 다수 지역(터키, 투르크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도서관이나 가정에 잠자고 있는 필사본 류의 원고가 오늘날의 편집기술로 다시 출간되면 아마도 한반도 관련 페르시아어 사료는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권의 페르시아어 사료 가운데 두 권은 한반도를 신라로 지칭하지 않고 고려의 중국식 발음인 카올리(高麗)로 부르고 있다. 특히 세 권 가운데 먼저 출간된 두 권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또 그 내용도 매우 신선한 편이다. 세 권 중 가장 늦게 나온 아부 알 파즐(Abu al-Fazl, 1602 죽음)의 아크바르나메(Akbarnama, 아크바르 황제 실록)는 한반도를 신라로 표기하고 중국의 한 지방으로서 그 위치만 언급했다. 아마도 아랍어 사료에서 읽고 간략하게 그 위치만 요약한 듯하다. 저자는 모굴(Moghul, 1526~1858) 제국의 황제 아크바르 대제(1556~1605)의 총애를 받은 신하였다. 이 제국의 궁정어와 공용어는 페르시아어였다.

한반도를 카올리라고 부른 최초의 중동 사료는 라쉬드 알 딘 (Rashid al-din, 1247~1318)의 『집사(集史, Jami al-tawarikh)』이다. 이 서적은 오늘날 몽골과 원(元)의 역사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객관성과 정확성에서 몽골어나 한자어 사료 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책 속에서 원나라의 12개 성(省)을 소개하는 가운데 고려를 세 번째 성으로 언급했으며 매우 구체적이다.

이 『집사』에 뒤이어 나온 페르시아어 역사책이 알리 아크바르 히타이(Ali Akbar Khita'i)의 『히타이나메(Khitainame, 중국여행기)』이다. 이 책은 1516년에 그 집필이 완료되었는데 단순한 여행안내서라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체계적인 책이다. 이 책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그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을 기록했으며 그 나머지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의 방문 시 중국은 명대(明代, 1368~1644)였으며 한반도는 조선왕조(1397~1910)의 치하에 있었다. 그도 조선이라는 당시 한반도의 국호 대신 카올리로 부르면서 한반도를 중국의 아홉 번째 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세 무슬림들의 중국에 대한 관념을 언급한 서적으로는 이란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시성(詩聖) 피르다우시(Firdausi, 940?~1025?)의 『왕서(王書, Shahname)』를 많이 활용했다. 중세 중동 무슬림들의 대 중국관(對中國觀)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 왕서는 장편 서사시인데 저자가 3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그 내용은 천지창조 시부터 시작하여 여러 이란의 전설적인 왕조를 노래한 후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산 조(Sasan 朝, 224~651)

의 전 역사를 읊조렸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을 놓고 다툼 이란족과 투란(Turan, 투르크 족 또는 이란계의 또 다른 종족 등 여러 설이 있음)족의 대결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속에 간간이 사랑 이야기도 곁들여 있어서 흥미를 돋우고 있다. 더구나 면면히 흐르는 내용의 큰 줄기는 이란족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 『왕서』는 문학서이기에 역사적 사실에 충실했다기보다 당시 독자들의 이해와 일반 상식에 기초하여 집필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저자 미상의 『세계의 지역들(Hudud al-Alam)』은 982년에 출간된 페르시아어 지리서인데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각 지역을 비교적 자상하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속에는 육지, 바다, 사막, 강, 산맥 등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등도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미노르스키(V. Minorsky) 교수에 의하여 영역된 것을 주로 활용했다.

또한 이 줄거에서는 투란과 투르크는 물론이고 투르크와 중국도 분별하지 않고 동일시 내지 유사한 구절로 묘사한 『왕서』를 비롯한 일부 사료와 또 이를 분명하게 구분한 일부 사료를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애매모호하게 사용한 점을 들추어내어 보았다. 대체로 중세 중동 무슬림의 모호한 대 중국관을 제시하고 그 원인도 추정해 보았다.

(라) 유럽어 문헌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고전을 탐독 번역하다가 한반도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문과 논문 등을 발간하였다. 유럽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많이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예외적으로 필자의 독일어 박사학위 논문 『초기 이슬람 문헌에 비친 중국상 연구(Untersuchungen zum Chinabild der Mualime in der fruehislamischen Literatur, Universitat Bochum, Germany, 1976)』 등도 함께 참조했다. 특히 중동인의 세계 지리관과 중국관에 관해서는 이 학위논문이 많은 사료를 제공했기에 이 줄거에서는 상당히 유용했다.

영어 자료에는 정계원(Chung Kei won)과 후라니(George P. Hourani)의 공저 논문 「한국에 관한 아랍 지리학자(Arab geographers on Kore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제58권 제4호 658~661쪽, 1938)」를 활용했다. 또 프랑스어 자료로는 페랑(Gabriel Ferrand)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사료 가운데 극동에 관한 것만 추려서 번역한 「8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아랍, 페르시아 및 터키인들의 극동관계 항해기와 지리서(Relations de voyages et textes geographiques Arabs, Persana et Turcs relatifs a L'Extreme Otient du VIIIe au XVIIIe siecle)」를 많이 이용했다. 특히 이 프랑스어 서적에서 한반도에 관한 기사만을 가려내어 영어로 번역한 맥퀸(Shannon Macune)의 ‘한반도 지리에 관

한 아랍인의 보도자료(Arab Accounts of the Geography of Korea)'를 많이 참조했다.

한반도를 언급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 사료의 유럽어 번역문이나 해설논문 이외에도 중동이나 이슬람 관계 전문참고 서적으로 그 권위가 높은 『이슬람백과사전(Encyclopaedia of Islam, 약칭 EI)』도 많이 참조했다. 또한 20만 권에 달하는 아랍 문헌의 역사와 그 분야를 세분하여 저자의 약력과 저서의 내용을 요약한 뒤에 그 원본의 소재지를 밝혀놓은 브록켈만(C. Brockmann)의 『아랍문학사(Geschichte der Arabischen Literatur)』와 세즈긴(Fuat Sezgin)의 『아랍문헌사(Geschichte des Arabischen Schrifttums)』(Leiden, 1967)도 함께 두루 활용했다.

또한 피어선(J. D. Pearson)이 편집한 『Index Islamicus(1906~1955)』와 쇼바제(J. Sauvaget)의 『동부 이슬람 영역사 입문(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uslim East)』(Berkeley and Los Angeles, 1965)도 참고했다. 그 외에도 유럽어로 된 필요한 문헌과 페르시아어 문학사의 참고도서로는 립카(Jan Rypka)의 『이란 문학사(Iranische Literaturgeschichte)』(Leipzig, 1959)를 참조했다.

제3장
10세기경 중동 무슬림의
세계지리관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 570~632)가 죽은 후 불과 백 년도 못되어 그의 가르침인 이슬람 종교로 정신 무장된 아라비아 사막의 아들들은 동쪽으로는 이란의 사산 조(Sasan 朝, 224~656)를 멸망시킨 후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와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병합했다. 또 같은 기간에 서쪽으로는 비잔틴(일명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리아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 지대를 떼어내어 통합함으로써 커다란 제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제국의 문명을 계승, 발전시켰다.

신흥 이슬람 세력은 인류 문화의 네 발상지 가운데 셋(메소포타미아, 나일 강 유역 및 인더스와 갠지스 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그 문화적 전통과 유산도 이어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는 중동, 인도, 그리스의 고대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 페르시아와 비잔틴의 문물도 계승했고 더 나아가서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 등의 종교적 전통도 물려받아 이슬람의 세계관이라는 커다란 용

광로 속에 융화시킨 셈이다. 그 결과 10세기경에는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가 도래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 문화와 전통 속에서 중세 중동 무슬림들의 지리관도 그리스, 이란 및 인도의 세계 지리관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랍적 전통과의 조화를 도모한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더구나 이슬람교도들은 매일 다섯 번씩 성지(聖地) 메카를 향해 예배를 올리는데다 또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로 가서 순례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의 팽창기(732~750)부터 세계지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세계정복에 나선 무슬림 군대는 새로운 정복지에서도 예배의 방향(qiblah, 즉 메카 쪽)을 알아야 집단예배를 포함한 여러 의례를 거행할 수 있었고 또 해마다 순례 철에는 메카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리 지식은 필수적이었다.

초기 무슬림들의 지리학 서적은 각 지역으로 가는 길의 안내, 특산물, 경이로운 사물 등 흥미를 끄는 사항을 소개하는 편력기가 그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는 근본적으로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중동 종교(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모두의 특징인 태초의 완벽성, 태초에로의 회귀성을 계승하고 있다. 그 결과 우주창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인도, 고대 이란과 비잔틴 제국의 지리학에도 매혹되었다. 특히 그리스의 지리학자 프톨레미(C.Ptolemy, 90~169)의 영향을 받은 뒤 더욱 세계 지리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10세기경의 중동 무슬림 지리학자는 대부분이 지구 전체를 원

판처럼 생긴 것으로 보았다. 또 육지를 ‘주위의 대양(al-bahr al-muhit)’에 둘러싸여 있는 반구(半球), 즉 달걀을 삶은 후 중간을 가로 자르면 나타나는 현상, 즉 흰자위 속에 있는 노른자위 같이 보았다(EI. Dhugrafiya 참조). 따라서 육지 전체를 일종의 큰 섬으로 생각했고 또 육지의 틈 사이에 있는 여러 작은 바다(예 지중해, 홍해 및 페르시아 만)와 ‘주위의 대양’은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 때문에 아랍어에는 협곡 속에 끼인 바다나 또는 만(灣) 및 큰 강을 모두 bahr로 표시하고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쪽의 더위와 북쪽의 추위 때문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믿었다.

프톨레미의 영향을 받은 지리학자들은 이 거주 지역을 다시 남쪽의 적도 선에서 나란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 맨 남쪽 띠를 제1지대(地帶), 그 다음 띠를 제2지대, 같은 방법으로 그 나머지를 모두 7개의 지대로 나누었다. 즉, 지구의 남·북반구를 위도 선으로 7등분한 것과 비슷하다(EI. iqim 참조). 지대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 iqim은 그리스어의 Klima(넓이 또는 띠의 뜻)에서 음역한 것이다.

그 반면에 고대 이란의 지리관과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을 중심으로 또는 이 지역이 이슬람화된 이후에는 메카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그려 중근동을 세계의 중앙 지역으로 삼았다. 이 중앙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세 지역, 즉 정북(正北), 동북(東北), 서북(西北)으로 나누었고 또 남쪽으로도 세 지역, 즉 정남(正南), 동남(東南), 서남(西南)으로 나누어 모두 7개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지역을 나타내는 고대 페르시아어 단어 Kishwar는 본래 원(圓)을 뜻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번역이 필요할 때 지역권(地域圈)으로 옮겼다.

그 외에도 순수한 아랍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육지 전체를 새(鳥)의 모양으로 보았다. 이 전통에는 오늘날의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념은 없었으므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머리, 카스피해 연안과 인도 지역을 두 날개로, 중동 지역(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등)을 몸통-그 중에도 메카를 심장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꼬리로 보았다(Ibn al-Faqih, 3~4).

아랍전통 지리학설의 주창자들은 앞에 언급한 두 설의 추종 학자들과는 달리 주로 이슬람 지역만을 취급하여 각 지방의 이름을 제시하고 풍물소개를 대체로 기술하였다. 반면에 비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대체적인 윤곽만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그리스인의 지대(iqlim), 고대 이란인의 지역권(Kishwar)과 같은 구분을 하지 않았다(El. Dhugrafiya).

10세기 이후에 나온 무슬림 학자들의 지리서에 개제된 세계지도는 오늘날의 그것과는 그 구조부터 달랐다. 즉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북쪽을 지면(紙面)의 위쪽에, 남쪽을 그 아래쪽에 그려 놓고 있다. 반면에 중세 중동 무슬림의 전통적 세계지도는 그 반대이다. 즉 지면의 위쪽은 남방(南方)이고 지면의 아래쪽은 북방(北方)이다. 그러나 동향(東向)과 서향(西向)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지도와 다름이 없다. 물론 세계지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도, 즉 각 지역의 지도에도 위쪽은 항상 남쪽이고 아래쪽은 북쪽이다.

이슬람역사에서 위대한 지리학자로 손꼽히는 -이드리시(Idrisi, 1099~1166)의 세계지도도 여전히 이슬람의 전통적 지도제작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비록 그는 프톨레미의 지리학이 지배적인 시칠리아의 궁전에서 시신(侍臣)으로 봉직(奉職)했지만 남쪽을 중시한 그의 지리관은 변하지 않았다.

즉, 그의 세계지도는 여전히 육지를 대양(大洋)에 둘러싸인 큰 섬으로 본 것이다. 또한 남북방위 표시도 이슬람 전통적인 방식대로 설정했다. 아마도 당시 유럽의 지도제작법보다 이슬람식이 더 진보적이고 우수하다고 그 자신이 믿은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원자인 시칠리아 왕과 그 측근들도 그렇게 보았기에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다.

<-이드리시(-Idrisi, 1099~1188)의 세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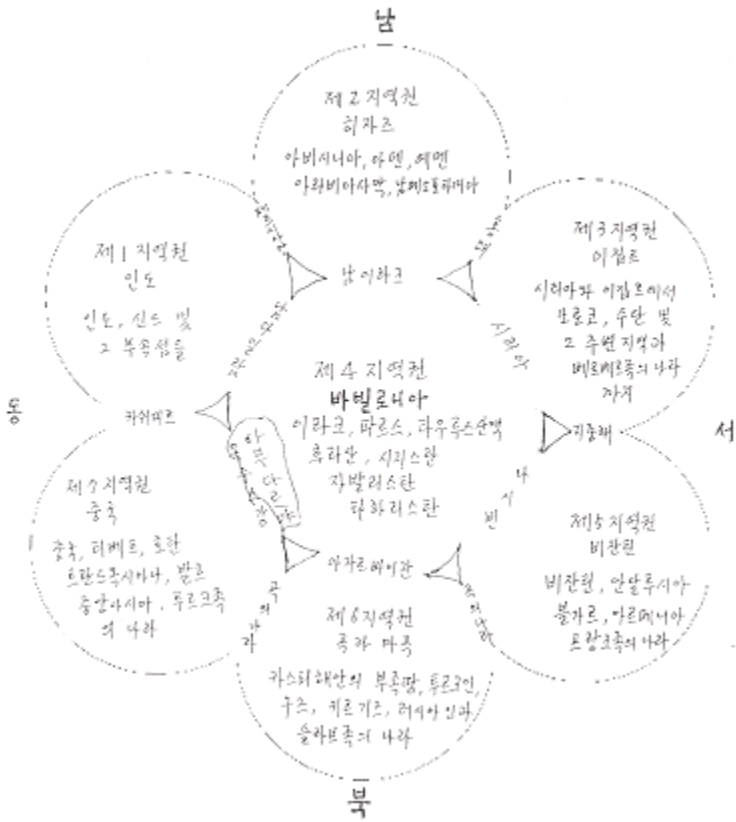


그의 저서 『왕국들과 도로들의 책(Kitab al-mamalik wa'l masalik)』에서 인용 게재

위의 지도는 프랑스 중동학자 쇼바제(Jean Sauvage)가 무역상 술

레이만의 저서 『중국과 인도소식(Akhbar al-Sin wa'l Hind)』의 붙어
 번역판에서 인용했다. 그러나 위의 지도는 위쪽이 북쪽으로 표시
 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원본은 그 반대다.

<고대 이란인의 세계상 : 세계 일곱 지역권>



-비루니의 저서 『Kitab tahdid nihayat al-amakin』 107쪽의 세계상을 영역(英譯)한
 나쓰르(Seyyed Hossein Nasr)교수의 저서 『Cosmography in Pre-Islamic and Islamic
 Persia』 20쪽에서 인용하여 한글로 번역함.

제4장

중세 중동 무슬림의 중국관

(가) 개요

대부분의 중세 이슬람 사료에는 한반도가 중국의 한 지방으로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사료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또 하나의 임금님 아래 통치 받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신라와 고려란 국명(國名)에 대한 중세 이슬람 문헌들의 기록도 서기 1000년 전후에 사용된 남중국 해안 특히 복건성의 민남음(閩南音)이나 또는 황해 연안의 산둥성이나 절강성의 발음에 따라 음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발음은 신라방의 신라인들이 한국어식으로 실라로 발음했기에 남중국해와 황해 연안의 중국인들도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세 이슬람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발음표기는 ‘실라’에 가깝다. 또 고려의 그것은 ‘카올리’임은 중국어의 음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개념의 올바른 이해가 바로 한반도를 언급한 중세 이슬람 문헌을

파악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중국을 아랍어에서 <썬Sin>이라 부른다. 이 어휘는 페르시아어의 <Chin>에서 전래되었다. <이란어>란 개념은 언어학적으로는 페르시아어의 상위개념이다(인도-게르만어 계통에 속하는 이란어에는 페르시아어, 쿠르드어, 카프카즈의 오세트어, 아프간어 또는 일명 푸슈투어, 소그드어, 발루치어 및 파미르어 등이 있다. 그 가운데 페르시아어가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다른 언어는 20세기 이전에는 구어(口語)로만 사용되었고 문어(文語)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또 페르시아어의 ‘ch’음은 아랍어 음에는 없기에 ‘s’ 또는 ‘sh’으로 보통 대체된다). 그 어원은 영어와 독일어의 ‘China’ 또는 프랑스어의 ‘Chine’와 같이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秦, 221~270)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定說)이다. 그러나 중세 이슬람 문헌에는 전혀 색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 문헌에는 고대 이란과 고대 아랍의 이색적인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동일 저서 속에 나란히 앞뒤로 서술하고 있다. 즉 고대 이란의 전승에는 전설상의 제왕(帝王) 페리둔(Feridun, 아랍어 Afridun)의 장남 투르(Tur, al-Tabari에 의하면 Tuj)의 자손으로 보고 있다. 페리둔은 이란인에게는 한국인의 단군왕검과 같은 존재이다. 그 반면에 아랍 또는 이슬람적인 전승에 따르면 중국인의 조상은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자 노아의 아들 야페트(Japhet)의 자손이라고 본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같이 셈족의 전통에 뿌리를 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의 공통된 전제인 “인간은 모두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다.”는 믿음에 충실하다. 이 전통에 따라 최초의 원(原) 중국인 싸얀(Sayan) 혹은 썬(Sin)은 야페트의 후손인데

중동에서 추종자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중국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며 그의 이름에 따라 중국을 ‘썬’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Ya'qubi, 80; Abd al-Barr, 36).

‘썬’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각 문헌의 저자는 출신 지역과 생존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중국의 동부가 육지의 동쪽 끝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나온 세계지도에서도 명백하다(앞의 50쪽 세계지도 참조). 더 나아가서 썬 또는 친(Chin)이란 말은 동방 내지 동쪽 나라라는 뜻으로 또는 아주 먼 나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Ibn Hauqal, 15 ; Marwazi, 41 ; 김정위, 19).

그럼에도 이 용어는 결코 생소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교조 무함마드는 중국이란 말이 추종자들의 귀에 익어 있었기에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에까지 가라.”는 교훈을 남길 정도였다. 이 유훈(遺訓)에 따라 대상(隊商)활동에 익숙한 사막의 사나이들은 육로를 통하여 중국으로 갔으며 또한 해양 아랍계 부족인 나바태아족(Nabateans, 뒤의 128쪽 참조)과 사바족(Sabaeans, 뒤의 130쪽 참조) 전통을 이어받아 항해술에도 뛰어난 아랍 부족들은 범선을 타고 인도와 중국으로 비단을 찾아 나갔기에 그들에겐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다(Hitti, 49~85).

또한 중국의 한(漢, 기원전 206~서기 220)과 당(唐, 618~907)의 두 왕조는 그 정치세력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伊瀨仙太朗, 212쪽 이하), 또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對外) 수출 상품(비단, 도자기류)은 이슬람 이전부터 중동 지역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알려진 것은 차(茶)인데 중국에서 유래되어 중동 지역 일대에 이식(移植)되었다. 따라서 그 이름도 중국어의 ‘차’라는 말에서 그대로 페르시아어로 들어가 ‘Chai’가 되었고 여기서 다시 아랍어로 들어가 ‘Shai’로 불려 오늘날까지 이 두 언어의 어휘로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확한 위치와 개념은 중세 말경인 1350년경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이라는 국호와 ‘차’라는 어휘가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로 들어간 것은 거리상으로 이란인 거주 지역이 아랍인의 그것 보다 중국인에게 더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인의 중국 개념이 아랍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랍인과 이란인은 비록 민족적 전통은 달라도 7세기 중엽 이후 함께 이슬람 공동체(Umma)를 이루었고 또 같은 나라에서 어울려 살다 보니 서로 문화적 교류를 긴밀히 나눌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상당한 수의 이란계통의 학자들은 모어 또는 제1언어인 페르시아어 보다 당시 이슬람세계의 공용어인 아랍어로 수세기 동안 저술해 올 정도였다.

(나) 고대 이란 서사시 속의 중국 상

고대 이란의 민족서사시에는 이란인이 이슬람화되기 이전에 성취한 광영의 역사가 노래되고 있다. 이 서사시는 민족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란의 영광을 이끈 인물과 중요 계기가 된 사건을 노

래한 데서 시작되어 민요풍으로 서서히 형성되었기에 처음부터 문자화되지 않고 먼저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어 온 것에 틀림없다. 그 후에 오랜 기간 구전(口傳)되어 오면서 더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갔다.

이 형성화와 세련화 과정은 대체로 사산 조(224~656) 후반기 200여 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문자화된 것은 이란인이 7세기 중엽에 아랍인에 의해 정복당하고도 약 300년이 지난 후였다. 즉 이란인이 이슬람에 개종한 지 여러 세대가 흐른 후였으며 또 그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히 이슬람화되고 난 뒤였다. 심지어 그 사이에 그들의 문자조차 바뀌었다. 즉, 사산 조의 공용어 파흘라비어(Pahlavi語, 중세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 철자로 쓰인 근대 페르시아어로 이슬람화된 이란인들 스스로가 바꿨다. 따라서 이란이 아랍 무슬림에 정복되어 이슬람화되기 직전에 군림한 사산 조 시대에 활약한 인물의 이름이 대거 언급되어 있다.

비록 무대와 시대는 사산 조 통치 아래지만 이 구전을 문장으로 다듬어 책으로 엮어 낸 편집인과 그 독자는 이슬람화된 후의 이란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오는 중국상(像)도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중국개념에다 이슬람적인 세계관으로 색칠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서사시의 일부는 중세 페르시아어인 파흘라비(Pahlavi)어로도 쓰여 있었다고 하나 현존한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또한 한쪽도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다. 그 대부분은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결국 10세기 초에 이란의 시성(詩聖) 피르다우시(Firdausi, 1025년경 죽음)

의 『샤나메(Shahsname, 王書)』로 매듭지어졌다. 이 책은 바로 이란족의 가장 고전적이며 대표적인 문학서이다.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오늘날도 이 가운데 몇몇 구절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 책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다. 고대 이란인들이 가졌던 중국 개념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결국 중세의 중동 무슬림들의 중국 개념의 애매 모호성을 한층 더 부추긴 것 같이 보인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란 건국 신화 속에 나와 있다. 전설상의 이란의 건국시조는 곧 세계 최초의 왕인데, 그의 이름은 페리둔(Feridun, 창조자 아랍어, Afridun)이다. 그는 임종에 즈음하여 세 아들에게 세계를 나누어 줄 때 중국이란 지명이 거명되기 시작한다. 이 분할이 있는 직후 세 형제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투르키스탄과 중국(Chin)을 물려받은 만형 투르(Tur, al-Tabari에 의하면 Tuj)는 로마와 서방을 상속받은 둘째 살름(Salm)의 선동에 빠져 지구의 중앙부인 이란샤르(Iranshar, 즉 중근동)라는 노른자위를 상속받은 막내 이라즈(Iraj)를 시기하여 살해했다. 즉 투르는 이라즈를 죽여야 한다는 살름의 편지 때문에 중앙부를 상속받지 못한 분풀이로 동생을 죽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란인과 투란(Turan)인(투란은 이란식 용어인데 이란의 북쪽에 놓인 지역, 즉 투르크인들의 거주 지역을 막연하게 가리킨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투란과 투르크는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다)은 서로 적개심에 불타 있었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란의 시성 피르다우시는 투르를 투르크와 중국의 황제(Shahanshah-e Turkan wa Chin)라 불렀으나(Firdausi, 79) 대부분의 중세 무슬림 저자들은

이 상황 설명에서 투르에게 황제란 칭호는 붙이지 않고 단순히 상속지분이 투르크와 중국이라고만 기술했다.

피르다우시는 투르의 후손인 아프라시압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 언급한 황제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밖에도 역사학자 이븐 알 발히(Ibn al-Balkhi)도 아프라시압에 대해서 투란과 친(Chin, 중국)의 대왕(Padshah)이라 불렀다(Firdausi, 405, Ibn al-Balkhi, 13). 페르시아어로 황제(Shahanshah)와 대왕(Padshah)은 거의 동격이나 앞의 것이 더 정통적이며 유일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셈이다.

이란 서사시 속에 나타난 두 민족 간의 적개심은 투르크족의 침입에 의하여 이란족이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의 끈질긴 전쟁 끝에 쫓겨난 데서 생긴 것 같다. 이란족의 조상인 아리안족은 본래 아무 다르야(Amu Darya, Jaihun 또는 Nahr al-Balkh, 영어 Oxus)와 시르 다르야(Syr Darya, 영어 Jaxartes)라는 두 강 사이의 땅 즉 트란스옥시아나(아랍어와 페르시아어 Mawarannahr, 아직도 이 지역의 중심 도시 사마라칸트와 부하라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어의 방언에 속하는 타직어 상용)에서 오래 정착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를 꽃 피웠다.

고대 이란의 전승에 의하면 이미 페리둔의 생존 시에도 투란의 군대가 아무 다르야 강을 넘어 침입해 왔다. 그 이후 이 지역을 두고 두 민족 간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투란 왕(Turanshah) 아프라시압(Afrasiyab)의 통치시기에 이란과 투란의 싸움은 절정에 이르렀다. 아프라시압과 이란 왕 마누쉬르(Manushuhr) 사이의 전쟁이 끝난 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아무 다르야 강

이 그 국경선이 되었다. 그러나 피르다우시에 따르면 이 전쟁의 이란 측 당사자는 마누쉬르가 아니라 그의 아들 카이 꾸바드(Kai Qubad)이며 결말은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Firdausi, 309~312).

또한 피르다우시에 의하면 투란은 투르크인과 중국인의 나라이다. 이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전승에는 아프리카시압의 시기에 처음으로 친(Chin, 중국)의 하칸(Khaqan, 통치자)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독립적인 주권자는 아닌 것 같다. 하칸은 투란 샤 아프리카시압에게는 비록 열등한 지위에 있으나 강력한 동맹군이였다.

하칸은 여러 번 투란 샤의 청을 받아 침략하는 이란군을 막으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하칸은 코끼리를 타고(실제 북중국에는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천자天子에게는 어울리지 않음) 싸워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으나 결국에는 이란군 총사령관 루스탐(Rustam)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Firdausi, 999~1003).

그러나 다른 사학자 -따바리, -사알라비 및 이븐 알 발히는 중국인이 투르크인의 편을 들어 아프리카시압의 지휘 아래 싸웠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알라비는 단지 아프리카시압이 이란 황제 카이 카우스(Kai Kaus)의 통치시기에 장군 루스탐과 황태자 카이 후스라우(Kai Khusrau)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Thaalabi, 2117f) 중국으로 피해 도주했다고 기술했다. 반면에 -따바리와 이븐 알 발히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사알라비에 따르면 카이 후스라우는 아프리카시압을 찾아 중국 천지를 뒤쫓아 돌아다니다가 파그푸르(Fagfur, 파홀라비어, 중세 페르시아어로 하늘의 아들 곧 천자天子)를 만났다. 그때 아프리카시압은 숨어 지

냈다. 파그푸르, 즉 중국 황제는 카이 후스라우에게 식량과 돈을 지원했다. 다른 중국의 왕들도 그의 모범을 따랐으며 또 이란 황제에게 토지세와 조공을 바쳤다(-Thaalabi, 229f).

피르다우시에 따르면 카이 후스라우는 친과 마친(Machin) 지역을 나누어서 파그푸르와 하간들에게 봉토(封土)로 주었다(Firdausi, 1379). 즉 중국 황제인 파그푸르는 이란 황제에게 신하의 신분으로 떨어진 셈이다. -사알라비의 이러한 언급은 아프리카시업을 비록 명백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투르크와 중국의 종주(宗主)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haalabi, 217, Firdausi, 1327, 중국의 파그푸르에게 보낸 아프리카시업의 편지 참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르다우시와 -사알라비는 아프리카시업과 중국 하간들과의 관계를 주종(主從)으로 보는 데 반하여 다른 역사학자들 즉 -디나와리, -따바리 및 이븐 알 발히는 이 관계에 침묵하고 있다.

중국 하간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닌 여러 저자 간의 이러한 견해 차이로 중세 중동 무슬림들에게 비친 중국 개념은 한편으로는 모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 또는 혼란했음을 의미한다. 즉, 이 혼란은 10세기경에 이란의 무슬림에게 중국의 지리적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란의 황제들, 즉 카이 카우스, 카이 후스라우, 루흐라스프(Luhrasp)에게 조공을 바친 나라들의 목록에는 로마 제국, 인도 및 중국의 이름이 들어 있으나 투란이나 투르크인들의 나라들은 빠져 있다(-Thaalabi, 165, Ibn al-Balkhi, 48). 앞의 세 나라 즉 당시에 가

장 잘 알려진 국가 또는 강대국을 조공국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란이 다른 어떤 나라 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투란이 빠진 사실은 비록 열등한 적수이긴 하지만 이란 황제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그의 독립된 지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란 황제 샤푸르 1세(Shahpur I, 241~271)의 치하에 마니(Mani, 216~277)가 나타나 조로아스터교와 그리스도교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마니교(Manism)를 창시했다. 이 종교는 주로 만민(萬民)평등 사상을 고취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가 일어났다. 그 때문에 샤푸르 1세의 아들 바흐람 1세의 통치 시기(272~277)에 마니는 박해를 받았다. 대부분의 중세 이슬람 문헌에 따르면 그때 마니는 인도 또는 중국 또는 티베트로 피해 갔다고 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의 연구에 의하면 마니는 바빌론에서 태어났으며 박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부 이란, 인도 및 투르키스탄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했다고 하나 중국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Wesendonk, 18~19). 하지만 여러 무슬림 저자들은 마니가 중국에 갔다고 언급하고 있다.

바흐람 구르(Bahram Gur)의 통치 시기(420~438)에 이란은 중국의 하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Firdausi, 2194). 반면에 -디나와리, -야꾸비, -따바리에 따르면 이 공격자는 중국의 하간이 아니라 투르크족의 하간 이었고(-Dinawari, 57~61, Yaqubi I, 163) -마끄디시에 따르면 하자르(Khazar)족의 하간이었다(Maqqdisi III, 167).

놀데케(Noeldeke, Th. 독일의 저명한 중동학자)에 따르면 투르크족은 사산조의 황제 누쉬르완(Nushirwan, 아랍어 Anushirwan 531~579) 이후 이란족에게는 위협스러운 이웃이 되었기에 이 침략자는 박트리아와 속디아나에서 쳐들어온 에프탈족(Hephthalites, Haital, 즉, 백훈족 한 자로는 읍탈 愍怛)으로 보고 있다(Noeldeke, 53, 99). 이것은 침략부대가 트란스옥시아나를 관통해 왔다는 뜻이다. 누쉬르완의 통치시대(531~579)를 기술하는 데도 10세기경의 무슬림 저자들은 투르크족과 중국인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대부분의 무슬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누쉬르완은 투르크족의 하칸과 싸웠다(-Dinawari, 69, -Tabari I, 199)고 기술되어 있으나 피르다우시만은 중국의 하칸과 전투를 벌였다고 언급하고 있다(Firdausi, 2416). 즉, 피르다우시는 -따바리가 <투르크 나라들>이란 개념을 중국이란 어휘로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누쉬르완이 투르크 하칸의 딸과 결혼했다는 -따바리의 구절을 피르다우시는 중국 하칸의 딸과 결혼했다고 변형시켜 놓은 것이다(Firdausi, 2425~28).

더 나아가서 누쉬르완은 결혼식을 마친 후 투르크 하칸의 편을 들어 에프탈족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Tabari/Noeldeke, 167). 반면에 피르다우시는 이 이란 황제가 중국 하칸의 편을 들어 전쟁에 참여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청혼을 요청한 편지에 혼인이 이루어지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서 그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Firdausi, 2425~2428). 누쉬르완과 서 투르크(돌궐)의 하칸 이즈테미(Iztemi, 한자명 室点蜜 576년경

죽음)가 557, 561년에 협력하여 에프탈족 국가를 멸망시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Christensen, 373, 중앙아시아사전 돌궐 突厥 참조). 누쉬르완의 궁전에 출입한 외국 사절단의 목록에는 투르크족과 중국이 별도로 나란히 언급되어 있다(Tabari I, 899).

이븐 알 발히에 의하면 중국 왕은 누쉬르완을 평화롭게 맞이하였으며 또 심지어 상당한 액수의 돈도 제공했다. 그 보상으로 이란 황제는 투르크 하간인 까깜(Qaqam)과의 전쟁을 치러 주었다(Ibn al-Balkhi, 94). -마수우디에 따르면 중국 황제는 누쉬르완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나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al-Masudi, Muruj 620). 여기서 중국과 이란은 당시에 이미 직접 접촉했다고 추정되나 동맹을 맺어 공동으로 투르크족과 전쟁을 치렀다는 전거(典據)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바흐람 추빈(Bahram Chubin)은 후스로우 파르위즈(Khusrau Parwiz, 재위 590~628)와의 사산 조의 왕위 계승 투쟁에 실패한 후 투르크 하간에게 망명했다는 이야기는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Dinawari, 102, -Yaqubi, Tarikh I, 169f, Tabari/Noeldeke, 287, Ibn al-Balhi, 100ff). -마끄디시는 이 사실을 먼 곳으로 쫓겨 갔다고 언급했다(-Maqdisi IV, 148). 반면에 피르다우시에 따르면 그가 중국의 하간에게 망명했다고 기술하면서 하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그의 형제 투부르그(Tuvurg)는 바흐람 추빈을 죽이게 한 후 그 여동생과 그 살해자 깔룬(Qalun)을 괴롭혔다고 한다(Firdausi, 2822).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투부르그와 깔룬이란 이름에서 추정하건데 한인(漢人)계 중국인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위의 언급에서 보아도 바흐람 추빈이 투르크 하칸에게 망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Christensen, 445). 피르다우시의 『샤나메』란 대서사시에서는 중국의 하칸이란 인물은 사산 조 시대에는 투르크인과 중국인의 대표자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 이전에는 투란샤(Turanshah 즉, 투란 왕)에 가려 조역(助役)에 지나지 않았다.

피르다우시는 가즈나국의 술탄 마흐무드(Mahmud, 998~1030)에게 자신의 『샤나메』를 봉정했는데 이 저서에서 술탄을 놀랍게도 중국, 힌두스탄(인도) 및 이란의 통치자로 지칭했다(Firdausi, 1275). 술탄을 힌두스탄과 이란의 통치자로 지칭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될 수 있다. 즉 그는 인도와 이란의 영역을 상당한 부분 정복했고 또 영유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를 중국의 통치자로 언급할 근거는 그가 압바시아 조의 트란스옥시아나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EI, Mahmud of Ghazna 참조). 더구나 그는 바그다드의 압바시아 조 할리파 -까디르(al-Qadir, 991~1031)와의 협약을 통하여 동방에서의 최고 통치자로 자처하고 있었다(Barthold, 285f).

피르다우시가 술탄 마흐무드를 중국의 통치자로 지칭한 것은 결코 잘못된 언급이 아닌 것 같다. 즉 10세기경에 무슬림들이 지닌 중국 개념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는 트란스옥시아나도 중국이었다. 이 시대 무슬림 학자들 특히 이란계 학자들의 다소 의아스러운 언급은 아마도 이러한 추정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이슬람에 개종하기 이전의 이란인들이 지닌 중국개념의 혼란스러움은 고스란히 그대로 이슬람 개종 이후에도 그대로 이란계 학자들에게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쳤다.

(다) 중세 중동 무슬림의 중국개념

(a) 중국의 위치

중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당시의 지리 지식이 너무 한정되어 미흡하였고 또 중앙아시아의 세력관계가 항상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지식인들의 중국 개념도 불확실하고 막연했을 것이다. 더구나 고대 이란 서사시의 영향을 받은 이란계 학자들에게는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일부로 보는 것이 당연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의 동부 지역이 인간 거주 지역의 동쪽 끝이라는 데 일치했다(Ibn Rusta, 96: -Masudi, Tanbih, 26: Hudud, 83).

중세 무슬림 학자들이 기술한 중국의 위치 추정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인의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를 지대(iqlim)로 나누는 것이고 둘째는 고대 이란의 지역권(kishwar)에 따라 대륙을 나눈 것이다. 셋째는 단순히 더 잘 알려진 나라나 지역 이름 혹은 가까운 나라나 지역 이름을 사용하여 중국의 위치를 추정한 것이다.

그리스의 지대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거주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순서대로 일곱 지대로 나누었는데 중국은 제1지대, 제2지대 및 제3지대에 걸쳐 있는 큰 나라이며 이것은 오늘날의 남중국에 해당된다(EI China 참조). 반면에 고대 이란의 지역권 개념에 의하면 이라크를 지구의 중심권 즉 제4지역권으로 삼고 그 주변을 6개의 지역권으로 나눈 것인데, 이 경우 중국은 제7지역권에 속하며 제7지역권은 중심권의 동북부에 있다(-Yaqubi I, 85).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제1지대(juz)의 제1구역(suq), 즉 극동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iqlim(이클림) 대신 juz(주즈)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육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누고 있다(Zuhri 11, 24).

세 번째 견해에 따라 중국의 위치를 추정한 학자로는 -야꾸비, 이븐 하우칼 및 -마르와지 등이 있는데 그들의 추정은 자상하여 현대인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또한 이 저자들은 대부분이 이라크계 출신이어서 위의 두 번째 견해에 따른 중국은 제7지역권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위치를 추정하고 있다.

-야꾸비는 제7지역권은 중국이라고 말하고 그 서쪽 경계는 곱(Gog,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Yajuj)과 마곱(Magog,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Majuj)이다. 중국의 동쪽은 큰 바다이며 인도의 카슈미르와 후라 산과의 경계는 아무 다르야 강(또는 발흐Balkh 강)이라 기술했다(Yaqubi I 85). -야꾸비의 세계상(像)은 이라크를 중심권으로 보는 이란의 전통적 케샤와르 체계인 것이다(Yaqubi I, 84). 이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트란스옥시아나에서 중국해(주위의 대양, 앞의 45쪽 제3장 참조)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는 셈이다. 이 견해는 또한 백과사전적 학자 -비루니(al-Biruni)의 세계상이기도 하다.

-비루니의 일곱 지역권은 모두가 그 각각을 대표하는 나라 이름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그래서 제7지역권도 중국이라 부르고 그 속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티베트, 호탄, 트란스옥시아나, 발흐 및 투르크인의 거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야꾸비가 소개한 일곱 개의 지역 추정과 동일하다(앞의 51쪽 고대이란인의 세계상 참조).

이븐 하우칼과 -마르와지도 중국의 위치를 추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 지역(aradi)은 주위의 바다(al-bahr al-muhit), 투구즈구즈(Tuguzguz) 지역, 티베트 및 페르시아 만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Ibn Hauqal, 15). 이미 소개한 -야꾸비의 기록과 아래의 후두드 알 알람(Hudud al-alam, 세계의 지역)에서 나온 인용문을 고려해 보면 <주위의 바다>는 동쪽의 바다임이 분명하다.

투구즈구즈는 터키어로 새로운 오구즈(Oghuz) 부족이란 뜻인데 오구즈는 투르크족에 속한다. 이 명칭은 동쪽에 세워진 후(後)위구르국이 분명하다(키르기즈인에 의해 위구르 왕국이 840년에 망하자 일부 위구르인은 동쪽의 감숙성 지방으로 이주하여 다시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그곳에서 조차 1020년경에 탕구트(Tangut)인에 의해 쫓겨났다. Minorsky 역, Hudud 264 참조). 그들은 황색 위구르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일부 위구르인은 천산 산맥 동쪽에 제2의 왕국을 세워 몽골 제국의 침입 시까지 독립을 지키고 있었다. 이 왕국이 이슬람 문헌에서 투구즈구즈라 불리운다(Minorsky역, Hudud 263). 반면에 영국학자 보스워스(Bosworth)에 의하면 투구즈구즈는 서남 투르크인에 속하는 오구즈(Oghuz)인과 킵차크(Qipchaq)인이라고 주장한다(Bosworth 214).

작자 미상의 『후두드 알 알람』은 중국의 위치를 훨씬 더 자상하게 기술해 주고 있다. “중국(Chinistan)의 동쪽에 동부대양(東部大洋, Uqyanus-e mashriqi, 즉, 주위의 대양)이 있으며 그 남쪽에는 와왁(Waq-Waq, 현 수마트라 Minorsky역, Hudud 228참조), 시란딕(Sirandib, 즉, 스리랑카) 및 대양(al-bahr al-azam, 인도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서쪽에는 인도(Hindustan)와 티베트가 있고 그 북쪽에는 투구즈구즈

와 키르키즈(Khirkhiz)라는 나라들이 있다.”(Minorsky역, Hudud 179, 83).

이 인용문에서는 페르시아 만은 전연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기서는 트란스옥시아나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명백하게 중국에 소속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비루니의 제7지역권을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상위 개념의 중국도 도외시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저자들은 대체로 중국(Chin, Sin 또는 Chinistan)이란 어휘로 제1지대에서 제3지대까지 또는 제7지역권에 있다고 언급한다. 여기에는 -디마쉬끼(1327 죽음)는 외중국(外中國 al-Sin al-Kharj)과 내중국(內中國, al-Sin al-Dakhi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덧붙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외중국 위치를 인용한다.

“그들의 나라(외중국)는 동쪽으로는 동부 주위 바다(al-bahr al-muhit al-mashriqi), 남쪽으로는 발하라(Balhara) 산맥(EI.Balhara 참조)과 티브라(Tibra)국(황하유역으로 추정),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자르끼야(Zarqiya), 북쪽으로는 키르키즈와 동부 히타이(Khita, 즉 Qara Khitay)와 경계를 나누고 있다(al-Dimashqi, 102, 180).

키르키즈인의 원래 거주지는 예니세이 강의 상류이어서 그곳에서 유목국가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917년까지 존속했다. 그 때문에 키르키즈에 대한 무슬림들의 기록은 이 옛 위치에 대한 것이지 결코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은 키르키즈스탄에 대한 것은 아니다(EI. Kirgiz).

티브라와 자르끼야는 그 위치를 추정하기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히타이(Khita)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용된 점을 미루어 보면 위의 인용문은 중앙아시아에 까라 히타이(Qara Khitay, 동양사에서는

西遼 또는 黑遼)가 1128년 건국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위치에 대한 추정도 새로운 상황에서 나왔음을 비추고 있다. 즉 키르키즈스탄과 그 이웃인 동부 히타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후두드 알 알람』의 위치 기술과 -디마쉬끼의 외중국의 위치에 대한 언급을 서로 비교하면 그 시대 상황의 변화가 뚜렷하다. 전자의 동부 대양(Uqiyanus-e Mashriqi)은 후자의 동부 주위 바다와 일치하는 것이다(Ibn Hauqal, 8 참조). 또한 서쪽과 북쪽에 관한 언급에는 거의 동일한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쪽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후두드 알 알람』의 중국은 -디마쉬끼의 외중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중국의 위치 추정에 관한 위의 세 자료에는 투구즈구즈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저자들은 중국과 투구즈구즈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꾸비와 -비루니는 제7지역권을 상위 개념의 중국으로 보았지만 반면에 -디마쉬끼는 그것을 외중국과 내중국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자료는 중국의 위치 추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이지만 또한 매우 엉뚱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도시인 가즈나(Gazna)의 남쪽에 있다는 것 등이다 (Zuhri 23).

(b) 중세 이슬람 문헌 속의 중국상

지리학 서적이 추정치 못한 중국의 위치는 역사 서적에서도 거

의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323)에 관한 전승에도 환상적 신화적 측면이 엿보인다. 12세기 전후의 무슬림 학자들에 따르면 알렉산더(Iskaandar 또는 Iskandar-e Rumi 또는 Dhu al-Qarnain, 두 뿔의 소지자)는 중국의 통치자로부터 아무런 전투도 없이 항복을 받아 내었다고 한다(-Dinawari, 38f).

사실 알렉산더는 단지 시르 다르야 강 이남의 영역만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복의 영예를 그에게 돌리는 신화 같은 전설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알렉산더 생존 시에는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중국 자체에서도 그 개념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EI, Iskandar 참조). 하지만 중국을 언급한 이슬람 문헌의 대부분은 10세기 전후에 나온 것이다. 그때는 이미 중국에 대한 개념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는 상당히 확립되어 있었고, 중근동에서도 그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큰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 알렉산더 전설의 근거는 10세기경의 무슬림들이 지닌 세계관에 있는 것 같다. 이 세계관은 이슬람 이전 이란인들의 것을 계승한 것인데 그것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세계 통치자이기에 중국도 마땅히 종속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이 시대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정복한 트란스옥시아나는 중국의 영향권에 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EI, Iskandar).

심지어 알렉산더는 실제로 인도의 일부 즉 편자브과 신드 지역만을 정복했지만 그는 인도의 정복자로 일부 이슬람 문헌에는 묘사되어 있다(-Dinawari 38, -Tabari I, 701). 이것과 유사하게 알렉산

더의 트란스옥시아나 진격을 중국의 정복으로 본 것이다.

대체로 중세 중동 이슬람 문헌 가운데는 중앙아시아 즉 트란스 옥시아나 자체를 중국으로 전제한 부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 저자는 이란의 시성 피르다우시와 역사가자 발아미(Balami, 974 죽음)이다. 후자는 사만 조의 통치자 압드 알 말리크 1세(Abd al-Malik I b. Nuh 343/954~350/961)의 재상이며 또 -파바리의 『연대기』를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역사가자이다. 이들이 그렇게 보게 된 배경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까라한 조(Qara Khan朝, 까라한 조란 이름은 소위 유럽의 Orientalists, 즉 동양학자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이 왕조의 통치자 칭호에 까라qara ‘검은’이라는 어휘가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는 840년에 중앙아시아의 트란스옥시아나에 터전을 잡았으며 10세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비이슬람계 투르크인이 세운 왕조로서는 처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 왕조는 탐가즈(Tafghach, Tanghace, Tonghach 등)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이름은 투르크어로 바로 중국을 뜻했다(Pritzak, 20). 특히 이 왕조의 사투 부그라 한(Satuq Bughra Khan 955 죽음)은 최초로 이슬람에 개종한 투르크 계 통치자인데다 탐가즈란 국명을 지니고 있었기에 여러 이슬람 사료에는 중국으로 이해된 것 같다(Pritzak, 13, Kashghari I, 378).

중세 중동 무슬림에게 그 보다 더 큰 혼란을 준 것은 까라한 조의 융성기에 집권한 유습 까디르 한(Yusuf Qadir Khan, 1026~1032)은 주화(鑄貨)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아랍어로 각인된 그의 칭호는 <동방과 중국의 왕>(Malik al-mashriq wa al-Sin)이었다. 여기서 중국 왕은 탐가즈와 탐가즈 한을 아랍어로 직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뒤를 따라 부리테긴 이브라힘(Buritegin Ibrahim, 1052~1068)도

이 칭호를 사용했으며 그 아들 나쓰르 1세(Nasr I, 1068~1080)도 역시 <동방과 중국의 술탄>이란 칭호를 활용했다. 탐가즈 한이란 칭호는 9세기경에 세워진 위구르족의 오르혼(Orkhon) 비명에도 들어 있는데 투르크족이 아직 이슬람 개종이전의 것이므로 중국의 천자(天子)만을 지칭한 것 같다. 까라한 조는 오늘날의 중국 본토는 고사하고 심지어 동 투르키스탄의 일부도 영유하지 못했으며 오직 11세기 전반기에는 트란속시아나에만 터전을 잡고 있었는데도 이 칭호를 즐겨 사용했다(Barthold 304).

또한 만주 지방의 요(遼, 916~1125)가 금(金)나라에 의해 망하자 왕족 야율대석(耶律大石, 1087~1143)은 오늘날의 외몽골로 탈출했다가 무리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다. 1132년 위구르족의 지원을 받아 까라한 조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우니 곧 까라 히타이(흑요 黑遼 또는 서요 西遼, 1132~1211)이다. 이 나라는 트란속시아나에 자리 잡고 있다가 13세기 몽골군에 정복당할 때까지 존속했는데 이것도 이슬람 사료에서 이 지역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데 기여한 것 같다.

이 왕조는 중국어를 궁정 용어로 도입했으며 중국식 제도를 철저하게 모방했다. 또한 중국 문화의 서전(西傳)에 기여했으므로 중국의 연대기도 중국계 왕조로 보고 있다(EI, Kara Khitay 참조). 그러나 이 왕조는 오늘날의 중국 영역을 전혀 영유하지 못했다. 더구나 히타이(Khitai, 契丹)는 고려사에서는 거란 또는 글안으로도 발음한다. 당나라 말기의 혼란한 틈을 타서 족장(族長)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872~925)가 나라를 세워 처음에는 거란, 나중에는 중국의 전

통에 따라 요(遼)라 국호를 바꾸었다.

전성기의 요는 한때 만주, 화북,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다. 즉 요의 만주와 일부 화북 지역에 대한 210년간에 걸친 통치와 까라히타이의 중앙아시아 일부에 대한 80년간의 통치를 통하여 히타이란 용어는 중동언어는 물론 서양언어(러시아어)에까지 중국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영어의 cathay란 단어도 히타이에서 나온 것이다.

그 외에도 트란스옥시아나를 중국의 일부로 또는 중국의 신강성을 중국 자체 또는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세 무슬림학자도 있다. 또한 장안을 비롯한 항구도시 광둥(廣東), 천주(泉州) 등 중국본토를 중국이라 부른 학자도 있다. 더 나아가 투르크인과 중국인 거주 지역 모두를 중국이라 지칭한 학자도 있다. 여기서는 이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서적을 모두 망라하여 논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중국을 전체적으로 합당하게 서술한 무슬림 학자 2명만의 견해를 소개한다. 그래도 서기 1000년 전후에 살았던 무슬림들이 지녔던 중국관의 윤곽을 대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 더 나아가 그 시대적 한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먼저 카슈가르에서 투르크계 까라한 조의 왕족으로 태어나 투르크어-아랍어 사전을 11세기에 세계 최초로 편찬한 -카슈가리(Mahmud al-Kashghari)의 중국관을 보겠다. 그의 생사(生死)연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는 11세기 후반에 바그다드에서도 활동하였다. 그의 저서 『디완(Diwan, 사전)』의 탐가즈(Tabghaj, 터키어

로 중국)라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썸(Sin, 즉 중국)도 실제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쪽의 가장 윗부분은 탐가즈, 중간 부분은 히타이(Khitay), 가장 밑부분(al-Suffa)은 바르한(Barkhan)이라 부르는데 바로 이 맨 나중 지역에 카슈가르가 있다. 탐가즈는 현재 마썸(Masin)으로, ‘썸’은 히타이로 알려져 있다”(Kashgari I 378).

위 인용문에서 분명한 점은 좁은 의미에서의 ‘썸’은 ‘마썸’보다 이슬람 영역에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카슈가르와 그 주변은 투르크인 거주 지역이지만 이곳 출신의 -카슈가리는 그 지역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즉 -카슈가리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하다

12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지리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자 중국, 투르크인 거주 지역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 거주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무슬림 학자들의 중국 개념도 변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학자가 -디마쉬기이다. 물론 그도 선학(先學)들의 견해에 따라 원 중국인의 중국 이주를 설명했다. 즉, 노아의 아들 야페트의 후손이 배를 타고 중국 땅에 상륙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는 세월이 흘러 중국은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내중국(內中國, Sin dakhil)이고, 다른 하나는 외중국(外中國, Sin Kharij), 즉 썸 알 썸(Sin al-Sin, 중국인의 중국)이다(-Dimashqi, 180).

여기서 ‘썸 알 썸’은 중국인의 중국과 일치함이 명백하다. 다른 곳에서 훔단 강(Khumdan江, 황하)은 ‘썸 알 썸’의 해안으로 흘러간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또 훔단 왕국은

중국에 속한다고도 언급했다(-Dimashqi, 130, 168). ‘썬 알 썬’ 즉 외중국은 -디마쉬끼에 의하면 이슬람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반면에 내중국이라는 용어에서는 이슬람 영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을 의미했다. 하지만 -디마쉬끼는 내중국의 위치나 그 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디마쉬끼의 내중국과 외중국을 합쳐서 보면 -야꾸비의 중국 개념과 -비루니의 제7지역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넓은 중국은 중국인의 중국과 비중국인의 중국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구분에서도 한반도는 외중국 즉 중국인의 중국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료에도 ‘썬 알 썬’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광주(廣州)와 일치된다(EI, Sin-i Kalan, 이븐 바투타 II, 241참조).

제5장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 기사

(가) 개요

중세 중동 무슬림의 한반도에 관한 지식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사료(『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 등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중동 이슬람 지역에 대한 언급에 비하면 그 양이 적은 편은 아니다. 9~10세기의 몇몇 중동 무슬림 사학자나 지리학자들은 그 래도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나 그 상황 서술에서 독창성이 있으나, 후대의 학자들은 대체로 전대(前代)의 문헌들을 모방하거나 이슬람 역사상의 사화(史話)를 신라와 결부시켜 첨가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또한 한반도에 대해 언급한 학자도 자신이 지은 책 속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 하는 것은 주석을 붙이지 않는 그 시대의 저술 관행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를 언급한 중근동 문헌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크게 양분(兩分)하여 출간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가능한 한 각 학자들의

약력과 저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또 부록에다 필자가 입수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원문을 넣어 앞으로 이 분야에 연구 또는 참조할 학도들의 자료수집에 기울이는 노력을 경감토록 시도했다.

또한 한반도의 이름은 대체로 ‘al-Shila’ 또는 ‘al-Sila’라 표기되어 있다. ‘al’은 관사이므로 ‘Sila’는 신라의 음역임이 명백하다. 신라(新羅)의 현대 중국어식 발음은 ‘sinlo’ 또는 ‘sinla’인데 중세이슬람 문헌에서 sila 또는 shila 로 표기한 것은 곧 당시 무슬림들이 직접 신라인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에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비록 여러 번에 걸쳐 중세 중동 무슬림이 한반도를 다녀갔고 또 중국 해안의 신라방이나 신라촌의 신라사람들과 접촉을 자주 했다손 치더라도 그 수는 그들이 접촉한 중국인들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당송(唐宋)시대에 중국 동해안에 거주한 중국인들의 신라(新羅)에 대한 발음은 현대 중국어 표준발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간수, 155쪽과 비교).

더구나 고려 초에 대식국(大食國) 상인들이 매번 100여 명이 세 번에 걸쳐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碧瀾渡)에 도착한 후, 수도 개경(開京)에 들어와 방물을 조정에 바쳤다고 『고려사』에 기재되어 있으나 중세 아랍어 문헌에는 고려라는 한국어식 발음 대신 중국어식의 카울리라는 표기만 있는 것을 볼 때 신라를 비교적 원 발음에 적절하게 표기한 것은 당송시대의 황해 연안의 중국어 발음도 ‘sila’ 또는 ‘shila’였을 것으로 짐작 된다.

라쉬드 알 딘 파드랄라와 알리 아크바르 히타이는 우리나라를

고려(高麗, Kaoli)라 지칭했으나 신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에 아불 피다는 그의 저서 『나라들의 안내목록』 속에 신라와 고려를 동시에 언급했으나 이 둘이 같은 나라라는 사실을 모른 것 같다. 이란계 학자들의 이름도 아랍어 식으로 읽어 학자들의 인명 표기법에 통일성을 도모했다.

(나) 아랍어 문헌

①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hbih, ?~912)

이란계인 그는 티그리스 강변의 사마라(Samarra)라는 도시에서 우편 관리 생활을 하였다. 당시의 우편 관리는 도로 사정에 밝아서 정보 수집과 국세 징수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846년에 처음으로, 885년에 두 번째로 간행한 그의 저서인 『도로들과 왕국들의 책(Kitab al-masalik walmamaik)』 속에 신라에 관해 중복된 두 개 구절의 보도를 싣고 있다. 이 지리서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자신도 프톨레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간수(Qansu, 또는 Qantu)의 맞은편 중국의 맨 끝에 산이 많고 왕(국)들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국이다. 그곳에는 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신라) 넘어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Ibn Khurdadhbih, 70)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다. 이슬람교도들이 이 나라에 상륙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영구히 정착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위의 책, 170)

금이 많다는 것은 곧 신라라는 국호 및 수도 명 금성(金城)이 모두 사발, 즉 금국(金國)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 같다. 또한 신라의 상류층은 알타이족에 속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문무왕 비가 발견된 이후 사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혀지고 있다. 알타이란 어휘는 알타이어 계통에서는 금을 뜻한다. 그 때문에 아마도 금성이라는 수도 이름도 신라인이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화(漢化)과정에서 알타이어에서 의역(意譯)한 것 같다. 하지만 신라의 옛 영역에서 좋은 금광이 발견되었거나 또는 폐광(廢鑛)되었다는 소식 또는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라 땅에 들어와 정착한 무슬림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사는 후대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Qansu’의 다른 철자법은 Qantu이다. 이 지명의 정확한 위치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중국 해안, 특히 현 광주(廣州 또는 廣東)로부터 상해 사이의 어느 항구 도시인 듯하다. 일부 학자는 간수 또는 간투를 중국의 강도현(江都縣)에 속한 당·송대의 국제항인 양주(楊州)로 보고 있으며, 9세기경에는 우리나라의 흑산 열도와 양주사이에 항해가 빈번했다고 한다. 더구나 강도현의 넓이가 신라에 버금간다고 보고 우편 관리 이븐 후르다드비는 이 현의 수도 양주를 강도로 기술한 것 같다. 이것은 또한 중근동 지역의 현을 명명(命名)하는 관례인 현의 이름과 현의 수도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는 전

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수(간투)는 강도의 음역으로 보인다(간수, 178, 桑原, 15~16).

간수 교수는 그의 역작 『신라-서역 교류사』에서 ‘간수’를 현 경상남도 진주시와 진양군 일원이 신라시대에는 강주(康州)로 불린데서 그 음역이라 보고 있다. 음역이 비슷하다는 근거 외에도 당시 강주의 인지도가 높았고, 또 그 지형은 산이 많고 풍광이 아름답다는 묘사는 강주에 합당하며 더구나 왕들이 많다는 서술에서 신라에는 56명이나 되는 많은 왕이 재위했다는 풀이로 강주를 간수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의 아쉬운 점은 첫째, 이븐 후르다드비의 저서 『도로들과 왕국들의 책』의 초판은 846년, 재판도 885년에 출간되었는데 후백제의 견훤(甄萱)은 892년에 나라를 세웠다. 즉 견훤이 후당(後唐)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강주항을 활용하기 이전에 이미 위의 저서는 완성된 것이다. 892년 이전에 이 항구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둘째, 중동 무슬림 상인들이 신라 땅인 강주에 들어와서 ‘맞은 편’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강주와 수도 경주 사이에 강이나 바다도 없는데 맞은 편(iza)이라는 어휘가 어울릴 것 같지가 않다. 또 강주는 신라시대에 울산의 개운포(開雲浦)나 장보고의 청해진 또는 황해안의 당성진(唐城鎭)과 영암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중동 무슬림 상인들이 굳이 강주를 찾아 왔을까 하는 의아심도 생긴다.

② 무역상 솔레이만(Sulayman al-Tajir)

그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의 저서가 여행기체로 쓰여 있어서 그가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와 중국을 여러 번 항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풍물기 『중국과 인도 소식(Akhbar al-Sin wal-Hind)』은 851년에 집필이 끝났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아부 자이드 알 시라피(Abu Zaid al-Sirafi)가 여기에다 자기의 글을 부록으로 첨가하여 931년 세상에 내놓았을 때 비로소 널리 알려졌다.

“(중국의)해안에 신라라는 섬들이 있다. 그곳의 주민들은 피부가 희다. 그들은 중국 황제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흰 매를 가지고 있다 한다.”(Sulayman, 73)

저자는 어렵풋이나마 신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주종(主從)으로 인식했다. 아마도 신라의 대당(對唐)의존도가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컸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우리 토속 신앙 내지 동아시아인들의 숭배대상인 하늘을 감지하였던 것 같다. 흰 매는 아랍인들이 사냥하러 갈 때 데리고 다닌다. 특히 잘 길들여진 매는 사냥꾼의 어깨 위에 앉아 있으면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옛날부터 한반도에는 방웅(放鷹), 즉 매를 날려서 꿩이나 토끼 따위를 잡는 수렵활동이 성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응방(鷹坊)이라는 관청을 설치할 정도였다 하니 한겨레의 매를 활용한 사

냥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그 때문에 송골매, 보라매, 수진매 등 여러 이름이 우리말에는 있다. 또한 황해도 해안에 흰 매가 흔히 보인다고 한다. 매 특히 흰매는 꿩 사냥에 활용하기에 “꿩 잡는 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이다. 아랍인이 직접 와서 보지 않고는 흰매를 언급하기 힘들 것이다(한국문화대백과, 매 사냥: 간수, 201~202). 하지만 저자의 동료, 즉 뱃사람들 가운데는 신라에 온 일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흰매에 관한 얘기는 소문으로 들은 것이 분명하다. 또, 여기서 신라를 섬으로 본 것은 유의할 만하다. 이것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③ 이븐 루스타(Ibn Rustah, ?~912)

그는 이란인의 후손으로, 903년에 현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사전 류의 저서 『값진 귀중품 목록(Kitab a laq al-nafisa)』 속에 신라에 관해 간단히 언급했다.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는 금이 매우 풍부하다. 그곳에 도착한 무슬림들은 정착해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Ibn Rusta, 96)

이 언급은 분명히 이븐 후르다드비에게서 따온 것 같다. 하지만 신라땅에 들어온 무슬림은 정착하여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근거로 삼아서 - 마수우디를 비롯한 후대의 무슬림 저자들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근거를 생각해 내거나 또는 제시하여서 결국 신라를 무릉도원으로 이상화시킨 것 같다.

④ - 마수우디(-Mas'udi, ?~957)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천생의 방랑아인 그는 중앙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중국 해역 등 거의 아시아 전역 및 아프리카의 마다카스카르와 잔지바르(Zanzibar) 등을 직접 역방(歷訪)하고 수집한 자료는 방대하다. 그는 생애의 후반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주로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보냈다. 그는 장장 30권에 달하는 대표작 세계 역사서인 『황금 초원과 보석광(Muruj al-dhahab wa-ma'adin al-jauhar)』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하여 그의 당대인 947년에 끝나는 일반 역사서이지만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며 비판적이다.

또 지리서인 『학습과 개관(al-tanbih wa'l-ishraf)』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데 그가 고찰한 분야를 다시 개관하고 또 이미 출간한 그의 저서에서 못다 한 소재를 보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그는 『황금 초원』에서 두 번 또 『학습과 개관』에서 두 번 도합 네 번이나 신라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수우디는 <아랍의 헤로도토스>란 별명을 가질 정도이지만 역사학자로서 사관의 통일성을 그의 저서에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새로운 사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사태를 편견 없이 기록하려는 성향은 놀랍다.

(a) “중국 건너편의 바다 쪽에 신라와 그것에 예속한 도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왕국이나 나라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라크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그곳으로 간 외국인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농토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떠나려

고 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중국인들과 관계가 좋아서 중국 황제에게 계속 선물을 보내고 있다. 그곳의 주민들은 그곳에 정착한 아무르('Amur)의 후손들이라고 한다.”(Mas 'udi, Muruj I, 346, Ferrand, 101)

(b)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해(bahr al-Sin)는 신라국에서 끝이 난다.”(Mas 'udi, Muruj III, 6, Ferrand, 108)

(c) “육지 가운데 거주 지역의 동쪽 끝은 중국과 신라국의 극단이다. 그곳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곱(Gog)과 마곱(Magog)의 장성이 끝이 난다.”(Mas'udi, Tanbih, 26)

(d) “일곱 번째 인종군은 중국과 신라 및 그 주변의 거주민들인데, 그들은 노아(Noah)의 아들인 야페트(Japhet)의 아들 아무르(Amur)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한 임금을 섬기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Mas'udi, Tanbih, 83)

(a)와 (d) 에서 나오는 인명인 아무르는 구약 성서 창세기 10장 2절에 언급된 노아의 아들 야페트의 장자 고머(Gomer)로 추정된다. -따바리의 저서 『예언자들과 왕들의 연대기』 속에는 야페트의 아들 가운데 아무르라는 이름은 없고 그 대신 주마르(Jumar)가 나오는 점으로 보아 철자만 다르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세 중동 무슬림들은 중국의 만리장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 장성의 건립자가 진시황(기원전 221~209)이 아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323)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하여 많은 도시를

건립한 사실을 중세 이슬람 문헌에서는 중앙아시아를 중국으로 착각하여 만리장성의 대역사도 중동에 잘 알려진 인물인 이 대왕의 공으로 돌린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중세 이슬람 문헌에는 심지어 당의 서울 장안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고 기술되어 있다.

- 마수우디는 위의 (d)에서 세계의 인종을 7군으로 나누고, 첫째 현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방의 페르시아인, 둘째, 시리아 이라크 및 아라비아 반도 등지에 거주하는 셈족 계통인 칼데아(Chaldea)인, 즉 아랍인, 셋째, 슬라브족과 프랑크족(현 서구인을 뜻함) 등의 유럽 인종을 통틀어 그리스인, 넷째,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 등지에 살고 있는 함족을 통틀어 리비아(Libya)인, 다섯째, 몽골, 중앙아시아 등지에 사는 투르크인, 여섯째, 인도인, 일곱째, 중국인으로 구분했다.

위의 (c)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은 구약 성서의 창세기 10장 2절 등과 쿠란 18장 94~98절과 21장 96절을 비롯하여 중세 중동 무슬림들이 저술한 여러 분야의 서적에서 흔히 등장하는 용어인데 세계의 북동부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야만족이다. - 마수우디도 만리장성의 북쪽에 이 야만족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의 침입을 막고자 이 장성을 세웠다고 본 것이다. 이 야만족은 귀가 매우 길다고 알려져 있다(EI Gog 또는 Magog 참조).

⑤ -마끄디시(Mutahhar ibn Tahir al-Maqdisi)

-마끄디시는 946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사망연대는 확실치 않다. 그의 아버지는 아랍인, 어머니는 이란인이었다. 그는 현

이란 동남부 시지스탄(Sijistan)의 보스트(Bost)에 거주하는 한 부족장의 청탁으로 우주의 창조와 역사에 대한 책을 썼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했다. 특히 선대(先代)에서 내려온 지식과 각 지역의 지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도와 스페인을 제외한 당시의 이슬람권을 두루 답사한 후에 이란의 남부 도시 쉬라즈(Shiraz)에 정착하여 저술에 몰두했다.

그는 이슬람권 전역을 1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도에 담았는데 그 때문에 이슬람 역사에서 최초의 지도 제작자란 명성을 얻었다. 신라에 관한 그의 기사도 앞에 이미 언급한 학자들의 저서를 읽은 사실은 확실히 짐작되지만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다. 966년에 집필한 그의 저서 『창세와 역사의 책(Kitab al-bad' wa'l-tarikh)』 속에서 신라국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으나 내용상 신라를 지칭하는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Sezgin I, 337).

“중국의 동쪽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의 공기가 맑고 부(富)가 남아돌고,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며, 나아가 주민의 성격이 양순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은(주민들) 또한 가옥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하며, 식사 때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고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Kitab al-masalik wa'l-mamalik)』에 적혀 있다.”(Ferrand, 116)

여기서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이라는 제목의 저자가 몇 명 있지만, 고려 대상이 되는 집필자는 전술한 이븐 후르다드비와 사만 조(Saman朝)의 재상을 지낸 자이하니(Jayhani) 두 사람뿐이다. 후

자의 저서는 현재 전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의 저서를 탐독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마끄디시도 이븐 후르다드비의 영향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받은 것은 분명하다.

신라인의 비단 직조(織造)와 금세공 기술이 뛰어났다는 사실이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 있다. 비단의 생산과 제조 기술을 관장하여 장려하는 정부 부서, 즉 직금방(織錦房)과 별금방(別錦房)이 통일신라시대의 정부 조직에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비단 짜기(錦織)는 매우 번성한 것 같다. 그보다 앞서 이미 신라 제21대 국왕 소지 마립간(炤知麻立干, 재위 479~500) 때에 평범한 백성인 방인(邦人)도 금수(錦繡)를 입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비단옷은 상당히 대중화되었으며 또한 신라 비단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올라가야 함이 분명하다. 이 사실이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된다(한국문화대백과사전 비단 참조).

이븐 후르다드비도 신라에는 금이 많다고 했는데 -마끄디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인들이 금세공품을 애용했다고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금세공 기술의 뛰어난 것은 비단 신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에도 해당된다. 또한 신라에 금이 풍부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금을 대량생산했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또한 금속공예, 합금술(合金術) 및 연금술(鍊金術)의 뛰어난에도 그 근거가 있는 것 같다.

⑥ 이븐 알 -나딤(Abu'l-Faraj ibn al-Nadim, 995경 죽음)

그의 일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그다드에서 서점이나 도

서관을 경영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저서 『색인 목록(al-Fihrist)』은 비록 오늘날의 문헌학 서적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당대 까지 이슬람 역사에서 알려진 모든 아랍 문헌의 저자와 저서 내용을 소개한 책인데 이 부류의 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977년에 편찬했다. 그러나 신라에 관한 기사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중국에 신라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번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는 금이 많다.”(Ibn al-Nadim, 492)

⑦ -이드리시(-Idrisi, 1166 죽음)

그는 가장 저명한 중세 중동 지리학자로서, 오늘날 모로코의 세우타(Ceuta)에서 스페인계 아랍인의 아들로 태어나, 16세 때부터 지중해 주변의 유럽, 아프리카 및 이슬람 지역 등 멀리 아시아 지역까지도 여러 번 답사하였다. 그는 다른 무슬림 학자와는 달리 그리스도교 국가인 시칠리아 섬에서 그 왕을 모신 점이 특이하다. 즉 그는 이 나라의 왕 로저 2세(Roger II, 1130~1150)의 팔레르모 궁정에서 일을 보았다. 그때 그는 중세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의 교류에 직접 참여하여 이슬람세계와 그리스도세계 간의 교류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 왕의 도움으로 그는 『먼 나라를 종횡할 꿈을 가진 자들의 산보(Nuzhat al-mushtiq fi ikhtiraq al-afaq)』라는 지리서를 1154년에 내놓았다. 이 책은 나이제리아의 팀북투(Timbuktu) 이북의 지역과 나일 강 상류의 수단을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등한

시하지는 않았다. 또 이 책에는 세계지도 1매(앞의 51쪽 세계지도 참조)와 각 지역 지도 70매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세계지도에는 위도와 경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는 전 세계를 7지대로 나눈 프톨레미의 방법에 따라 각 지대(iqlim)를 서에서 동으로 10등분하여 각각 1매의 지도를 그려 넣었다. 즉 총 70매의 지역 지도와 1매의 세계 지도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저서의 요지는 1592년에 처음으로 라틴어로 초역(抄譯)되었고, 또 1619년에 부정확하게 불어로 전역(全譯)되었다.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왔다(Hitti 609: Hudud 168).

“이 섬(Sanji)으로부터 신라라는 섬으로 간다. 그 섬(신라)은 서로 밀접해 있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곳에는 카이와(Kaiwa)라는 도시가 있다. 그곳을 방문한 여행자는 누구나 정착하여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매우 풍족하고 살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금은 너무 흔해서, 심지어 그곳 주민들은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금으로 만든다. 그들은 스스로 옷을 짜서 내다 판다.”(-Idrisi, 92)

여기서 ‘Sanji’라는 곳은 아직 학계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동부 중국 근방의 어느 지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드리시의 기술 내용 중 가장 새로운 것은 카이와라는 우리나라의 지명이다. 이것은 전술한 문필가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카이와의 다른 철자법은 카무레(Kamureh), 카무흐(Kamuh) 또는 키레흐(Kireh) 등이다. 따라서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그때까지 보존된

문헌에서 인용했거나, 스스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935~1392)에 해당하므로 그 수도는 개경(開京)이지만, 그가 전대의 문헌을 인용했다면 신라의 고도인 계림(鷄林)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이 지명을 저자는 간접적으로, 중국어의 고음(古音)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당시의 필사가(筆寫家)들은 대체로 외국어의 발음에 아무런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당대(唐代)의 고승 의정(義淨, 635~713)의 저서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典)』에 따르면, 신라 또는 계림은 인도 지방에서 계귀(鷄貴)라고 알려졌다고 한다. 카이와는 곧 이 계귀의 중국어식 발음에서 나온 음역이 아닌가 한다(문경현, 신라국호 연구).

⑧ -까즈위니(Zakariyah al-Qazwini, 1203~1283)

오늘날 북부 이란의 아제르바이잔 주(州) 까즈윈 시(市)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1232년에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 후 말단 관리로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었다. 만년에는 법관으로 이라크의 와시트(Wasit)와 힐라(Hilla) 시에서 근무했다. 그는 훌라구(Hulagu, 1218~1265)가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의 압바시아 조(750~1258)를 멸망시키고 일한국(Il-Khan, 1256~1353)을 창건하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그는 이란인 계통이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어가 아랍어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지학(Cosmography)에 관

한 두 권의 저서 『창조의 경이와 존재의 희귀성(Aja' ib al-makhlūqat wa-gharaib al-mawjudat)』과 『나라들이 남긴 자취(Athar al-bilad)』를 아랍어로 집필했다(Hitti, 382).

앞의 책은 주로 천지조화를 부문별로 다루었으나 뒤의 책은 세계지리에 관한 그의 지식을 모두 정리하여 담았다. 이 두 저서 속에 실린 신라에 관한 두 가지 기사 내용은 전술한 학자들의 기술과 비슷하다.

(a) “신라 군도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슬람교도들이 그곳에 상륙하면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다량의 금이 있고, 회색과 흰색의 매들이 있다. 특기할 사항은, 신라의 왕들은 중국 황제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에 가뭄이 찾아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 주민의 일부는 믿고 있다. 이것은 여러 번 되풀이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븐 알파끼(Ibn al-Faḥīh)가 그의 저서에서 이것을 보도했다.”(Qazwini, Aj'āib, 154)

(b) “신라는 중국의 맨 끝에 있는 매우 쾌적한 나라이다. 공기가 순수하고, 물이 맑으며, 토질(土質)이 비옥해서 병을 볼 수 없는 곳이다.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건강하다. 만약에 그들이 집에 물을 뿌리면 호박의 향기가 난다고 말한다. 전염병과 다른 병들도 그곳에는 드물고, 파리와 갈증도 거의 없다. 다른 섬의 어떤 환자도 신라에 오면 완치된다고 한다. 무함마드 이븐 자카리야 알 라지는 ‘누구나 이 섬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살기 좋으므로 정착해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이로운 점이 많고, 금이 풍부하다. 하나님만이 그 진실을 안다.”(Qazwini, Athar al-bilad, 50)

중세 무슬림학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쓴 글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 드문데 까즈위니만은 출처를 제시해 주고 있으나 미흡하다. (a)의 인용문은 이븐 알 파끼(Ibn al-Faḥih, 9세기 말~10세기 전반기에 생존한 지리학자)의 저서에서 인용했다고만 밝히고 있지만 그의 어느 저서 속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이븐 알 파끼의 대표작 『나라들의 책(kitab al-buldan)』에는 위의 글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이븐 알 파끼의 소실된 저서에서 인용한 것 같다.

(b)에 나오는 까즈위니의 신라에 관한 기사는 비록 그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중국을 직접 여행한 후 저술한 아부 둘랍(Abu Dulaf al-Khazraji)의 저서 『나라들의 기적(Ajaib al-Buldan)』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간수, 199~201). 그러나 아부 둘랍의 저서는 과장되었다는 평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많다. 또 (b)의 인용문 속에 나오는 -라지(Abu Bakr al-Razi, 라틴명 Rhazes)는 이슬람 역사에서 중국 주(周)나라 때의 편작(扁鵲)처럼 유명한 의사이다. 여기서도 -라지의 어느 저서에서 인용했다는 얘기는 빠져 있다.

⑨ 이븐 사이드(Ibn Said, 약 1213~1286)

스페인의 그라나다 근처에서 귀족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30세

경 중근동 일대를 두 차례나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그는 방랑벽이 있어 1267년에 아르메니아까지 둘러보았다. 그는 또 다재다능하여 시인, 역사학자, 지리학자로서 활동하여 다수의 값진 여행기와 지리서를 저술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7개 지대에 관한 지리서(Kitab al-jughrafiya fil-aqalim al-sab'a)』인데 그 속에 미흡하나마 신라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지역(동부)의 극단에 있는 ‘주위의 대양’에는 신라라는 섬이 있다. 이것은 (서쪽의) ‘주위의 대양’의 극단에 있는 ‘행운의 섬’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후자는 무인도이나 전자는 유인도이다. 그곳에는 경작지와 과수원이 있다. 신라 군도의 동단의 섬은 산지(Sanji 또는 Sankai)이다. 이 섬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 뒤에는 길이 없다.’ 라고 새겨져 있다. 이 섬의 동쪽 끝은 (동경) 약 180도 이다. 이 섬의 남쪽에는 프톨레미가 언급한 황금의 섬이 있다.”(Ibn Said, 110)

세계의 육지는 동서남북의 바다 곧 ‘주변의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중세 중동 무슬림의 세계지리관에서 신라를 동쪽 끝의 나라 즉 동경 180도에 위치했다고 이븐 사이드는 보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산지, 즉 산카이 섬의 실체는 자료부족으로 밝히기 어렵다.

‘황금의 섬’은 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를 지칭하는 데, 아랍 고전에는 일명 중국의 왁왁(Waq Waq al-Sin)으로도 알려져 있다(EI, Waq waq, Minorsky to Hudud, 228). 그러나 깐수 교수는 수마트라에는 금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황금의 섬으로 불리기에 합당

치 않다는 의견이다(간수, 171). 반면에 ‘행운의 섬’은 대서양 상에 있다는 전설의 섬인 아틀란티스(Atlantis)를 가리킨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347)이 이 섬을 이상향으로 묘사한 후, 서유럽인이나 중동인에게 신비스러운 이상향의 섬으로 알려져 왔다.

⑩ -디마쉬끼(-Dimashqi, 1327 죽음)

천지학자(天地學者)인 그는 다마스쿠스 근처에 살았으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의 저서 『대륙과 대양의 경이에 관한 현 시대의 정선(Nukhabat al-dahr fi’ajajib al-barr wa’l-bahr)』은 다른 사료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과 많은 기담(奇談)을 싣고 있다.

(a) “그것(중국해)은 중국의 남부 해안과 접해 있으며 (육지), 동쪽 끝의 가장자리에서 끝이 난다. 바로 이곳에 신라 군도와 우스티쿰(Ustikun) 국이 있다.”(-Dimashqi, 14)

(b) “신라 군도와 우스티쿰을 포함한 중국의 동부는 바다를 따라 (나란히) 뻗어 있다.”(-Dimashqi, 18)

(c) “프톨레미와 다른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바다(중국해)의 동부에는 ‘신라 군도’라고 불리는 여섯 섬이 있다. 이 군도는 여러 종류의 강옥(鋼玉, yaqut)과 귀중한 보석(jauhar)으로 충만한 좋은 지층을 가지고 있다. 그곳은 또한 인구가 알맞게 분포되어 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기후가 알맞고, 물이 맑고, 여자들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기 때문에 기쁘게 그곳에 남아 머문다.”(-Dimashqi, 130f)

(d) “암모니아 열도와 중국의 하부(下部)를 넘어서 동쪽 바다에 있는 ‘신라 군도’라는 여섯 개의 큰 섬이 있다. 그곳에는 강옥(鋼玉)과 귀중한 보석이 광산 지하광 및 강바닥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알리파는 우마이야 조(661~750)에 쫓겨 이곳으로 도망했다. (서방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이곳에 상륙하면 비록 어려운 생활에 빠지게 될 지라도 이곳을 떠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섬들은 바다(동쪽 주변의 대양)의 북부 해안에 놓여 있다.”(-Dimashqi, 131)

(e) “우스티쿰 국의 저쪽 건너편에 있는 ‘신라 군도’의 연해는 ‘주변의 대양과 접해 있다.’(-Dimashqi, 168)

-디마쉬끼의 이 저서에는 신라에 대한 표기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때로는 sla와 sila 때로는 al-sla와 al-sila, 때때로는 sla와 sila가 나란히 연이어 기술되어 있다. 아마도 발음상의 착오로 일어나는 오해를 가능한 한 줄여 보려는 학자적 양심에서 sla, sila, al-sila를 되풀이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각각 그의 신라 발음을 다르게 표기했는지 모른다.

(a), (b) 및 (e)에 언급된 우스티쿰 국의 위치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라 군도’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 (c)에서 ‘신라 군도’에 속한 섬의 수가 구체적으로 여섯 개라고 하였다. 앞의 -이드리시의 지도를 참조해 보면, 중세 중동 무슬림학자들은 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및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단순히 중국의 동부에 있는 섬들로 어렵פות이 추측하고 있었던 것 같다.

(c)와 (e)에서 강옥과 귀중한 보석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

실에 근거한 것 같다.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다량의 보석과 여러 종류의 옥이 발굴되었고 더구나 경덕왕(재위 743~764) 때에는 신라의 공예품을 직접 본 당나라 황제도 그 기교의 아름다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간수, 192~3).

(e)에서 암모니아 열도와 중국의 하부라는 개념도 명백하지 않다. 하부라는 것은 -디마쉬끼에 의하면 강의 하구를 뜻한다. 그러나 이 강이 황하, 양자강, 또는 다른 강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알리 파(派)라는 함은 632년에 교조 무함마드가 서거한 후에 그의 사촌이자 사위이며, 나중에 4대 할리파가 된 알리(Ali b. Abi Talib, 661 죽음)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며 알리의 사후 몰락하였다. 그의 정적 무아위야(Mu'awiya, 재위 661~680)가 알리 파를 물리치고 제국의 정권을 장악하니, 곧 우마이야 조(661~750)의 시작이다. 이 할리파 조와 그 뒤를 이은 압바시야 조(Abbasiya朝, 750~1258)의 통치 아래에서 알리파는 박해를 받아 도처로 피난하였다. 이 사실을 -디마쉬끼는 신라와 연결지었던 것이다. 알리파, 즉 예언자 무함마드의 자손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알라(Allah)의 보살핌을 받아 떠나 먼 신라 땅에서도 잘 살고 있음을 은연중 비치고 있다.

⑪ -누와이리(Ahmad al-Nuwayri, 1332 죽음)

이집트인으로 백과사전적인 박식가여서 심지어 이집트의 문호(文豪)란 별명도 지니고 있다. 그의 『문학예술의 궁극적 목적(Nihayat al-'arab fi funun al-adab)』이라는 저서 속에 -디마쉬끼의 신

라에 관한 보도와 비슷한 기사를 읽고 있다.

“중국에서 동쪽으로 아주 가까이 신라라고 불리는 여섯 개의 섬이 있다. 그곳 주민들은, 혹은 적어도 그 중의 일부는 우마이야 조의 박해를 피해 이 나라에 피난 온 알리(제4대 할리파, 재위 656~661)의 자손들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비록 빈곤하게 살아야 할 처지일지라도 공기가 순수하고 물이 맑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Ferrand, 396f)

주목할 점은 -디마쉬끼는 알리파가 신라로 피난갔다고 한 것을 -누와이리는 그곳 주민들 또는 일부가 알리의 자손이라고 추리한 것이다. 물론 과장된 것으로 믿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아랍 부족, 특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과 그 자손의 우수성을 은연중에 표현하여 그들의 영구불멸을 찬양한 것이다.

⑫ 아불 피다(Abu'l -Fida', 1273~1331)

술탄가인 아유브 조(Ayub朝, 이집트에서는 1169~1249, 시리아에서는 1169~1260)의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문무(文武)를 겸비한 교육을 받았다. 11세 때부터 그리스도교도들의 십자군과 몽골계의 일한국의 침입 및 이슬람교도 간의 내분 등으로 일어난 여러 전쟁에 참가했기에 그는 전쟁터에서 성장한 셈이다. 그 공으로 당시의 이집트 술탄으로부터 하마(Hamah, 현 시리아의 중부) 지방을 봉토로 받았다.

그는 군사령관과 고위 관료직을 두루 역임했지만 학문에도 관심이 깊어 역사, 지리, 법학, 천문 등에 큰 뜻을 두었고 또한 학문

을 장려했다. 그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하마로 모여 들었다. 그는 역사 및 지리학자로서 비교적 체계 있는 저술 방법을 통하여 지리서 『나라들의 목록(Taqwim al-buldan)』을 집필했는데 17세기에 들어와 여러 유럽어로 번역되어 대학 교재로 채택되었다. 이 저서 속에 신라와 고려라는 두 어휘가 같은 쪽에 몇 줄을 사이에 두고 위아래 줄로 나란히 동시에 기술되어 있다.

(a) “신라 : 『까눈(qanun)』서에 따르면 신라는 (동)경 170도, (북)위 5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제1지대 가운데서도 남부에 있으며, 신라는 중국의 동쪽 상단(上端)에 있다. 그것은 위치상 서방(대서양)의 ‘영원과 행운의 섬’에 필적할 만한 동해의 도서이다. 전자는 후자와는 반대로 경작되었으며, 유익한 물건으로 충만해 있다.”(Abu'l Fida' 366-7)

(b) “하주(Khaju) : 『아투왈(Atuwal)』서에 따르면 하주는 (동)경 103도, (북)위 40도에 위치해 있다. 제5지대에 속해 있으며 중국의 북쪽에 있다. 이 도시를 본 몇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도시는 중국의 거점 가운데도 큰 도시이다. 이 도시와 북경(北京, Khan Baliq) 간의 거리는 걸어서 15일 걸리며, 또 이 도시는 히타(Khita)와 고려국(bilad kauli) 사이에 있다.”(Abu'l Fida' 366-7)

(a)와 (b)의 두 인용문은 『나라들의 목록』이란 저서의 366~7 쪽에 네 칸으로 나누어진 도표 속에 들어 있다. 즉 제일 먼저 신라에 대한 (a)의 인용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Jimqut(확인되지 않은 지명)이다. 세 번째가 바로 (b)의 인용문이다. 비록 한 칸을 건너

뛰어 있지만 나란히 위아래로 표기되어 있다.

(a)의 까눈(qanun, 일반규칙서 또는 법칙서)이라는 책은 -비루니(Biruni, 973~1050)의 저서 『형태학과 천문학에 관한 귀중한 법칙(Qanun al-mas'udi fil-haya wal-nujum)』을 말하는 것 같다. -비루니는 역사, 지리, 천문, 수학, 언어, 건축 및 의학을 두루 섭렵한 후에 선학(先學)인 -마수우디의 학문적 업적을 기려 자신의 저서 이름으로 택하였다. -비루니의 이 저서는 백과사전적이다. 아불 피다는 또한 -비루니의 글을 수없이 많이 인용하고 높이 평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를 흠모한 것 같다.

특기할 것은 한반도가 실제로는 동경 약 125~130도, 북위 33~42도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비루니와 아불 피다가 동경 170도, 북위 5도에 있다고 한 것은 동아시아의 항구 가운데 중세 중동 무슬림에게 가장 잘 알려진 광주(廣州)항으로부터 계속해서 동향으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는 선원들의 말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중세 중동 무슬림의 지리학에서는 경도와 위도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b)의 인용문에서 아불 피다는 Khaju를 설명하는 가운데 고려국(Bilad Kauli)이란 어휘를 사용했지만 다른 언급은 전혀 없고 또한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아투왈(Atuwal)』이란 저서의 정체가 현 한국의 자료 실정으로는 밝혀내기가 어렵다.

또한 Khaju란 지명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서는 Khansa라고 하는데(EI, Sin 참조) 그곳은 중국의 항구 도시 항주(杭州)이다.

송(宋)대에 항주를 얼마 동안 행재(行在)라 불렀는데 한사는 그 음역이다(이븐 바투타, 73). 그러나 Khaju는 히타와 고려국 사이에 있다고 하는 (b)의 인용문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히타는 보통 화북 지방을 뜻한다고 볼 때 절강성(浙江省)의 항주가 한반도와 화북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아불 피다가 신라와 고려를 나란히 병기(併記)한 사실은 왕조의 이름과 국호(國號)가 다른 동아시아적 전통에 생소한 데 기인한 것 같다. 즉 이슬람 역사에는 지명(地名)과 왕조(王朝)의 이름만 주로 지칭하여 구분하고 국호(國號)란 개념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이름 짓는 법과 관행이 전혀 다른 신라와 고려를 다 같이 한반도에서 나온 국가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이슬람 관행에서 보면 한 나라의 이름은 왕조가 바뀌어도 그 지명에 따라 부르기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에서도 그 왕조가 아무리 교체되어도 그 지명이 바뀔 리는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왕조가 변하면 국호도 바뀌는 한자(漢字) 문화권의 관행을 그가 짐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와 고려는 이름이 전혀 다르고 또 그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두 이름이 다 같이 한반도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⑬ 이븐 할둔(Ibn Khaldun, 1332~1406)

그의 선조는 아랍군이 8세기 초에 스페인을 정복한 후 그곳에

정착했으나 12세기경에 그리스도 세력이 반격을 가해오자 다시 튀니지로 이동했다. 그는 튀니스에서 태어나 북아프리카 및 스페인 남부 각지에서 여러 술탄국의 고관직을 역임했다. 1382년에 메카로 순례차 가다가 카이로에 들러 여행을 중단하고, -아즈하르(al-Azhar)대학에서 강의했다. 그는 역사 발전 법칙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세계 최초의 학자였다. 그의 주저 『경륜서(Kitab al-'Ibar')』의 머리말인 ‘서론(Muqaddimah)’ 속에 신라에 대한 기사가 있다.

“(중국의) 남쪽에는 왁왁(Waq Waq)군도가 있다. 동쪽에는 ‘신라군도’가 있다.”(Ibn Khaldun, 121)

“여러 유명한 도시 중에서 한푼(Khanfun)을 들 수 있다. 동쪽으로 그 건너편에 <신라 군도>가 있는데, 그에 관하여 더 언급할 것이다.”(Ferrand, 461)

왁왁은 한때 일본을 뜻하는 왜국(倭國)의 한자음이 와전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마트라를 지칭한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Hudud, 228).

‘한푼(Khanfun)’ 가운데 마지막 자음 ‘n’은 아랍어의 주격 부정 명사에서 나온 접미어인 것 같으며, 그 나머지 ‘Khanfu’는 광주의 옛 이름인 광부(廣府)의 음역이다.

⑭ -바쿠위('Abd al-Rashid ibn Salih al-Bakuwi)

서기 1400년 전후에 활동한 작가로서, 바쿠 출신이다. 1402년에 완성한 그의 저서 『여러 대왕들이 남긴 자취와 경이의 요약(Talkhis al-athar wa-'aja'ib almalik al-quhhar)』 속에서 신라에 대하여

짚막하게 언급했다.

“서른 번째 : 신라는 중국의 동단에 있는 나라로서, 위생상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Ferrand, 463)

⑮ -마끄리지(-Maqrizi, 1364~1442)

카이로에서 태어나 재판장, 교수 및 다른 고위직을 역임했으며, 그의 저서 『신 정착지와 유적지에의 해설과 학습(al-mawaiz wa'l-i tibar fi dhikr al-khitat wa'l-athar)』 속에서 신라에 관한 의례(依例)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중국 넘어 동쪽 바닷가에는 여섯 개의 섬이 있는데 ‘신라’라고 알려져 있다. 이슬람교의 초기에 알리 파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이곳으로 피난 와서 정착했다.”(-Maqrizi, 59).

(다) 페르시아어 문헌

① 라쉬드 알 딘 파드랄라(Rashid al-Din Fadlallah, 1247~1318)

그는 현 이란의 하마단에서 유대계 약종상의 아들로 태어나 30세 때 이슬람교로 개종했는데 그의 직업은 의사였다. 몽골족이 중동 일대를 정복하여 세운 일한국의 통치자 아바카(Abaqa, 재위 1265~1282)에 의해서 등용되어 그의 두 후계자 가잔(Ghazan, 1295~1304)과 올제이투(Oljeitu, 1304~1317) 아래서 재상으로 거의 20년간 집무

하였다. 그는 도시건설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후에 모략에 걸려 처형당했다(EI : Rashid al-Din).

그는 다재다능하여 의사 및 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그의 명성은 저서 『집사(集史, Jami al-tawarikh)』 가운데 특히 제1권의 몽골족의 역사에 힘입은바 크다. 몽골족의 역사자료(한문과 몽골어 포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손꼽히고 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저서 속에서 원나라의 12개 성(省)을 소개하면서 중동의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고려’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지칭하였다. 또, 그는 몽골 치하의 고려 역사를 간략하나마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세 번째 ‘썬크(Shink)’는 변경에 있는 왕국인 카울리(Kauli)와 카오카울리(Kaukauli) 지역이다. 그곳의 임금인 ‘완크(Wank)’라 부른다. 쿠빌라이 칸(Qubilai Qaan)은 자기 딸을 그에게 주었다(결혼시켰다). 그의 아들은 (원의) 칸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그곳의 왕이 되지 않았다.”(Rashid al-Din, 486)

썬크는 성(省,한자음 Sheng)을, ‘카울리’와 ‘카오카울리’는 각각 고려와 고구려라는 한자어의 음역이다. ‘완크’도 역시 왕의 음역임에 틀림없다. 쿠빌라이 칸(1215~1294, 일명 훌필열忽必烈)은 원의 세조(1260~1294)를 지칭한다. 그의 딸은 고려 제 25대 충렬왕(1275~1308)의 정비(正妃)가 된 홀도로 게리미실(忽都魯揭里迷失, 한자음 Hou-tou -lou -kien -mi -shen, 몽골명 Kutlugh Kelmish)을 뜻한다.

그녀는 원나라의 공주로서 최초로 고려의 왕비가 되었으며, 후에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로 추대되었다. 그의 아들은 충렬왕과

계국대장공주의 맏아들인 26대 충선왕을 말한 것 같다. 충선왕의 몽골명은 이지르부가(Ijirbuga, 益知禮普化)이며, 왕위에 두 번(1298, 1308~1313)올랐다.

충선왕은 1298년 즉위 7개월 만에 왕위를 다시 부왕인 충렬왕에게 돌려주고, 그의 왕비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一寶塔實憐)와 함께 북경으로 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원의 성종(재위 1294~1307)이 죽고 제위(帝位)계승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는 무왕(武王)을 옹위하여 성공함으로써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하여 그는 무왕(1307~1311)은 물론 그의 아들 인종(1311~1320)과도 친밀하게 지내 심양왕(瀋陽王)에 책봉되었다. 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은 이 관계를 말하는 것 같다. 나아가서, 그가 고려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재위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1308년에 충렬왕의 사후 복위할 때까지 줄곧 북경에 머물렀고, 복위 후에도 주로 원도(元都)에 체류하면서 전지(傳旨)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일한(II Khan)은 원(元)의 네 한국(Khan國) 중 하나인데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Hulagu, 1256~1285)가 이란을 정복하여 세운 나라이다. 따라서 이란 정복 시 또는 그 후에도 본국인 원과의 교류 때문에 중국계 또는 몽골계의 인물이 일한국에 들렀거나 거주했기 때문에 라쉬드 알 딘은 손쉽게 원과 한반도 상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쉬드 알 딘은 일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로부터 충렬왕이 고려 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것 같다. 그의 저서에는 신라에 관한 기사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이

특기할 만하다.

② 알리 악바르 히타이(Ali Akbar Khitai)

알리 악바르 히타이의 신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그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그는 비록 1500년대 초기에 중앙아시아를 거쳐 명(明)대의 중국을 방문했지만 누구의 지원으로 중국에 갔는지 분명치 않다. 그는 몇 년간 중국에 머물다 귀국한 후 1516년에 『중국 여행기(Khitainame)』를 페르시아어로 저술했다. 이 책은 본래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술탄 셀림 1세(1512~1520)에게 바칠 예정이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후에 그의 후계자 술탄 슬레이만에게 헌정되었다.

이 여행기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여행안내서라기보다 중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매우 체계적이지만 구체성에는 한계가 보인다. 특히 그는 중국에 관한 여러 페르시아어 사료를 많이 이용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시집(詩集)을 여러 권 활용했는데 때때로 자신의 『중국여행기』 사료와 시의 구절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그의 여행기에는 아따르(Attar, 1193 죽음), 왈리(Pahlavan Mahmud Puria-ye Wali), 사아디(Sa'di, 1292 죽음) 및 샤페스타리(Mahmud Shabestari, 1320 죽음)의 시집에서 나온 구절이 종종 보인다(Enc. of Iranica, Ali Akbar Khitai 참조).

이 여행기는 모두 20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분량은 중국에서 저자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내용은 중국의 도로망, 종교상황, 중요 도시와 그 군사기지

및 재정 형편, 교도소 사정, 풍속과 축제 및 명절, 법률, 심지어 붓글씨 등 다양한 분야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도 역시 고려를 중국의 한 성으로 보았다.

“중국의 12개 성(省) 가운데 아홉 번째 성은 카올리(高麗)라 부른다. 이 카올리는 매우 살기 좋은 나라이고 부유하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아주 조그만 상인도 100만 시르(sir)의 은화를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다. 1시르는 10디르함이다(1디르함은 은 2.97그램 임). 어느 한곳에서는 한두 사람의 카올리 상인이 우리 모두의 상품을 몽땅 구매한다.

중국왕실 재정에서 중국 군인들에게 수천 개의 호박단 원료(tafeteye kham, 영어 taffeta)를 지급한다. 수천 명의 칼묵 타타르(Calmuck Tatar, 출신 군인)에게도 같으며, 또한 수천 명의 힌두교인(인도인)에게도 같다. 무슬림(이슬람교도출신 군인)은 다른 모두 보다 (수적으로) 적으나 명성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준다. 그 외에 티베트, 위구르, 아우자드(Aujd), 주르지트(Jurjit) 등 다른 수천의 종족(군인)에게도 수천 개의 호박단 원료를 준다. 또 모두에게 여러 색깔의 지도와 금실이 섞인 옷감도 준다. 또 모두에게 얼굴에 쓰게 한다. 또 다른 종류의 옷감도 준다.

이 모든 산물을 카올리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는데 그 가격을 금과 은으로 지불한다. 이 호박단 원료를 모두 사용하여 깔기(qalgi)를 만드는데 그것은 인도에서는 명예의 상징이다. 동부 인도인들은 모두 깔기를 입는다. 카올리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아마포가 있는데 그 품질이 우수하여 아주 부드럽다.”(Khitainame, 118f)

알리 악바르가 명(1368~1910)나라를 방문한 시기에 한반도는 조선 왕조(1392~1910) 치하에 있었다. 조선 왕조는 명나라의 속방(屬邦)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명나라 황제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다. 조선의 조정은 동지사(冬至使)가 이끄는 신년 문안 사절단과 함께 상당한 양의 조공물을 중국 황제에게 보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그 답례물로 상당한 양의 중국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상품은 조선에는 매우 희귀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절의 왕래가 두 나라 간의 호혜적인 무역 통로였다. 아마도 알리 악바르가 위에 언급한 것은 이러한 조공물과 답례물의 교환을 지적한 것 같다.

하지만 위의 글에서 호박단 원료의 유통 과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한반도 어디에서 호박단을 생산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더구나 깔기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는 위의 언급을 평가하기 어렵다.

③ 아불 파즐(Abu'l-Fazl, 1602 죽음)

인도의 고도 아그라(Agra)에서 태어난 그는 모굴(Moghul) 왕조(1526~1858)의 악바르 대제(1556~1605)의 총애를 받았다. 그의 저서인 『악바르 대제 치세기(Akbar nama)』 속에 신라의 위치만 언급했다. 아마도 아불 파즐은 앞에 인용한 아랍어 문헌을 읽고 단순히 번역하여 기술한 것 같다.

“신라 : 중국에 있음. (동)경 180도, 북위 8도 05분(Ferrand, 554).

(라) 중세 이슬람 문헌의 평가와 과제

한반도의 사료 가운데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처음으로 대식(大食)을 언급했다. 대식은 본래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사람을 지칭하는 Tazi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한자로 음역(音譯)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페르시아어에서는 원래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 지방을 Tayy라 불렀고 또 그 지역 사람을 Tazi라 칭했다. 즉 페르시아어 발성법칙에 따라서 Tayy 지역 사람은 Tazi, Rayy(현 이란의 수도 테헤란 남부의 한 구역) 지역 사람은 Razi라 부른다. 『고려사』의 현종(顯宗) 조 15년 9월(1024)에 열라자(悅羅慈) 등 100명, 그 다음해 9월에 하선라자(夏洗羅慈) 등 100명, 그리고 정종(靖宗) 6년 11월(1040)에 객상(客商) 보나합(保那盍) 등이 고려에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열라자는 아랍어의 ‘al-Razi’, 하선라자는 ‘Hassan Razi’, 보나합은 ‘Barakah’ 등의 음역(音譯)인 듯하다.

또 경주의 쾌릉 석상이 대식국인을 닮았다고 하여 신라시대에 아랍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세 이슬람 문헌에는 그들이 한반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은 기록하였지만 돌아왔다는 기사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료(史料)와 중세 이슬람 문헌은 적어도 중세 중동인들이 한반도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상호 일치한다.

다음에 특기할 점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신라에 관한 중세 이슬람 문헌의 기사가 점차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첫째, 신라의

위치이다. 전대의 문헌들은 막연히 중국의 동쪽, 바닷가라고 표현하였으나, 후대의 이븐 사이드는 신라 동쪽 끝의 섬인 산지(Sanji 또는 Sankhai)는 동경 약 180도라 하였으며, 아불 피다와 아불 파즐은 신라의 위치를 각각 동경 170도, 북위 1도와 동경 180도, 북위 8도 05분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아불 피다는 신라가 제1지대에 있다고 하였다. 둘째, <신라 군도>에 속한 섬의 수를 6개로 또는 더 많은 것으로 보도한 사실이다. 이븐 후르다드비, -마수우디 및 -까즈위니 등의 글에서는 신라가 섬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

그 밖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신라를 섬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디마쉬끼 이전의 학자들은 <신라 군도>의 섬의 수는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무역상 솔라이만은 단순히 섬들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드리시는 신라라는 섬은 서로 서로 밀접해 있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했다. -까즈위니는 단지 수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라 군도>라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디마쉬끼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신라'는 여섯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누와이리도 이 주장을 따랐다.

이 구체화 현상을 중동인들의 신라에 관한 지식의 심화(深化)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상상력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막의 거친 환경에 익숙한 중동 무슬림들의 꿈은 행복한 생활이었다. 이에 필요한 여건은 당시의 부(富)의 상징인 금과 비단, 좋은 환경이었다. 사막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라는 뜻은 흔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 나무와 꽃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풍광 및 비옥한 토지이다.

여기에도 행복의 충분조건으로써 무병장수를 가미한 것 같다. 이 무병한 건강 상태는 -까즈위니와 같은 13세기 이후 저자들의 문헌에 나타난 것이다. 신라를 하나의 이상향으로 분장하는 데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이븐 사이드와 아불 피다는 아틀란티스라는 섬도 동원했다. 이 섬은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공유하고 있지만 결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섬인데 대서양에 있는 <영원과 행운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을 신라와 대조시켜 놓았다.

무인도인 전자와는 달리 유인도인 신라를 이상화함으로써 중세 중동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동경심의 일단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신라를 이상향으로 본 최초의 동기는 신라에 금이 많이 난다는 보도기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즉 앞에 언급하여 인용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라에 금이 풍족함을 부러운 듯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호 신라 및 수도의 명칭 금성(金城)이 모두 ‘사발’, 즉 금(鐵)국이라는 뜻을 가진 데서 온 듯하다.

또한 무역상 술레이만, -마수우디 및 -까즈위니 등은 중국과 신라와의 관계를 어렴풋이나마 주종(主從)으로 보았다. 즉 신라 왕이 중국황제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반면에 신라 대신에 카올리, 즉 고려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지칭한 라쉬드 알 딘과 알리 악바르 히타이는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중국과 한반도를 한나라로 본 것이다.

이 두 페르시아어 저자들은 당시의 한반도를 중국의 한 성(省)으로 기술했다. 두 저자는 또한 다른 아랍어 문헌들의 신라에 관

한 일부 가공적인 보도 즉 이상향과 알리파의 피난처 등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히타이의 호박단 원료와 아마포관련 기사는 더욱 연구, 조사해야 할 과제인 듯하다. 반면에 아불 피다는 신라와 고려 둘 다 언급했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나라들로 보았다.

이상의 평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중세 이슬람 문헌에서 들어난 신라상(像)과 고려상은 한두 해에 형성되지는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신라와 고려를 언급한 18명의 저자들 가운데 스스로 한반도를 방문했거나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한반도를 직접 본 사람이거나 또는 그것에 관해 들은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거나 또는 책을 통하여 읽었을 것이다.

듣는다는 일도 저자가 직접 가본 사람을 만나서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자와 직접 가서 본 사람 사이에 몇 사람의 입과 귀를 거쳐서 듣는 경우나 또는 서적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특히 서기 1000년 이전에 한반도에 관해 언급한 저자들은 오직 듣고서만 기록했을 것이다. 그 후에는 선학(先學)들의 저서들 속에서 한반도에 관해 읽거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거나 수집한 자료에서 기술하게 된 것이다. 즉 중세 중동 무슬림들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신라 또는 카올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여 기술할 가치가 있다고 믿은 분들이 이상의 18명이라는 뜻이다.

한반도를 제일 먼저 중근동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직접 그곳에

가 본 중세 무슬림 상인들로 짐작된다. 그들 외에도 중국의 신라방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신라사람이나 중국사람에게서 한반도에 관해 들은 사실을 다른 여러 사람에게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반도 소식이 중근동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보았다거나 들었다는 것은 오가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식으로 한반도에서 수십만 리나 되는 길을 통하여 중근동까지 퍼져 나간 것이다

다행히 한반도와 중근동 사이에 길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중세 중동 무슬림이 극복하기에는 매우 힘들어 왕복을 하려면 바닷길 이든 땅길이든 다 같이 두 해 이상이 걸리는 거리다. 이 먼 길을 한 사람이 오가는 안전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먼 길을 일정한 거리로 나누었고 또 무리를 지워서 오갔다. 즉 뱃길 또는 낙타길로 주로 왕복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오가는 거리에서 여러 번 행하는 단거리 지역 무역이 2~3년이 걸리는 장거리(예 중근동과 중국 사이) 무역보다 더 성행했음도 명백하다.

즉 A항 또는 A오아시스-B항 또는 B오아시스-C항 또는 C오아시스-D항 또는 D오아시스-E항 또는 E오아시스 등을 가정해보면 가까운 이웃 간의 접촉이 먼 이웃 간의 교류보다 더 활발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즉 우리의 큰 이웃인 중국 사람들의 신라상(像)이나 고려상이 중국의 이웃들인 동남아 지역, 인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달된 후에 먼 이웃인 중근동 지역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다.

또한 중근동에서 중세에 무슬림 상인들이 한반도까지 직접 뱃길

로 왔다는 치더라도 그들은 수많은 항구를 거쳐서 왔을 것이며 또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그 이웃 지역들의 거점 도시 곧 항구와 오아시스 또는 경유 도시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한반도의 대외 이미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오아시스 도시나 항구를 한겨레의 구성원도 출입하여 다소의 족적(足跡)을 남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신라나 고려를 알리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믿는다. 특히 해상 실크로드로 알려진 남해로와 육상 실크로드인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을 왕래하면서 동서 문물 교역과 문화교류의 주역을 맡은 몇몇 유목민족과 무역상들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더구나 무역상이나 대상들이 중도에서 쉬어 간 거점(據點, 예를 들어 항구와 오아시스 도시) 가운데 몇 개를 선정하여 그 위치와 산물(産物) 또는 한반도 내지 중국과의 관계 및 문화교류상의 업적을 알아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서기 기원 전후에서 서기 1000여 년간 소위 육해상 실크로드(남해로, 초원길 및 오아시스길)의 시대적 역할 변화와 또 한반도에 미치는 중요성의 추세변화도 놓치기에는 아까운 분야이다. 특히 이 기간에 뱃길이나 땅길을 오가다 보면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반향(反響)을 부분적이거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시간적 공간적 즉 역사적 지리적 변화과정의 길을 가다 보면 한겨레와 그 문화의 기원도 바로 이 길을 통해 온 것이 확실하기에 그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제6장
한반도와
중동 이슬람권과의
교류

(가) 개요

한반도의 대 중동 이슬람권과의 교류는 해로(海路)와 육로(陸路)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육로는 비단길(silk road)로 너무나 유명하며 해로는 남해로(南海路)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비단길이란 학술용어는 19세기 말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이 처음으로 제창한 학술적 아칭(雅稱)이다. 이 용어는 과거 유라시아 대륙에서 명멸했던 여러 문화들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류와 변용(變容)의 현상을 탐구하여 각 지역에서 전개된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 두 연결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쪽으로부터 열거하면 육로의 비단길은 유럽, 중근동, 중앙아시아, 중국(때로는 몽골), 한국이며

남해로는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 해, 인도양, 남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져 있다. 요즈음에는 이 땅길과 바닷길을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로 실크로드란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육로나 해로를 통하여 운송된 주된 무역상품은 비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육로와 해로의 종착 지역에 중국과 한국이 들어 있다. 그 때문에 한반도에 들어 온 문물의 대부분은 중국을 거쳐 왔거나 도입되었다. 그 결과 우리 한겨레에게 도입경로의 구체적인 추적은 쉽지도 않거니와 그 중요성마저 떨어진다. 하지만 한겨레 자신의 정체성(正體性)과 문화적 객체성을 규명하고 현대 한국인의 문화적 고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실크로드의 두 간선 도로인 오아시스길(중앙아시아-중국-한국)과 초원길(중앙아시아-몽골-만주-한국)의 비교연구는 한겨레의 정체성과 그 문화의 변천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 속에 흘러들어 온 외래 문물의 대부분은 삼국시대 중기까지 즉 한겨레가 중화(中華) 문화에 친화적이 되기 이전까지는 오아시스길 보다 초원길을 통하여 들어온 흔적이 유물 유적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명백히 분석하여 규명하는 것은 한겨레 자신을 아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두 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변천과정과 비교연구는 바로 한겨레의 대(對)기마민족(騎馬民族) 친화(親和)에서 대중화 친화로 기울어지는 변천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보는 것도 바로 이 장(章)의 추구대상이다.

사람들이 한번 길을 열면 그 길을 따라 문화도 이식되어 오갔다. 배는 뱃길을 따라 다니면서 항구에 들러 머문다. 이 항구는 인도양에서나 남중국해상에서는 공간상으로나 시간상으로 곧 문화의 등대가 되어 문화 전달거점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육로인 실크로드 상에서도 오아시스 도시들은 문화의 봉화대 역을 도맡았다. 그 결과 한반도도 저 멀리 중근동에 알려졌고 그 반대방향으로 중근동도 한반도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한반도와 중근동을 잇는 해로와 육로를 고찰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한국을 잇는 해로와 육로는 모두 중근동의 이슬람권을 경유하고 있지만 이 장(章)에서 다룰 부분은 유럽과 지중해를 제외한 부분 즉 중근동과 중국 또는 한국을 잇는 해로와 육로의 부분이다. 우선 해로상의 항해와 그 발달과정은 연안 간의 교통 즉 근해(近海)를 사이에 둔 해역 또는 커다란 내해(內海)를 통한 교역이 이루어진 후 원해(遠海)로 나가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중근동, 인도, 동남아, 남중국해 등의 역내 해로와 중근동, 중앙아시아, 중국 등의 역내(域內) 통행로가 부분적으로 먼저 개통된 후 점진적으로 남해로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육로가 전체적으로 완결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쪽의 중근동에서 시작해 보면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는 홍해와 페르시아 만이라는 지협만(地峽灣)이 있어 일찍부터 인류가 바다로 나가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아가서 아라비아 해를 사이에 두고 중근동과 인도아대륙 간의 해로,

역시 벵골 만을 사이에 둔 동남아 대륙과 인도 간의 해로, 더 나아가서 남중국해의 항로 개척에 참여한 주인공들의 내력을 조명해 보는 것이 그 순서가 될 것이다.

중국의 남해무역은 기록상으로는 진시황(秦始皇)이 서기 기원전 214년에 남방 지방을 경략한 것이 그 시초였다. 당나라 때에는 대식(大食)국 상인들이 중국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중국 상인들도 남해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인도 심지어 중근동까지 진출했다. 원(元), 송(宋)대에는 더욱 발전하여 교역활동이 한층 더 번성했고 마침내 명(明)대에는 제독 정화(鄭和)가 아프리카 해안까지 몇 차례 답사차 항해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 간의 교역은 민간 차원이 더 활발했으나 국가 차원의 교역도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조공(朝貢)의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동남아 각국 왕이 자국(自國)의 특산물을 수집하여 중국의 천자(天子)에게 바치고 그 답례로 중국 측에서 내리는 우사(優賜) 형식의 교역이 한몫을 해온 셈이다. 이 경우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교역도 그 궤를 같이 한다.

동서간의 원거리 해상무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전거(典據)를 제시하여 증빙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해양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서기 기원 전후 약 500년(기원전 250~서기 250) 동안에 심지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중국의 광주(廣州)까지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Dan Gibson, Red Sea). 이 주장에 따르면 이 동서 원거리무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랍인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사막의 사나이라는 아랍 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다.

(나) 대상과 해상무역의 계승자 아랍인

한국인에게 아랍인들은 대체로 사막사람으로 비치고 있다. 이 선입관은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반도는 인도의 크기에 버금갈 정도의 광활한 사막으로 덮여 있지만 또한 반도이기에 삼면(三面)이 바다이다. 즉 홍해, 아라비아 해 및 페르시아 만으로 둘러싸여 있다. 더구나 반도의 북쪽에는 지중해도 위치해 있어서 거의 사면이 바닷가에 있다. 단지 아프리카 쪽과 메소포타미아 쪽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섬은 아닌 것이다.

또한 내륙에는 수많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샘물을 식수나 농업용으로 사용하여 농경생활을 행함으로써 일찍부터 일부 아랍부족들은 정착생활을 영위했다. 이 오아시스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상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아시스 밖의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 제공자역도 도맡았다. 이 대상들은 오아시스의 정착촌 거주민과 또 주변의 유목민인 베두인(Bedouin)에게 문명의 이로움을 전해 주었다. 더구나 이 대상들을 노리는 노상강도(路上強盜)들의 약탈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또한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인간 집단 간의 교류와 충돌은 있

게 마련이었다. 아라비아 반도와 그 주변의 해역, 즉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 해 및 페르시아 만에서의 해상활동은 아득한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반도의 북부 해안에 해당되는 지중해의 크레타 섬과 에게 해를 중심으로 해상활동이 활발했으며 기원전 13세기부터는 페니키아인(Phoenicians), 기원전 12세기에 들어와서는 필리스틴인(Philistines)의 해상 활동에 대한 족적(足跡)이 남아 있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의 동부 즉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및 이스라엘 해안을 본거지로 삼고 지중해 각지 특히 카르타고(Carthago, 오늘날의 튀니지)에 기원전 9세기 말에 기지를 설치하여 오랜 기간 활약했다. 필리스틴인들의 해상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역시 그 본거지는 이 해안이었다. 이 두 종족은 모두 셈계였다. 그 뒤를 이어 그리스 인들도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경까지 활약하면서 지중해안 여러 곳에 많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 그 영향을 받아 후대의 해양족(海洋族, Sea People)들도 역시 기지 또는 식민 도시를 그들이 드나드는 해안 도처에 확립하게 되었다 (EB, Sea People).

이 해상활동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 후계(後繼) 종족은 역시 시리아 해안에 본거지를 둔 셈계의 아람족(Arameans)과 아랍계의 나바태아족(Nabataeans, 아랍어 al-Anbat)이었다. 물론 이 두 종족은 단순히 해양족이라 부르기에는 그 지칭이 너무나 미흡한 감이 있다. 그들은 육로에서는 대상(隊商) 활동에 훌륭하게 정진했고, 해로에서도 당대 제일의 무역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이었다.

아람족의 상업활동은 중근동에서 기원전 6세기부터 약 150년간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인 아람어(Aramaic)가 당시 중근동의 교통어가 될 정도였다. 이 언어는 아시리아와 고대 이란의 아케메니드 조(Achaemenids, 기원전 550년경~330)를 비롯하여 그 뒤를 계승한 파르티아 조(Parthia, 安息 기원전 247~서기 224)와 사산 조(Sasan, 224~651)의 광활한 영역에서 공용어 또는 교통어로 통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아람족의 뒤를 이은 주역(主役)이 바로 나바태아족인데 수도는 현 요르단의 페트라(Petra, 즉 바위, 아랍어 al-Raqim)였다. 기원전 4세기부터 약 400년간 이 도시는 예멘의 사바(Saba)와 동부 지중해 연안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대상무역 도시였다. 이 도시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과 홍해의 아카바 만을 중심으로 무역활동도 활발했다. 아람족은 기원전 14세기경에, 나바태아족은 기원전 11세기경에 시리아로 이주해 왔는데 함께 살면서 서로 통혼하여 오늘날 시리아인의 조상이 된 것이다.

로마 제국이 기원전 106년에 페트라를 병합한 후 서서히 그 번영도 시들어 갔다. 나바태아족은 아람어를 상용했지만 그 표기법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 아람어문자로 기록했다.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시칠리아 출신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 기원전 57년경 죽음)와 로마 제국의 학자 조세푸스(Josephus, 서기 95년경 죽음)도 그들의 저서에서 각각 언급했다(Hitti, 67~74).

페트라가 쇠퇴하자 시리아사막의 도시 팔미라(Palmyra)가 뒤를

이었는데 그 주민들도 역시 아랍계였다. 팔미라족들의 활동은 서기 130년과 270년 사이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중앙아시아의 중국변경까지 이르렀다. 팔미라는 대상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페트라와 후계 도시였다(Hitti, 75).

한편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에 있는 예멘에서도 아랍계 부족들의 상업활동은 육해상을 막론하고 탁월했다. 사바족(Sabaeans)은 왕국(기원전 750~115)을 세워 지중해의 페니키아인처럼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을 누볐다(Hitti, 49~66). 그들은 향료무역으로 이름을 떨쳤다. 사바 상인들의 해양활동은 409년에 스리랑카에 들어가서 약 2년간 머물다 중국으로 돌아온 법현(法顯)스님의 『남해귀로기(南海歸路記)』에도 살박(薩薄) 상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법현전 38장). 사바인들의 이웃사촌인 미나족(Minaeans)도 북녘의 아카바 만 주변에 거점을 마련할 정도로 대상 내지 해상활동에 정열을 쏟았다.

기원전 115년경부터 이 두 왕국은 기울어지고 뒤를 이어 힘야르(Himyar)족이 일어나 서기 300년경까지 홍해와 아라비아 해에서 약 400년간 그 세력을 누렸다. 예멘의 이 세 아랍부족은 보통 남부 아랍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들은 육로에서도 또한 훌륭한 대상이었다. 이상의 세 남부 아랍인들은 사막의 아들이면서 또한 바다의 아들이었다.

위에서는 여러 다양한 아랍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상업활동 특히 해상무역활동을 소개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랍족은 다양하기에 그들 모두를 일률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막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아랍인 가운데는 오아시스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도 있었고 주변의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영위하는 베두인(Bedouin)도 많았다. 아랍족은 과연 어떤 종족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파악과 또 역사서의 기록과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보는 것이 지난 1000여 년 동안 중동 이슬람권 과 한반도 간의 교류관계와 또 아랍인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아랍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아랍어를 모어(母語)로 또는 제일 언어로 구사한다면 대체로 아랍인으로 규정한다. 아랍인들은 현재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살았다. 물론 그 대부분은 사막이나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했으나 일부는 오아시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정착생활을 영위했다. 또 다른 일부는 해변에 살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기에 배를 만들어 물고기도 잡고 근해에서는 항해도 했다.

즉 북녘의 동지중해 연안에 거주한 아랍계의 나바태아족 등은 그 입지적 조건을 살려서 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상대로 교역했으며 예멘을 기지로 한 사바족 등은 홍해, 페르시아 만, 아라비아 해를 포함한 인도양에서 해상활동을 수행했다. 그렇다고 하여 육로에서 대상활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에는 북녘의 나바태아족과 팔미라족이 그 입지적 장점 때문에 주도권을 잡았다.

아랍이란 용어는 본래 고대 페르시아어의 'Arab'ya에서 나왔다. 이것은 본래 지명인데 메소포타미아의 서쪽과 남쪽 땅을 가리켰

다. 그러나 아라비아 반도가 너무 크고 넓기에 고대 유럽 문헌에서는 그 지형에 따라 이 땅덩어리를 세 지역으로 나누어 불렀다. 즉 인도양 해안 지역(현 예멘과 오만)을 <축복의 아라비아(Arabia Felix)>, 내륙 지역(사우디아라비아)을 <사막의 아라비아(Arabia Deserta)> 및 북서부(요르단, 시리아 일부)를 <페트라라의 아라비아(Arabia Petra)>라 칭했고 그 주민을 모두 아랍인이라 기록했다(Dan Gibson, Arabia 1). 아랍인에 대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아시리아 왕 샬마네제르(Shalmaneser) 3세의 치세 6년째(기원전 853)의 업적과 구약성서의 창세기(10장1~6절 13~18, 25~30)에 나와 있다(Dan Gibson, Arabia 4). 즉 아라비아 반도의 지리적 개념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아랍인의 그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원상으로 보면 아랍인은 사막의 거주민을 뜻하기 때문에 인종과 국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아라비아, 시나이 및 시리아 사막의 거주자도 이 명칭에 포함된다. 또한 언어상으로 보아도 아랍어를 모어로 말하면 누구나 아랍인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랍어를 모어 또는 상용어로 말하는 사람 모두를 일반적으로 아랍인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랍어 상용자(常用者) 모두가 그 조상 때부터 아랍어를 상용한 것은 아니다. 그 대다수는 역사의 변천과 시대의 흐름 속에 유력한 언어인 아랍어에 압도당한 것이다. 언어학적으로 보아도 아랍어는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으로 나뉘나 북부 쪽의 우세로 남부 방언은 사라졌다. 또한 북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아랍인이라 자처했다(Dan Gibson, Arabia, 4).

또한 무슬림 전통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아랍인은 아브라함(Abraham)의 아들 이스마일(Ismail)의 후손이라 한다(Ibn al-Kalbi, Jamharat al-Nasab). 더구나 현대의 계보학자와 역사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랍인은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북부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랍계보 학자들은 아랍인을 두 부류로 나눈다. 즉 본래의 아랍인('aribah)과 아랍화된 아랍인(must'a'ribah)인데 앞쪽은 까흐탄(Qahtan 또는 Joktan)의 자손이고 예멘의 사바족(Sabaeans), 미나족(Minaeans) 및 힘야르족(Himyarites)이 이에 속하고 또 뒤쪽은 아드난(Adnan)의 자손인데 히자즈족(Hijazis), 나즈드족(Najdis), 나바태아족(Nabataeans), 및 팔미라족(Palmirenes)으로 갈라졌다고 알려져 있다(Hitti, 32).

유럽 고전에서도 아라비아와 아랍인이란 용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또 막연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남부와 북부 아랍인들을 구분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역사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Herodotus, 기원전 484경~425경 역사, 제 3권)인데 그는 아라비아 반도의 개념에 반도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에다 심지어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우프라테스 강 하류의 늪 지역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그 거주민 모두를 아랍인이라 불렀다(Dan Gibson, Arabia, 7). 이상과 같이 아랍인의 활약상을 개괄해 보면 기원전 500년경부터 서기 1500년경까지 거의 2000년 동안에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들은 장사와 거래를 위해서는 바다와 물을 가리지 않고 이윤이 생기는 곳이면 어디든

지 찾아 다녔다. 물론 그 부족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 고전에서는 때로는 부족명칭으로 때로는 아랍인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사막의 험난한 환경을 극복한 용맹심으로 바다에 도전하여 결국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랍인들의 천부적 상술은 무함마드라는 위대한 상인출신 예언자가 배출됨으로써 한층 더 커다란 자극을 받아 촉진된 것이다. 그들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여 국가적 지원마저 받게 되자, 그들의 상업활동은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이슬람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다) 해로(海路)

a) 인도양상의 교역과 항구

인도양은 인도아대륙(Indo-subcontinent)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 동인도양은 벵골 만을 통해 말라카 해협과 연결되어 있고 서인도양은 아라비아 해, 홍해, 페르시아 만 등을 끼고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나일 강 및 인더스-갠지스 강 등의 고대문명발생지를 연결해 준다. 또 이 대양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과 중근동-유럽 문화권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에 고대와 중세시대는 물론 심지어 오늘날까지 한반도와 중근동 사이의 문물교류는 모두 이 대양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도양의 해양사(海洋史) 연구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우선 자료수집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남부아랍어, 타밀어, 중국한문 등 여러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능력의 한계를 넘었기에 집단적 조직적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이 여러 언어의 자료마저 단편적이고 그 양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다 그 질도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

유일하게 서기 70년경에 나온 『홍해 항해기(The Periplus Maris Erythraei)』는 약 8만 단어로 구성된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지은이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리스어를 모어로 하는 상인이란 사실은 이 책을 읽어 보면 짐작이 되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 내용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인 이집트의 홍해 연안 항구 베레네케(Bereneké)를 기점으로 삼고 동아프리카, 페르시아 만과 인도양상의 교역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서술이 너무 자상하여 지은이가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책은 모두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18절까지는 이집트에서 탄자니아 해안까지 남북(南北)항로 상황을 기술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서(東西)항로에 할애했다. 즉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따라 페르시아 만과 인도의 서부 해안의 각 곳을 묘사했다. 여기서 언급된 지명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생생하여 직접 보지 않고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비단을 생산하는 내륙 도시 티나(Thina)가 있다는 언급도 있어 중국에 대해서도 얼핏 알고 있었던 것 같다(Periplus, 64절).

이 작은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인도양을 횡단하는 직항로를 발견했다는 언급이다. 즉 히팔루스(Hippalus)라는 항해사는 아랍인들로부터 인도양의 계절풍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어 로마 제국의 영역인 이집트와 인도사이를 연안항로 대신 직항로를 발견하여 바로 항해했다(Periplus, 57절, 간수, 495). 여기서 명백한 것은 아랍인과 인도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절풍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랍인의 항해술 수준도 뛰어 났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의 교류는 기원전 2500년경에 육로와 연안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문명이 쇠퇴하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기원전 1000년경에 이 해로가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연장되어 이집트의 홍해 연안까지 이르게 되었다(Karttunen, India 11~15).

그 결과 많은 인도상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에 도입되었고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강과 대상로를 통하여 동부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했다. 물론 당시 인도양의 무역규모와 교역품목을 확실한 증거(典據)를 통하여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도원산인 쌀, 향신료 및 가축류(뽕추 등을 한 소와 염소를 비롯한 가금류) 등이 중근동 일대에 보급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원산의 후추와 생강의 명칭이 그리스어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언어에 차용된 점을 생각해 보아도 인도상품의 서진(西進)은 프톨레미 조의 이집트 통치기간

(기원전 306~30)에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Karttunen, India 26f).

프톨레미 조 시대에 이집트 최대의 홍해안 항구는 베레니케(Berenike 또는 Berenice)인데 프톨레미 2세 필라 델푸스(Ptolemy II Philadelphus)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왕은 어머니를 기리려고 이 항구를 어머니의 이름에 따라서 명명(命名)했다. 이 항구는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주로 로마 제국시대부터 초기 이슬람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번성했다. 남부 인도의 무지리스(Muziris, 현 Malabar주의 Paravur 주변)항과 주로 교역했기에 최근에 그것을 증빙하는 많은 유물들이 몇몇 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www.nfobase.com/html/excavations-at-berenike-egypt.html).

기원전 1000년에서 약 500년 동안에 이집트와 인도와의 교역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북부 인도에서 남부 인도로 거래 지역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즉 남부 인도 산물인 옷감, 진주, 특히 후추에 대한 수요가 지중해 해안 지방에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북부 인도의 구자라트(Gujarat) 지역에는 기원전 1000년경에는 많은 항구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연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 지역의 항구들이 남부인도와 페르시아 만 내지 홍해 연안 사이에 중간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계무역지의 역할을 맡았다.

아라비아 해와 접한 구자라트 지역의 해안선은 매우 길어 1,660킬로미터나 된다. 이 해안선을 따라 중세에는 84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카츠츠하(Kachchha) 구역의 만다비(Mandavi) 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의 항구에

대해서는 인도의 역사서적 마하바라트(Mahabharat, 두 가문 간의 권좌(權座)를 노리는 투쟁을 노래한 신화적인 서사시이다. 특히 Bharatas 전투를 웅변적으로 묘사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대체로 기원전 5세기부터 서기 400년에 이르기까지 변천 발전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로도 번역되었고 불교적 요소가 가미되었다)와 하리반쉬 푸라나(Harivanshi Purana, Mahabharat의 부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 갈라지(Galazy)는 자신의 저서인 『Batiyas』에서 카즈츠하로 가는 항로를 서기 150년경에, 또 다른 그리스의 학자 페르야크사(Peryaksa)도 246년경에 각각 기술해 두고 있다(Ancient ports of Gujarat, www.gisdevelopment.net/application/archaeology/archs00).

그러나 항해술과 직항로의 발견으로 인도, 아랍, 로마의 상선이 남부 인도로 직항하자 구자라트 지역의 항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 되었다. 특히 후추는 2세기에 들어와 지중해 연안 주민에게 일상품이 되었다. 그 결과 종전의 북서 인도와의 교역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남서인도의 항구 예를 들면, 무지리스와의 교역은 한층 더 증대했다.

인도까지의 직항로 개설에 대한 긴요성은 서기 1세기경의 로마 제국의 고위 행정관 대(大) 폴리니우스(Pliny the Elder, 23~79)의 저서 『박물지(Natural History)』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중간 상인의 제거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단거리, 즉 해안선 항로 간의 교역으로 인도 상품이 이집트나 이태리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중간 상인의 손뿐만 아니라 항해로도 자주 바꾸어야 했다. 그때마다 비용이 더 들어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인도와

의 직항로 개설로 인하여 이 양 지역의 상인들은 수입품을 종전보다 훨씬 더 값싸게 구입하여 판매했으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Pliny, Natural History 6. 101~106 : Burstein 2).

기원전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정복되어 후견을 받게 된 이집트의 프톨레미 12세(Ptolemy XII, 재위 기원전 80~58과 기원전 55~51)는 수도 알렉산드리아에다 홍해와 인도양 사령부(Commander of the Red and Indian Seas)라는 관청을 설립했는데 그 주된 임무는 인도와 교역하는 선박의 안전운행과 관세부과 및 징수에 있었다.

직항로 개설의 긴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서두른 쪽은 인도인데 프톨레미 조의 이집트 지배층도 이에 호응하여 공식사절을 두 번이나 인도에 파견했으며, 또 해적의 출몰을 방지하기 위해 홍해입구에 위치한 소코트라(Socotra) 섬에 관료를 주재시켜 홍해와 인도양의 항로에 안전을 도모했다. 이 섬에는 인도인과 아랍인 정착촌도 있어서 각각 자신들의 선박을 돌보고 물품의 하역을 도맡고 있었다(Strabo, Geography 2, 3, 4).

이러한 교역이 더욱 촉진되어 로마와 인도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기원전 20년경에 맺어져 인도사절이 로마를 예방하게 되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조를 정복하여 예속한 지 불과 10년 만이었다(Charlesworth, 140~141). 그러나 이 사절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사료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직항로 개설의 축하와 교역량의 증대에 있었던 것 같다. 이 상황을 미루어보아 직항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 홍해와 인도간의 교역은 해안선을 따라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바태아인이나 이집트인이 기원전에 이미 인도양을 항해했다는 사실은 경이롭지만 어느 쪽이 먼저 항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인도양 연안을 따라 일주한 항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조차 그 확실한 근거를 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 기원전 484~428)의 저서 『역사(Historia)』에 의하면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이 연안선의 항해자는 이란의 한 장군이였다.

고대 이란의 아케메니드 조(Achaemenids)의 다리우스 대왕은 장군 스킨락스(Scylax of Caryanda)에게 인더스 강과 그 하구로부터 홍해로 가는 항로의 탐험을 지시했다. 장군은 우선 이 강의 상류로 가기 위해 육로로 카불 강에 갔다, 그곳에서 인더스 강 상류에 도착했다. 거기서 강물을 타고 내려와 하구의 바다에 이르렀고 다시 그곳에서 범선을 타고 서쪽으로 출발하여 이미 잘 알려진 페르시아 만을 지나 아라비아 해를 거쳐 홍해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결국 오늘날 스웨즈 인근의 아로시노(Arsino)에 도달했다([www. archeologia.com/romannavy/illyrian.html](http://www.archeologia.com/romannavy/illyrian.html)).

또한 그리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제독 네아르쿠스(Nearchus)는 기원전 325년 9월 원정해군을 이끌고 남서 계절풍의 시기에 맞추어 인더스 강 하구에서 유프라테스 강 하구까지 항해했는데, 도중에 페르시아 만의 북쪽 해안도 탐험했으며 바스라 주변을 항구로 활용했다(Dan Dibson. Parallel 2, 간수, 490).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든 기원전 3000여 년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양쪽 강변에 배가 정박하여 화물을 풀 수 있는 곳

이 항구의 기능을 했을 것이다. 그 후 고대 이란의 아케메니드 조(Achaemenids, 550~330)와 사산 조(Sasanids, 226~651) 시대에는 파르스(Fars) 주(州)가 수부(首府)가 되었기에 수도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이란명 Dakht-e Jamshid)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쉬르(Bushihir)와 시라프(Siraf)가 관문의 역할을 했다.

부쉬르는 미디어(Media)와 아케메니드 조 시대에 이미 정착촌이 들어섰다. 그 뒤를 이은 파르티아 조 시대에는 Ardashir란 이름으로 알려질 정도의 중요한 항구로 성장했다. 그 후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은 Riv-e Ardashir로 다시 Rey Ardashir로 바뀌었으며 또 요새를 만들어 해상침입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슬람력 19~22년(서기 641~644년)에 아랍군의 부쉬르 침입은 쫓기는 이란의 사산 조에게는 운명적이었다. 부쉬르 전투는 이란군이 637년의 까디시야 전투에서 결정적 패배를 맞은 후 최대의 격전이었는데, 여기서 또 패하자 재기불능(再起不能)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시대에 들어와서 부쉬르는 쇠퇴한 반면에 시라프는 융성해 갔다. 시라프는 부쉬르에서 동남쪽으로 약 2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만의 항구 도시로 현재의 이름은 타헤리(Taheri)이다. 시라프에 대한 기록은 이븐 알 파끼가 시라프의 배가 인도와 교역한다고 언급한 것이 처음이다. 무역상 슬레이만(앞의 27쪽과 29쪽 참조)도 거의 같은 시기에 그의 저서 『중국과 인도소식』에서 시라프를 언급했다(Hitti, 343).

시라프에서 몸소 무역에 종사한 아부 자이드 알 시라피(Abu Zaid al-Sirafi, 877~916)는 중국 의 주조화폐가 시라프의 시장에 통용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무역은 878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로 무슬림 상인들의 대다수가 살해당한 후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라프는 977년에 일어난 지진(地震)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된 후 상인들이 대부분 떠나자 쇠퇴해 갔다. 시라프의 뒤를 이은 항구가 북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카이스(Qais) 섬이었다. 19세기 이후 여러 답사단이 시라프를 방문하여 옛날의 번영을 확인했다(www.sirafcongress.ir/intro.htm).

사산 조 시대에는 부쉬르가 순수 항구로써의 교역물품 하역작업을 맡은 반면 시라프는 군수품과 군의 이동을 전담하는 기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란이 7세기 후반에 아랍인에 정복되어 이슬람화된 후 우마이야 조(661~750)와 압바시아 조(750~1258) 시대에는 대외 무역항으로 한동안 번창하다가 부쉬르는 바스라와 너무 인접해 위치했고 시라프는 자연 재해로 결국 둘 다 쇠퇴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뒤를 이은 셀루키드 조(Seleucids, 312~361) 시대에는 수도 셀루키아(Seleucia)가 티그리스 강변에 자리 잡아 항구 기능도 도맡고 있었다. 그러나 사산 조가 무슬림 아랍군에 의해 망하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이라크의 교역중심은 새로운 병영 도시(amsar)인 바스라로 넘어 갔다.

이 도시는 제2대 할리파 우마르 이븐 하تاب(Umar b. Khattab) 때인 이슬람력 14년경(서기 635)에 창건되어 그 인구가 초기에는 불과 천 명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급속히 팽창하여 전성기인 8세기에 들어와서 20만 명 정도로 증가했으며 또한 아랍어문학의 대가 하

산 알 바스리(hasan al-Basri) 같은 인물을 배출하는 등 학문의 도시로도 이슬람 세계에 명성이 높았다.

더구나 바스라(未羅)는 천일야화(千一夜話)에서 언급된 뱃사람 신드바드의 도시로 이름 날 정도로 유명한 항구였다. 특히 압바시아조의 수도 바그다드와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배경에 힘입어 서기 800년경에서 1200년경 사이에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중국 상선도 빈번하게 출입했다(Daryae, Persian Gulf, 간수, 499).

중국 상선이 빈번하게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을 드나들게 되자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동부의 페르시아어권과 서부의 아랍어권에 'sombak'과 'sunbuk', 즉 선박(船舶)이란 단어가 각각 들어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비록 이 어휘는 일상용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앞의 두 나라말 사전에 수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가히 그 빈번도를 가늠케 한다. 또한 이 낱말이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에 들어간 것은 곧 중국과 이슬람권과의 밀접한 해양교역관계를 증명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남중국의 항구 천주(泉州, Zaytun)를 논할 때 더욱 자상하게 취급했다(아래 <뒤의 157-158쪽 참조>).

또한 서기 기원 전후의 시기에 아랍인들 가운데 최초로 인도와 스리랑카까지 항해한 부족은 나바태아인이란 주장이 최근의 학계에 대두하여 논란을 일어 키고 있다. 비록 나바태아인들은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나 그들이 남긴 족적은 수도 페트라를 비롯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출입한 지중해, 홍해 및 아라비아 해의 여러 항구에 드나들었던 그들의 기지에 그 흔적으로

상당한 양이 유물로 남아 있다.

특히 나바태아인들이 건립한 신전이 이탈리아, 터키, 이집트 등의 지중해 연안에 산재해 있으며 또한 홍해와 아라비아 해 연안 전역에 그들의 발자취가 흩어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해상활동의 방대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인도양 횡단 항해술, 선박건축술, 또 교역량의 방대함도 그 증거이다. 또한 모항(母港)으로 기점으로 되었던 아카바 만의 아일라(Aila) 항을 비롯하여 해외기지로는 이집트의 홍해 연안 항구 모차(Mocha 또는 Mouza), 예멘의 카네(Cane) 등도 그 방증이 되고 있다.

모차는 서기 20년경부터 150년경까지 매우 분주한 항구였다고 추정되며 반면에 카네 항은 아덴(그리스 명 Eudaemen) 항이 파괴된 직후 인도와 스리랑카 더 나아가 중국과도 교역한 항구로 수입된 인도상품 때문에 융성해졌다는 학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는 스트라보(Strabo)의 서술에 두고 있다(Dan Dibson, Who were the Arab traders? 7). 그러나 물증과 전거가 가장 확실한 홍해의 이집트 쪽 항구는 베레네케임이 알려졌다(Baldrige, Bereneke 3).

나바태아인들이 드나든 인도의 대표적인 지역은 케랄라(Kerala, 인도명 Keralaputra)의 무지리스(Muziris)와 코칸(Kokan, 인도명 Aparanta)이다. 무지리스는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5세기까지 약 400년간 인도와 로마 제국의 이집트령 베레니케 간의 교역을 전담(專擔)한 역사적인 항구였다. 오늘날 페리야르(Periyar) 강 하구의 파라부르(Paravur) 근처에 있는 파타남(Pattanam)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말라바르 해의 이 항구는 고대인도의 상감(Sangam, 고대

타밀어로 된 시집으로 신화를 노래한 것이다. 서기 500년 이전에 형성되었다) 문헌과 『에리트리아 해의 항해기』의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번창했음은 확실하나 아직 그 유적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항구의 정확한 위치는 크랑가노르(Cranganore) 근처의 남서 해안에 있었다고 한다(Hourani, 136). 하지만 베레네케의 인도 측 상 대역으로써 무지리스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정도로 한때는 밀접하게 교역한 것으로 보인다.

케랄라의 옛 항구 케랄라푸트라(Keralaputra)에는 바윗돌에 기원전 3세기에 새겨진 글이 몇 자 있는데 그것은 곧 아랍인, 그리스인 및 로마인이 출입했다는 증빙으로 꼽히고 있다. 이 항구는 마우리아 왕조(Mauryan Dynasty, 기원전 321~185)의 제3대 국왕인 아쇼카 대왕의 통치시기(Asoka, 재위 기원전 265~기원전 232경)에 이미 개항되어 운항되고 있었다(<http://nabataea.net/india2.html>).

이 항구는 기원후 1세기경에 이미 아랍인, 그리스인 및 로마인에게 향신료 특히 후추 가루 때문에 잘 알려졌다. 이 지역은 그 후 약 500년간 여러 왕조의 손을 거쳤으나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교역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나바태아인을 비롯한 아랍계 상인들이 향신료 구매차 드나들었다(www.hindu.com/2004/03/23/stories/2004032303340500.htm).

서기 1세기경에는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이주했으며 또 시리아 정교도(Syrian Orthodox Church)의 역사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사도 토마스(St. Thomas the Apostle)도 이 지역을 방문하여 포교했다. 특히 말라바르 해안과 오늘날의 마드라스 지역에서 활약했다고 한다.

콜람(Kollam)은 한때 데싱가나두(Desinganadu)라고도 불렸다. 이 항구는 말라바르(Malabar) 해안의 마드라스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로 급성장했다. 무역상 술래이만 알 타지리는 9세기에 지은 그의 『중국과 인도 소식』에서 거대한 중국 상선이 광주에서 페르시아 만으로 가는 길에 이곳을 들렀다고 했다. 또한 베니스 출신의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도 몽골 황제 쿠빌라이 한에게 봉사하다 귀국길에 원나라 관료의 자격으로 콜람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당, 송시대에는 중국인의 정착촌도 있었다고 한다(www.ananthapuri.com/kollam.asp).

코칸(Kokan) 지역은 서쪽에는 아라비아 해 동쪽에는 서 가트(Western Ghats) 사이에 있는 평야인데 그 해안선의 길이는 약 530 킬로미터이다. 오늘날의 뭄바이(Mumbai, 옛 이름 Bombay)도 이 해안에 포함된다. 이 지역의 항구에는 아랍 무역상들이 이슬람등장 이전부터 역시 향신료 구매차 자주 드나들었고, 또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에는 이 지역으로 이민해 왔다. 다방면에 박식한 - 수유티(al-Suyuti, 1445~1505)에 따르면 최초의 무슬림 이민은 699년에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아랍 정착지가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인도 아대륙에 생긴 최초의 아랍 내지 무슬림 정착촌으로 꼽히고 있다(Khalidi, Kokan Muslims).

아랍 무역상들의 출입으로 이 지역의 힌두왕국들은 변명을 누렸다. 그 증거는 서기 7세기경에 건립된 이 지역의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해안의 엘레판타 섬(Elephanta Islands)과 칸헤

리(Kanheri)에 있는 두 동굴사원의 규모가 매우 웅장한데서 볼 수 있다(Dibson, Arab Ports of Call in India, 1). 이 정착촌은 아랍 내지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결과 먼 훗날에 델리 술탄 조(Dehli sultanate)와 무굴 제국(Mughul empire)과 같은 무슬림 왕조를 배출한 산파역을 맡게 된 셈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덕으로 고대와 중세에서는 중계 무역지로서 매우 중요했다. 즉 인도의 동부 해안은 물론 서부 해안 도시들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는 페르시아 만과 홍해의 여러 항구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국들과도 또 교류했다.

또 더 멀리 중국과의 교역도 추구했다. 당시 스리랑카의 주된 항구는 남부 해안에 위치한 고다바야(Godavaya)인데, 주로 중국의 비단과 로마와 중동에서 온 상품이 교환되었다. 이곳에서 독일의 본 대학교 고대 루후나(Ruhuna, 스리랑카의 남부 지역) 왕국 발굴 조사단이 1994년 이후 답사 발굴해 왔다.

그 결과 본래 목적으로 삼은 지중해행 중국비단의 중간 기착점으로써의 고다바야를 증빙하기에는 그 물증의 흔적을 찾지 못해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당대(唐代)의 중국과 사산 조 시대의 이란 도자기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동전이 나왔기에 중계항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항구는 이슬람이 등장하기 직전인 6세기까지 동서 간의 교역으로 매우 활발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심홍색 석류석(石榴石, garnet)이 잘 알려져 있는데 주로 유럽으로 나갔다. 당시 유럽의

묘지에 묘석(墓石)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의 수출품목으로는 향신료인 후추가 있었다(www.lankalibrary.com/geo/godava.htm).

또한 고다바야 항구라는 이름은 『마하밤사(Mahavamsa)』(팔리 pali 어로 된 책인데 그 뜻은 큰 연대기다. 내용은 스리랑카의 불교도 왕들의 치적을 읊은 것이다. 기간은 Vijaya왕 치하의 기원전 543년부터 Mahasena왕 치하 서기 334~361년까지 약 800년에 걸친 대역사서이다)의 열두 왕에 대한 장(章)과 『에르트리아 해 항해기』라는 책자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항구는 서기 1~2세기에 번성한 곳인데 아랍 쪽과 중국 쪽의 배들은 이 항구를 넘어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넘어 가는 일이 드물어 동서 간의 중계무역항으로서 매우 중요했다.

스리랑카의 고대 항구 가운데 고다바야 항 다음으로 오래된 항구는 잠부콜라(Jambukola)이다. 이 항구는 오늘날의 이름은 캅케 산투라이(Kankasanturai)인데 주로 북부인도 특히 벵골 만의 탐랄리프티(Tamralipti) 항과 교역했다. 스리랑카의 왕 대바남 피야티사(Devanam-piyatissa)의 사절이 예방차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의 궁전을 향해 출병한 항구도 바로 잠부콜라였다. 인도로부터 부다가야의 불상이 들어온 곳도 이 항구였으며 이것을 기념하여 이 곳에 스리랑카 왕은 사찰을 지었다(W. Stede, Sumangalavilassin part 1, 695).

또한 아소카 왕은 불법(佛法, Dharma)에 의한 호불덕치주의(護佛德治主義)를 내세워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불교포교단을 파견했다. 특히 대왕은 남쪽의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섬나라를 중시하여 왕자 마헨드라(Mahendra)와 여동생 상하미트라(Sanghamitra)를 두 번이나 보내어 포교에 열중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스리랑카는 최초의 불교 전파지가 되었으며 또 동시에 전파된 부파불교(部派佛敎, 즉 소승불교 Hinayana)를 근간으로 삼은 남방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정수일, 썰크로드 387). 이때 이 두 왕족이 드나든 항구도 잠부콜라로 추정된다.

그 후 이슬람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섬나라의 항구는 여전히 동서 중계무역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항구는 마하티타(Mahatitha)인데 그 뜻은 큰 항구이다. 이 도시는 스리랑카의 북서쪽에 아라비아 해를 바라보고 위치해 있는데 남인도의 선박들이 자주 출입했다. 이 항구는 수도 아누르다뿌라(Anurdapura)와 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항구는 7세기 이후에 수도가 북동의 폴론나루와(Polon-naruwa)로 옮겨가고 또 동서교역의 중심이 아라비아 해에서 벵골 만으로 옮겨감에 따라 위축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수도와 거리가 가까운 고칸나(Gokanna)가 더욱 큰 역할을 맡았다. 더구나 남인도의 출라(Chola, 9~13세기 존속) 왕조가 폴론나루와의 점령기간(1017~1070)에 그 식민 지배자들은 물론이고, 독립을 회복한 후에 폴론나루와의 통치자들도 벵골 만과 대 동남아 무역을 더 중시하여 고칸나의 번성은 12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마하티타의 항구로서의 지위가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송(1127~1278) 왕조가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여러 군소 국가들과의 조공무역을 포기한 결과 벵골 만의 중계무역항으로서의 비중은 쇠퇴했지만 그 대신 아라비아 해의 역할, 중근동과의 무역이 증대하자 마하티타는 다시 번성했다(Siriweera, 1f).

벵골 만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항구는 탐랄리프티(한자명, 多摩梨帝) 항이었다. 이 항구는 갠지스 강 하구(河口)에 있었다. 그러나 이 항구의 지형(地形)은 갠지스 강이 범람할 때마다 자주 바뀌었다. 프톨레미는 이 항구를 타말리테스(Tamalites)로 기록했다. 즉 현재 인도의 서벵골주 메디니푸르(Medinipur, 옛 이름 Midhunapura) 현의 탐루크(Tamluk) 시에 있었고 기원전 50년경부터 8세기까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무역상, 여행자, 순례자들이 드나들던 출입문이었다.

동진(東晉)의 큰 스님 법현(法顯, 인도체류기간 서기 399년~414년)이 귀국길에 이 항구에서 배를 탔으며 당나라 때 큰 스님 현장(玄奘, 인도체류기간 서기 629~645년)은 중국 광주에서 배를 타고 인도 땅에 첫발을 밟은 곳도 바로 이 항구다. 그 뒤를 이은 스님 의정(義淨, 인도 체류기간 671~689, 생존 635~713)도 이곳과 연고가 있다. 신라 스님 혜초(慧超 704~787)는 불과 3년 정도 인도에 머물렀지만 그도 아마 인도 땅에 첫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으로 보인다.

이 네 스님은 모두 저서를 남겼는데 법현은 『남해귀로기(南海歸路記)』, 현장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의정은 『서역구법고승전(西域求法高僧傳)』, 혜초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각각 저술했는데 그 속에 탐랄리프티에 대한 기억도 들어 있다.

b) 남중국 해상의 교역

남중국해와 벵골 만 사이, 즉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일찍부터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 간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이 두 나라의 힘이 바다로 뻗어 나갈 때는 항구를 통하여 들어감이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의 위력을 남중국해상에 떨친 항구는 광주였고 인도의 그것은 탐랄리프티를 비롯한 벵골 만의 항구였다.

남중국 해상의 중국 항구로는 광주의 역사가 가장 길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미 사마천(司馬遷)의 저서 『사기(史記)』와 후한의 반고(班固)가 저술한 『한서(漢書)』에도 언급되어 있다. 『사기』에는 광주(당시 이름 번우 番禺)를 단지 물품의 집산지 및 교역상품을 취급하는 항구로서만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한서』에는 이 항구에서 미안마까지의 항로와 항구 이름도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일남(日南, 현 베트남의 요새인 서문 徐聞)과 합포(合浦)에서 출항해 도원국(都元國, 수마트라의 서북안), 읍로몰국(邑盧沒國, 동남 미안마의 다둥), 심라국(諶離國, 과캉 부근의 시라), 부감도로국(夫甘都盧國, 미안마의 부감 고성) 등을 지나 11개월 만에 인도 동남부 해안의 황지국(黃支國, 현 마드라스 남쪽의 Kanchipuram)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한무제(漢武帝, 재위 기원전 140~87) 때 중국은 이 황지국과 교역했으며 한평제(漢平帝, 재위 서기 1~5) 때는 이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다(간수, 310, 492).

광주는 또한 남해로의 시발항이었다. 가탐(賈耽, 730~805 창주(滄州) 남피(南皮)출신으로 당대(唐代)의 사람인데 벼슬로는 지방의 현위(縣尉)에서 대외 교섭의 총관인 홍려경(鴻臚卿)과 지방절도사를 거쳐 덕종(德宗) 때에는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고 많은 저서를 남겼다.)이 동서를 잇는 뱃길을 설명한 저서 『광주통해이도(廣州通海夷道)』에 따르면 당대(唐代)에 들어와서는 대외와 연결되는 일곱 항로 가운데 하나의 출발 항구였다. 즉 광주에서 페르시아 만의 오랄국(烏剌國, Obollah)까지 가는 남해로의

시발점이었다.

이 항로는 크게 4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광주-수마트라-스리랑카(사자국獅子國)-바스라(末羅國)가 각각 제1, 제2, 제3구간이고 제4구간은 몰래국(沒來國, Male, 즉 인도 서남방 해안의Malabar)-아프리카 동해안의 삼란국(三蘭國, 탄자니아의 Bandar u'd Salam)-페르시아 만의 오랄국까지이다(정수일, 61~63, 552).

또한 당대(唐代)에는 광주를 비롯한 여러 항구 도시에는 외국 특히 중동 무슬림들의 선박들이 몰려 왔는데 이들 모두를 시박(市舶) 또는 호시선(互市船)이라 불렀고 또한 그 소속에 따라서 스리랑카면 사자국선(獅子國船)이고 아랍이나 이란의 배면 파사선(波斯船, 즉 페르시아 배)이라 지칭했다. 특히 광주를 포함한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는 아랍인과 이란인을 가리켜 박주(舶主)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외국선박 가운데 이란인 소유의 것이 가장 많았고 또한 인도 양을 항해하는 중국선박에서조차 유능한 이란인을 선장으로 고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인의 항해와 선박에 대한 선구적 역할은 심지어 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다. 중세아랍어의 항해 내지 선박 용어도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점이 바로 그 근거이다(Hourani, 65, 정수일, 156).

광주는 또 향신료를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및 중근동에서 수입하였다. 그중에서도 유향(乳香 Frankincense, 아랍어로 Luban 또는 Kunder인데 Kunder는 산스크리트어의 Kunduru에서 유래)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하드라마우트(Hadramout)나 질리드(Gilead) 아니면 팔레스티나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향은 불교가 신라

사회에 보급됨과 더불어 널리 애용되었다. 특히 1966년에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아랍산 유항 3포(包)가 발견되었다(간수, 239~240, 정수일, 596).

또 다른 품목은 로만글라스였다. 특히 광주 부근을 비롯한 중국의 동남 해안 일대의 몇몇 한묘(漢墓)에서는 프톨레미 조(기원전 323~30) 치하 이집트에서 생산된 전기 로만글라스도 최근(1970과 1980년)에 발굴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정수일, 226).

사실 유리제조의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유리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만글라스는 섭씨 1000도 이상을 가열했기에 그 강도와 투명성이 뛰어났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역에는 물론 대외에도 대량 수출되었기에 뱃길과 땅길을 따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현재 문명교류사 연구학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날 신라고분에서도 로만글라스가 발굴되어 과연 그것이 중근동에서 온 원(原)제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당나라 때의 광주에는 <번방(蕃坊)>이라는 서역계 상인들의 집단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호상(胡商) 또는 상호(商胡)라 불리었다. 또한 호상이든 동이(東夷)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살기 위해 당나라에 이민해 온 모든 외국인을 가리켜 번객(蕃客)이라 이름 붙였다. 반면에 당에서 외국으로 이민나간 사람을 주변(住蕃)이란 조어(造語)를 만들어 지칭할 정도로 교류가 많았다(정수일, 122).

호상 중에는 이란계와 아랍계 무슬림 상주인구도 많아서 758년에는 항만을 관리하는 관료들에게 불만을 품은 나머지 관아(官衙)를 기습할 정도였다. 또 당나라 말기에 혼란한 틈을 타서 도처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황소(黃巢)의 난’(875~884)이 창궐하고 있을 때 광주의 외국인 거주자들 특히 아랍계 이란계 무슬림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기 878년에는 황소의 반란군이 쳐들어와 12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피해를 당했다하니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광주 인근에 살았는지 짐작이 간다. 이 외국인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교도와 조로아스터교도가 끼어 있었다(El, Khanfu 참조).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당의 관료채용 기준에는 약 반(半)은 한(漢)족 출신이고 나머지 반은 소위 여러 변방 민족 출신이었다. 그것이 가장 당의 국익(國益)에 이바지했다. 즉 당의 정권 유지차원에서 가장 적절했다. 또 왕조의 안전에 유해(有害)하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것 같았다. 그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당나라의 여러 대도시 특히 항구 도시에 살았다. 또 중국에서 활약한 한겨레 가운데 고구려 유민(流民)의 후손 고선지(高仙芝)와 백제의 유민 흑치상지(黑齒常之)가 각각 장군으로 승진했고,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을 비롯한 여러 유학생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고, 신라의 고승 혜초 등 수많은 신라인들이 중국에 정착하는 현상에서도 당의 대외국인 정책의 관대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광주에는 몇 해 전(2004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고려인 라마단(Ramadhan)의 묘비가 발견되어 한겨레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묘비석은 1985년 7월 광저우(廣州) 구이화강(桂花崗) 부근에서 도시 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 도중에 이슬람교도의 옛 묘역인 청전선선구무(清真先賢古墓)에서 발견되었다. 묘비석의 높이는 62센티미터이고 폭은 42센티미터이다. 앞면의 아랍어 비문에는 먼저 코란 2장 255절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신원에 관한 것이나 일부가 판독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좌우측면에 있는 한자비문은 완벽하여 아래에 우선 번역했다.

“다두루(大都路) 완평현(斄平縣) 청취안관(靑玄關) 주인 라마단(刺馬丹)은 고려사람이다. 나이는 38세이고 지금 광시다오(廣西道) 룡저우(容州) 루촨(陸川)현의 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 지정(至正) 9년(1349) 3월 23일에 죽었다. 8월 18일에 광저우 성북 류화교(流花橋) 구이화강(桂花江)에 묻고 비석을 세웠다.”

다두루 완평 현은 오늘날의 남부 베이징(北京)이고 저택의 이름은 청취안관이다. 광시다오 룡저우 루촨현은 그의 임지(任地), 즉 근무처이고 직급은 지방관, 즉 군수나 시장에 상당하는 다루아치라는 원나라의 벼슬에 봉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저우 성북 류화교 구이화강은 그의 묘지가 있는 곳의 지명(地名)이다. 여기에다 아랍어 비문 내용 가운데 위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면 라마단은 1312년(충선왕 4)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알라웃딘이란 사실과 아랍어 비문을 쓴 사람이 시리아를 여행한 아르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상에서 추정되는 것은 고려는 원(元)의 부마국(駙馬國)이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두 왕실 간의 통혼과 고려왕의 북경 거주도 이미 라쉬드 알 딘의 『집사』 가운데서 고려를 언급한 인용문을 설명했을 때(앞의 105쪽 참조) 이미 밝혔다. 원과 고려의 두 왕실 사이가 매우 밀접함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했고 또한 원나라의 상류층에는 상당수의 무슬림이 있었다. 그들이 한족(漢族)보다 더 좋은 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고려 여인들과 몽골 유력자와의 혼인도 다소 있었다. 예를 들면 귀족인 김심(金深)의 딸과 기자오(奇子璈)의 딸은 각각 원의 황제 진종(晉宗 1324~28)과 순제(順帝 1333~1368)의 황후가 되었으며 또 장인 경(張仁岡)의 딸은 원의 세력가인 평장사(平章事) 아흐마드(阿哈馬, 무슬림의 남자 이름)의 부인이 되었다. 또한 원의 말기에는 궁녀의 과반수가 고려 출신 여인이었다(이희수, 116~118).

여기서 원의 조정에는 세력가 가운데 이슬람 신자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의 수도 개경에도 무슬림들이 취락을 이루어 살면서 고유의 의관(衣冠)과 종교를 지켰다. 더구나 예궁(禮宮)이라는 모스크도 있었다 하니, 한겨레 가운데도 이슬람 개종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하지만 라마단과 그의 부친 알라웃딘의 신원에 관한 한반도 측 사료가 거의 발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중국으로 갔으며 또 어떻게 이슬람에 개종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방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단지 그의 묘비에서 그가 고려인으로 북경에 저택도 가졌으며 가택의 명칭도 있

고 또한 다루아치라는 벼슬을 누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가문은 고려의 귀족층에 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측근임은 분명한 것 같다(이희수, 147).

광주 다음으로 중동의 무슬림 상인들이 많이 찾아 든 항구가 천주(泉州)이다. 이곳은 이미 예언자 무함마드와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예언자가 한창 포교 사업에 종사하던 618년에 중국해의 연안에 아랍 상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 사람의 제자를 중국에 보냈다. 즉 한 명은 광주로, 두 명은 천주로, 나머지 한 명은 그보다 조금 후에 양주(揚州)로 파견했다. 그들의 무덤도 현재 남아 있으나 학계에서는 아직 그것만으로는 네 선교사의 파견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충분치 않다는 평이다.

또한 1004년 또는 1009년에 천주시의 중심가에 세워진 모스크 건물은 아직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더구나 송(宋, 960~1279)과 원(元, 1271~1368)시대에는 매우 번성하여 중국 제일의 항구로 성장했다. 특히 송대에는 외국인 전용숙소를 설립하여 그 책임자로 현지 출신 아랍인을 임명했다. 더구나 이 도시에는 불교도, 도교(道敎)신자, 힌두교도는 물론 무슬림과 마니교도 및 네스토리야파 그리스도교도(景敎)도 살았지만 종교적 박해나 차별은 없었다. 10세기 전후에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관대한 곳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www.chinats.com/quanzhou/intr1202.htm).

최신의 신문기사(조선일보 2005년 11월 29일자 29쪽)와 같은 해 11월 3일 중국 천주에서 개최된 고대 중·한(中·韓) 해상교류연토(研討)회에

서 예언텐(葉恩典) 복건성 해외교통사 박물관 연구원의 발표논문 <천주와 신라·고려 간의 관계문물사 연구>에서 한겨레의 해상 활동무대가 멀리 남중국해의 천주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 기사와 논문에 따르면 예언텐 연구원은 “천주의 진강(晉江)변에 신라촌과 신라사(新羅寺)가 있었다는 기록이 강희제 때 편찬된 『남안현지(南安縣志)』에 나온다.”고 발표했다. 또 명나라 때 출간된 『팔민통지(八閩通志)』 남안현(南安縣) 사관조(寺觀條)에도 “신라사는 22도(都)에 있는데 송대(宋代)에 세웠으며 명대 홍무 18년에 증건되었다.”고 기술해 있다. 또한 『남안현지』 사암조(寺庵條)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나 단지 현재는 폐사되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도’(都)는 원대의 행정구역 단위라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고려마을의 존재도 확인해주었다. 고려마을은 한자로는 ‘고려조’(高麗厓)라 하고 까오리차오 읽는다. 조(厓)는 마을을 뜻한다. 현재 ‘고려조’는 천주시 남안현 금도진(金淘鎭) 심휘촌(深輝村)에 해당하며 이 촌(村)은 12개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원래 주민의 성씨는 고씨(高氏)였지만 명말(明末)과 청초(清初)경에 엽(葉)씨가 들어와 살자 고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예언텐 연구원은 그의 추정논리를 전개했다. 즉 『안평고씨족보(安平高氏族譜)』와 근래에 중수(重修)된 안계(安溪) 대평향(大平鄉)의 『발해대평고씨족보(渤海大平高氏族譜)』에 서술된 고동치(高東治)란 인물이 “남안(南安) 13도(道)에 이주하였다.”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삼았는데, 도(道)는 행정구역단위이다. 또한 예언텐 연구

원은 고동치의 조상을 발해대평고씨족보를 통하여 역추적인 결과 그 조상은 발해의 요양인(遼陽人)이었고 당희종(唐僖宗, 874~887) 때에 복건성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 후 10세기 중엽에 그의 5세손이 천주 진강 지역으로 옮겨와 정착한 곳이 바로 ‘고려조’라고 논하여 그의 추적을 완료했다.

이렇게 한겨레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천주는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이 드높다. 10세기경에 아랍인들이 중동에서 올리브나무를 가져와 이 도시에 심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올리브 숲으로 변했다. 그 때문에 자이툰(Zaytun, 한자로는 刺桐, 아랍어로 올리브)이라고 마르코 폴로가 별명을 붙여 주어 오늘날까지 서양에서는 이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도시의 번성기에는 중국 과학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나침반, 화약제조법 및 인쇄술이 이 도시에 상주하는 아랍 상인과 배사람들을 통하여 유럽에까지 전해졌다(www.chinats.com/quanzhou/1202.htm).

천주와 중동 간의 교류가 빈번했다는 증거가 중동언어에 까지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사전에 <sunbuk>의 뜻은 배, 특히 작은 돛단배를 가리킨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단순히 돛단배, 즉 범선(帆)으로 풀이하여 그 크고 적음은 도외시켰다. 현재 필자가 구해 볼 수 있는 아랍어 또는 페르시아어 사전에는 그 어원이 불명이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sunbuk>의 아랍어 발음기호는 <sunbuk>, 페르시아어 발음기호는 <sombak>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에 일부학자는 <sanbuq>로 음역했다. 그것은 선박(船舶) 또는 천박(泉舶)의 음역이 아닌가 한다(Hourani, 65).

소화(昭和) 31년에 처음 출간된 『대한화 제고 절차(大漢和諸語輯次)』에 따르면 선(船)은 작은 배를 뜻하고 박(舶)은 큰 배를 뜻한다. 두 글자가 앞뒤로 연결되어 처음 나온 것이 서기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日本書紀)』 송신기(崇神記)이다. 이 송신기 17년 7월 병오삭(丙午朔, 초하루)에 조서(詔書)를 내려 바닷가 주민들이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선박을 만들도록 했다는 구절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다.

즉, 이 선박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이미 720년경에 사용되었으니 한자 문화의 본거지인 중국이나, 한자를 먼저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그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미 이 용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0세기경의 동양 삼국(三國)에서는 이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현재 복건성 지방의 방언(方言)을 민음(閩音)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특히 천주가 위치한 남부방언을 민남어(閩南語)라 한다. 배를 뜻하는 선(船)을 북경 표준어로는 <chuan>이라 발음하는데 대하여 천주 방언으로는 <jun>이라 발성한다. 여기서 영어의 어미(語尾)인 k자가 붙어서 중국의 배를 <junk>라 불러 결국 새 단어가 17, 8세기경에 영어에 도입된 것이다.

더구나 천주의 발음 상황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 즉 한자는 뜻글자여서 소리글자와는 달라 그 발음이 변해도 밝히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중국과 같이 국토가 방대하고 지방마다 방언이 확연히 다른 사실을 고려할 때 10세기 전후 천주 지역에서는 선박에 대한 발음으로도 페르시아어로는 <sombak>, 아

랍어로는 <sunbuk>으로 그 발성이 가능하다고 몇몇 중국어과 전문교수들도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천박(泉舶)이라 함은 곧 천주의 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한국어의 줄임 현상과도 같다. 역시 천박의 중국어식 발음도 위에서 언급한 선박과 같은 근거와 추리에서 페르시아어로는 <sombak>, 아랍어로는 <sunbuk>으로 발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세 이슬람 문헌 가운데 이 논거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료가 10세기의 아랍역사학자 마수우디이다. 그의 저서 『황금초원과 보석광』에 따르면 수많은 중국선박들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들었다 하니(칸수, 499) 배라는 뜻으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차(茶)라는 말이 “chai” 또는 “shai”로 각각 페르시아어와 아랍어에 들어간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천박보다는 선박이 더 근거가 타당하게 보이는 근거는 페르시아어 발음기호로 <sombak>이 중국어 원음에 더 근접한 표기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천주 또는 다른 중국의 항구를 통하여 인도로 출항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도착한 인사도 많았다. 주로 상인, 승려, 관료 또는 여행가였다. 그 중에서도 후대에 기록을 남긴 이도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양인으로는 마르코 폴로, 중동인으로는 이븐 바투타, 동양인으로는 법현, 혜초(慧超), 의정(義淨) 등 여러 명이 여행담을 남겼다.

동진(東晉)의 큰 스님 법현(法顯, 338~423)은 육로로 천축(天竺, 인도)

에 가서 11년간 도를 닦다가 귀국길에 올랐다. 그의 여행기 『남해 귀로기(南海歸路記)』에 그의 귀국 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오릿사 주의 항구 탐랄리프티(Tamralipti)에서 409년에 배를 타고 14일 만에 스리랑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2년간 머물렀다. 그 때 그곳에서 사바 상인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법현전 38장). 그 다음 200명이 탄 대형 중국 상선을 타고 자바로 향했다.

도중에 벌거숭이 거주민이 사는 니카바람(Nikkavaram) 섬도 방문했다. 결국 3개월간의 고난 끝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스마트트라에 도착했으며 거기서 5개월간 체류한 후, 412년 4월 역시 200여 명이 탄 대형 인도 상선을 타고 3개월 만에 중국 산둥성 장광군계(長廣郡界)에 표착했다. 귀국길이 장장 2년 8개월의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에 대한 문헌은 중국의 그것보다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힌두교의 성전 리그베다(Rig Veda)는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양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여신 바루나(Varuna)는 바닷길을 잘 알고 있다(I. 25. 7). 또 상인들은 온갖 곳을 찾아다녔는데 이윤만 생기면 심지어 바다 구석구석도 찾는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I. 56. 2).

또 성전(聖典)에 준하는 라마야나(Ramayana, 힌두교의 주신 라마의 전승 傳承인데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2세기 사이에 집대성됨)의 기행이라는 제목의 서사시에서는 자바(범어, Yavan), 수마트라(범어, Suvarna) 및 홍해(범어, Lohta Sayama)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 책인 『마누 스미리티(Manu Smiriti, 힌두교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지키는 규정과 법칙)』에서도 항해에 관한 소송사건이 많이 들어 있다. 해양 여행의 신(神) 마니 매할라(Mani Mekhala)도 힌두교에서는 숭앙받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일찍부터 인도에서 나온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였기에 19세기에 서구열강의 동진(東進) 전에는 항상 인도의 영향권으로 보였다. 그 산 증거가 바로 엄청난 건축물, 즉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Ankorwat) 사원과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다르(Borobudar) 사원이다.

더구나 11세기 이후 인도아대륙이 이슬람 세력에 휩싸이자 동남아시아도 말레이족 거주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화되었다. 즉, 종교의 돌풍이 이렇게 쉽게 불어 닥치는 것은 곧 인도와 동남아 간 즉, 동남아는 벵골 만 연안과의 해안 교역이 빈번했고 또 항상 인도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에서 인도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주된 이유는 힌두교와 불교와 같은 종교가 현지인들에게 중국 문화 보다 더 매력적인 데 있었다. 더구나 중국은 주변국을 위협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또는 무력으로 점령하여 중국 관료들 보내 직접 통치하였다.

이에 반해 인도는 중국과 같이 중앙에 통일된 정치 세력의 등장이 매우 드물었다. 더구나 인도 자체에도 수많은 언어와 인종으로 뒤섞여 있었기에 설사 통일왕국을 수립한다 해도 해외원정이라는 대역사(大役事)를 일으키기 어려워 항상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벵골 만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인도 세계와 말레이 세계(인도네시아 포함)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한 무제는 기원전 112년에 수군 사령관 양복(楊僕)의 지휘 아래 약 10만 명을 동원하여 광둥 광서 북부 베트남 지역(당시 남월 南越)을 정복하여 구군(九郡)을 설치하였다.

그 후에도 한나라는 이 지역에 관심을 보여 동남아와 동부 인도양의 나라들과 왕래한 사실이 『사기(史記)』 식화열전(殖貨列傳)과 『한서(漢書)』의 지리지(地理誌) 및 『후한서(後漢書)』 등에 그 항해 길과 중간에 들여야 할 항구 이름까지 적혀 있다. 즉 중국은 주변국을 주로 외교로 다스리려고 시도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윤명철, 46).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인도에는 힌두교 또는 불교와 같은 매력적인 종교가 있었기에 동남아시아에 이식(移植)시켰으나 정치력이 따라주지 못해 영속 시키는 데 힘겨웠다. 반면에 중국은 정치력과 무력은 구비했으나 집착력과 흡인력이 강한 자생적 중국 고유의 종교가 없어 동남아를 자신의 문화권에 묶어 두는데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교도 종교로 볼 수 있지만 그 조직과 체제가 허술하고 또 중앙의 통제력이 느슨했다. 즉, 중국 문화의 이러한 허점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슬람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이슬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 있 것이다.

벵골 만에서 남중국해의 광동만까지 이르는 뱃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말라카(Malacca) 해협을 통과하는 것인데 가장 짧은 길이다. 하지만 이 해협에는 해적들이 많아 위험했으나 거리가 가까운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뱃길의 항해에는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 다른 하나는 수마트라 섬을 한 바퀴 돌아 크라(Kra) 지협(地峽)을 통과하는 길뿐이다. 또한 벵골 만과 남중국해의 연안무역은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여러 섬의 국가 형성 즉 문명전달에도 크게 공헌했다. 즉 무역은 경제성장의 열쇠였으며 따라서 무역의 통제가 곧 정치 발전의 열쇠가 되었다. 벵골 만과 남중국해 간의 무역에는 말레이인과 자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두 바닷길의 주변에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소규모의 해운국체(海運國體, Maritime Polity)가 생겨났고 또 이 국체는 동부 인도와 남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amp, Indonesia, 3).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유형(類型)에 따라 기원전 2세기부터 해운 국체가 점차 발전되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영역인 이집트와 인도 사이에 해안 무역로가 확립되고 중국의 한나라가 인도지나 쪽으로 해상무역을 확대하자 서기 2~3세기경에는 무역선의 출입항 주변에 원시적인 국체가 출현했다.

이 국체를 일부 학자는 국가라 부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항구가 메콩 강 하류의 도시 푸난(Funan, 扶南)이다. 이 항구 도시가 번성한 덕으로 순다(Sunda) 해협에는 코잉(Koying)이라는 중계지가 생겨서 동남아 각 지역의 중요 생산품, 특히 목재류와 향신료 수출지로 번영했다.

5~6세기경에 들어와 해운 국체와 소규모 국가가 잡초처럼 동남아에 많이 생겨나 서로 경쟁과 분쟁으로 무역이 불안하게 되자 당(唐)나라는 이 정치적 혼란을 해외 무역활동의 장애 요인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당은 그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특정 군소국에 특혜를 주어 해적의 출몰을 방지하고 무역을 통한 상품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즉 특혜국의 선박에게만 중국 항구의 출입과 정박 허가를 주는 것이었다. 이들 해안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 특혜를 받고자 조공 사절을 당나라 이후 여러 중국 조정에 자주 보냈다.

이 푸난(扶南) 항을 중심으로 생긴 해안 국가가, 곧 푸난(扶南, 캄보디아)이었다. 본래 캄보디아어의 발음으로는 Phnom 또는 Bnam인데, 즉 산(山)을 뜻하였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서기 3세기에 방문한 중국 사절이 그 발음을 듣고 한자로 표기한 것이 푸난(扶南)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다. 즉 산의 나라라는 뜻이다. 여기서 산이란 힌두교 신화에서 신들만이 산다는 메루(Meru) 산을 뜻한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3세기경에는 인도화되어 있었다. 또한 이 중국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www. Guide to thailand.com/thailand-history/funan.htm](http://www.Guide to thailand.com/thailand-history/funan.htm)).

푸난의 역사 연구에는 중국 사료를 비롯하여 타일랜드 만에 접한 푸난의 항구 옥에오(OcEo)에서 발굴된 여러 종류의 유물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유물에는 불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동서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보아도 중요한 것도 나타났다.

옥에오는 전성기에 중국, 인도 심지어 로마 상인들이 드나들었

던 흔적이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는 중국, 인도 유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유물도 상당한 분량이 발굴 되었다. 그 가운데 로마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재위 136~161)의 통치 15년(152)을 명기한 금화도 한 점 나왔다.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재위 161~180)의 상(像)과 이름이 새겨진 유사 금화도 발굴되었다. 후한(後漢)시대에 제작된 유리거울과 인도의 유물로는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가 발견되었다(www.guidetothailand.com/thailand-history/funan.htm, 정수일, 썬크로드 647). 이 현상은 곧 당시 문명의 선진 지역인 인도, 중국 및 로마 제국의 발전된 문명이 그 그림자를 이곳까지 제각각 드리웠다고 볼 것이다.

즉 푸난과 중국 사이에 사절이 오갔다는 보도는 푸난이 이미 그 전에 도시국가로 발전하여 타일랜드와 말레이 반도의 다른 여러 도시국가들을 장악하여 그 종주국(宗主國)으로 군림했고, 또 그 사실을 중국이 인정해 줌으로써 다른 세력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한데 그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도시의 주변 농촌 지역에는 운하가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중국 사절은 “푸난을 가로지르는 운하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긴다.”라고 기록했다. 중국인은 보통 외국인을 곱게 묘사하지 않지만 푸난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기록해준 것 같다. 즉, 푸난의 상류층인 말레이족은 궁전, 금은보화 및 산스크리트어를 닮은 문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곳 주민의 얼굴은 못생겼고 피부는 검은 빛이고 머리칼은 곱슬머리라고 빗대었다. 심지어 이 중국 사절은 별거벗고 걷는 사람이 있다고 푸난 왕에게 보고

하자, 왕은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옷을 반드시 입고 다녀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www.btinternet.com/~andy.brouwer/abrei.htm). 이 사실에서 외교 사절의 방문도 결국 문화 교류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푸난의 이웃 지역으로서는 참파(Champa, 아랍어 al-Sanf, 한자 占婆 또는 占城)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현재의 사이공 주변의 남부 베트남이다. 이 지역은 17세기 후반에 오늘날의 베트남인 안남(安南)국의 남진확장정책으로 병합되었다. 이 참파 지역은 6세기까지 여러 군소국가로 분열되어 있다가 7세기 초에 통일을 이루기도 했다.

이 지역은 8세기 중엽부터 무슬림 상인들이 출입했다고 중세 이슬람 문헌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지만 너무 간결하거나 또는 기사가 서로 엇갈려 조금 혼란스럽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 그 주민의 사회관습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카스트(Castes)제도도 있었다 한다. 무슬림 상인들도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중국과 인도 등 주변 지역과 교역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슬람도 포교되어 이곳 출신 무슬림은 958년과 960년에 각각 이 왕국의 사절로 중국조정에도 파견되었다(EI, al-Sanf, Cam, Hudud, 86, 240).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푸난 왕국처럼 백성을 계몽시킨 나라로는 수마트라를 근거로 한 스리바자야(Srivijaya) 왕국을 들 수 있다. 이 왕국은 670년부터 1025년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번성했다. 이 나라의 위력은 말레이 반도의 여러 군소 해안국가와 공수(攻守)동맹을 맺는 데 있었다.

얼마 후 스리비자야 왕국의 쇠퇴로 말라카 해협이 불안하자 중

국, 인도, 아랍 상인들의 대 동남아 무역은 이 해협에서 크라 지협으로 옮겨갔다. 그 때문에 자바에 근거지를 둔 힌두교도의 마자파히트(Majapahit, 1300년경~1478년경)국이 번성했다. 즉 15세기에 들어와 이 힌두국가는 이지러지고 그 대신 신흥 무슬림들의 세력이 송과 명 등의 중국 상인들과 권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안정을 되찾았다.

이미 동부 인도네시아에는 몰라카(Maluku, 영어 Malaccas)라는 군도가 있는데 약 1,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다 해(Banda Sea)를 거의 에워싸고 있다. 이 군도는 북에는 태평양, 서쪽에는 몰라카 해, 남쪽에는 티모르 해, 동쪽에는 세람 해(Ceram Sea)와 접해 있는데 고대 인도, 중국 및 아랍 문헌에는 향료 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후에 이 군도는 스리비자야국과 마자파히트국의 전성기에는 한동안 합병되기도 했다. 이 군도의 주산물로는 쌀, 야자, 코코넛, 향료(丁香, 영어 cloves)와 너트메그(nutmeg), 수지, 경질재(硬質材), 등(藤) 나무, 목재 및 거북 껍데기 등이 있었다. 이 주산품은 9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아랍계와 이란계 무슬림들의 독점물이 되었다.

c) 황해상의 교류

한반도와 중국과의 교류는 삼국시대 이전에는 육로에 의존한 바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점차 조선(造船)과 항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리지식의 향상으로 해로의 비중이 증대했다. 한반도의 삼국과 당나라의 교류는 주로 해로에 의존한 바가 컸지만 육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연(燕)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에 일찍부터 주로 육로로 교류했다. 장수왕 이전에는 압록강 상류의 국내성(國內城)이 수도였기에 그러했고 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육로를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 특히 통일신라는 육로보다 해로를 더 선호했다.

동주(東周, 기원전 770~256)시대의 제(齊)나라는 많은 배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로 배를 타고 황해를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그 후 전한(前漢, 기원전 206~기원후 23)시대에는 해상무역이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다. 즉, 고조선시대는 중국의 전한시대에 해당되는 데 그때부터 황해는 형태상으로 내해(內海)였기에 해안을 따라 일찍부터 한반도와 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황해상의 한중(韓中) 교류는 자연히 우선은 연안 항로 후에는 횡단 직항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황해안 뱃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한무제(漢武帝, 재위 기원전 140~88)의 조선 정벌에서 볼 수 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 군대는 수륙 양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군은 배를 타고 발해만을 건너서 왕검성에 이르러 위만(衛滿)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켰고 그 자리에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하였다. 이때 700명의 수군을 배에 태워 군사작전에 동원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바닷길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산 증거이다. 하지만 전·후한시대의 한중 교통은 육로가 해로보다 그 비중이 훨씬 컸다(간수 510, 윤명철 50).

이 연안 항로는 그 후 상당 기간 애용되었다. 물론 그 기록은 주로 전쟁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동진(東晉)의 성

제(成帝)는 338년에 고구려와 더불어 하북성 선비족의 나라 연(燕)을 공격했을 때, 또 수문제(隋文帝)가 598년에 고구려를 침공하다 실패했을 때(영양왕 9년), 또한 수양제(隋煬帝)가 612년에 일으킨 살수대첩 때와 그 후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 때에도 육군과 더불어 수군을 동원했는데 매번 이 항로를 이용했다. 또 그 출항지는 모두 산둥 반도의 동래(東萊, 후에는 래주 萊州 현재는 엔타이 煙台)였다.

4세기 후반까지 백제의 대 중국 항로는 한반도 서안을 따라 북상하여 요동 반도 남단의 비사성(卑沙城)에서 발해만을 가로질러 산둥 반도의 등주(登州, 동래의 인근항구)로 연결되었다(신형식, 200). 이 사실은 모두 중국과 한국의 사서, 즉 『자치통감(自治通鑑)』, 『구당서(舊唐書)』,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기재되어 있다.

전쟁 시 수군의 수송뿐만 아니라 사신의 왕래에도 이 항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좋은 예가 백제와 북위(北魏, 386~534년 존속) 간의 사신 왕래였다. 수군 수송이나 사신 교환 같은 국가 차원의 업무수행은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의 발달 및 정박 시설 완비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상업적 교류로 그 안전성이 상당한 정도 검증을 거친 후에 가능할 것이다.

횡단 직항로의 항해는 연안의 그것처럼 그렇게 단순치 않았을 것이다. 서기 660년에 소정방(蘇定方)이 이끈 당나라 군사가 산둥 반도의 동부 끝에 있는 성산(城山)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인천 근처의 덕적도(德積島)에 상륙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횡단 항로를 명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추정된다.

소정방이 12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황해를 횡단한 점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이 횡단길이 열려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 횡단 직항로는 여럿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구려가 장수왕 15년(서기 427)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 당연히 중국과 일본과의 해로 장악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평양의 입지적 조건, 즉 부채꼴 모양으로 된 대동강 지류의 하계망(河溪網)을 통하여 내륙을 다스리고 또 이 강을 통하여 바다로 나가 해상권을 장악해야 대외 교섭의 원활성과 교역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위와 패권을 다툰 양자강 유역의 송나라에 고구려가 군마 800필을 비롯하여 화살, 석궁(石弓) 등의 많은 군수 물자를 선박편으로 보낸 사실은 물론이고 또한 고구려가 송나라에 보낸 사신선과 후에 남제(南齊, 479~502)가 고구려 안장왕(安藏王, 재위 519~531)에게 보낸 사신선이 각각 북위군에 의해 납포된 사실로 보아 직항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다고 본다(윤명철, 107~113).

그러나 이 사신이 해로로 간 것은 틀림이 없지만 횡단 항로와 연안 항로 가운데 어느 것을 택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간수 520). 즉, 연안 항로와 횡단 항로의 분별보다는 서기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황해를 넘나드는 배가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방이 산동성의 등주와 문등현(文登縣)의 적산촌(赤山村) 등 중국 해안 각지에 세워진 후 황해상의 교통로는 더욱 복잡해졌다.

삼국시대와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한반도 해안의 항구로는 당시

진(唐城津), 영암(靈岩) 및 울산이 유명하다. 울산의 포구로는 개운포(開雲浦)가 잘 알려져 있었는데, 수도 경주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일본과의 교역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당성진은 현재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인데 그 이름도 당성(唐城), 당항성(唐項城), 당성진(唐城鎭)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이 지명에 당(唐)이란 글자는 곧 당나라와의 교역은 당연히 이 포구를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당성진은 본래 백제 땅이었으나 고구려에 빼앗겼다가 553년 진흥왕 14년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여 당나라와의 해로(海路) 확보는 물론이고 동시에 백제와 고구려 간의 육상교통 차단이라는 신라의 국가적 지상과제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당성진-엔타이(煙臺, 즉 산둥 반도의 동래 東萊) 항로의 기점으로 그 전략적 가치는 매우 중요했다.

반면에 영암은 영산강 줄기를 따라 나주벌과 이어지는 곳으로 청동기시대부터 물산이 풍부한 곳이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지로서 국제항의 구실을 했다. 더구나 근처에 덕진포라는 포구를 가지고 있어서 대당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 영암포구는 12세 소년 최치원(崔致遠)이 868년에 당나라 유학의 푸른 꿈을 안고 아버지와 이별한 곳이기도 하다. 그는 경주에서 태어나 신라 말기에 자랐기에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영암이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와 더불어 이곳까지 걸어서 왔던 것이다. 여기서 아마도 배로 양자강 하구의 양주(揚州)

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 부근에서 공부하여 18세 때인 879년에 과거(賓貢科)에 급제했다. 소위 신라 말기의 삼최(三崔)에는 최치원을 비롯하여 최승우(崔承祐)와 최언위(崔彦鸞) 등인데 이들은 모두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했다하니 아마도 당시 신라 청소년들의 상당한 수가 당나라에 유학차 이 항구를 통하여 갔던 것 같다.

신라 말기의 삼최(三崔)를 좀 더 깊이 되새김질하여 추리해 보면 신라사회의 변천과정도 어느 정도 확연히 나타난다. 즉 신라의 제 17대 내물왕(재위 356~402) 때부터 최고통치자의 칭호로 마립간(麻立干)이 사용되었다. 물론 이것을 통치자 중심의 중앙집권제의 확립 차원에서 보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부수적 측면도 고려해 보자는 뜻에서 추정해 본다.

마립간의 어원(語源)과 뜻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김대문(金大問)의 설명에 의하면 “마립간은 국어의 말뚝, 즉 궤(闕)은 이름이요, 궤는 아래에 벌려 있음을 뜻한다.” 했다. 또 “마립간은 머리(頭), 수석(首席)과 통하고 누한(樓寒) 또는 종간(宗干)으로도 표기했다.” 한다. 그 이전에는 이사금(尼師金, 『삼국사기』 유리(儒理)이사금조에 따르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부터 제18대 실성왕 때까지 사용한 왕의 칭호인데 그 뜻은 치리(齒理, 즉 이(齒)가 많은 사람 곧 연장자를 뜻함)이라 칭했다. 즉 마립간이란 칭호를 사용한 시기나 그 이전에는 아직 한자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마립간은 순수한 신라 말을 한자음으로 당시나 그 후에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내물왕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지증왕(智證王, 재위 500~514) 때에 이르러 국호도 신라(新羅)로 확정되고 통치자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王)으

로 바뀌었다. 이것은 중화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정책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국가의 행정조직과 직제(職制)를 모두 중국식으로 변혁했던 것이다.

바로 이 시기는 신라 문화가 지증왕 이전의 기마민족(騎馬民族) 친화에서 중화한족(中華漢族) 친화로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또한 중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움트게 된 시발점이 된 것 같다. 지증왕 이후 350여 년이 흐른 9세기 후반기에는 신라 청년들의 중국 유학은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암-양주 간의 빈번한 인적 물적 교류에서 비롯된 한중(韓中) 간의 문화교류는 결국 한겨레가 오랜 기간 중화흡모사상(中華欽慕思想)의 심화(深化)와 집착에 대한 하나의 방증(傍證)이 될 것이다.

황해 연안의 중국 측 항구로는 옌타이(煙台)와 양주(揚州)가 10세기 전후에 매우 분주했다. 옌타이는 산둥성의 북안에 있는 항구인데 춘추시대(기원전 770~476)와 전국시대(기원전 475~221)부터 어업상 으로나 해상교통상으로 유명할 정도로 좋은 자연항이었다. 따라서 그 역사와 더불어 그 이름도 여러 번 변해 왔다. 즉 한나라 때는 동래부(東萊府), 그 후에는 래주부(萊州府), 청나라 때는 등주부(登州府)로 그 이름이 바뀌어오다 1858년에 현재의 이름, 즉 옌타이로 정해졌다.

이 도시는 진시황(秦始皇)이 세 번이나 방문(각각 기원전 219, 218 및 210)했을 정도로 예부터 경관(景觀)과 전략적 위치가 뛰어났으며 또한 불로초(不老草)를 구하기 위한 탐색대가 동쪽으로 출발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당나라 때에는 손꼽히는 네 항구 중 하나였다. 특

히 당·송대에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사신이나 또는 앞의 두 나라로부터 당·송으로 오는 사신이 주로 이 항구를 이용했다. 또한 소정방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원정에 나선 성산(城山)도 여기서 가까운 곳이다.

엔타이의 이웃항구 등주는 가탐(賈耽, 730~805)의 저서 『황화사달기(皇華四達記)』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중국과 외국을 잇는 일곱 개의 뱃길 중에 하나인 고구려와 발해로 가는 출발점으로 설명했다. 신라는 등주에다 신라관을 설치하여 장안(長安)을 드나드는 사신들이 머물고 오가도록 했다. 이 항구가 문화교류사적으로 뜻깊게 된 연유는 중국의 비단, 종이 및 철(鐵)의 제조기술이 주로 이 항구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또한 등주는 소금 생산지로 한때 이름이 높았다. 따라서 이곳은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 후 명나라 때에는 왜구(倭寇)들의 해안 노략질을 방지하려고 이곳에 방어용 기지를 설치했던 요충지였다(www.china-sd.neteng/sdcities./yantai05.asp).

반면에 양주는 황하와 양자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의 남쪽 종착점의 북안(北岸)에 위치해 있다. 이 운하는 수나라 때(581~618) 건설되어 양자강 주변 평야의 풍부한 농산물운수(運輸)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차(茶), 도자기 및 소금의 생산으로 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므로 이 항구 도시는 수나라의 남부수도가 될 정도의 요지였다. 그 때문에 양자강의 물류중심지가 되었다. 더구나 당대(618~907)에 들어와서 본래 한주(邢州)라는 이름을 양주로 개명(改名)하고 또 회남도(淮南道)의 수도로 격상 발전했다. 동시에 또한 대도독부

(大都督府)의 소재지가 되었고 인구도 당대의 초기에는 약 10만(23,000戶) 정도였으나 현종 천보(天寶) 원년(742)에는 46만(77,000戶)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763년 이후부터는 남중국(南中國)의 재정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금을 관리하는 관청인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가 주재해 있는 제일의 국제항이 되었다(신형석외, 14).

더구나 이 항구에는 이란인과 아랍인 등 무슬림들이 대거 살고 있었기에 당조정의 시책에도 고분하게 순종치 않아 당의 숙종 상원(上元) 원년(760)에는 장군 전신공(田神功)이 양주에 들어와 수천 명의 상호(商胡, 唐代를 전후한 중세의 서역 상인으로 일명 생호(生胡)들을 죽일 정도였다(정수일, 449). 즉 양주는 수만 명의 상호들이 상주할 정도로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상호들과 긴밀한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못지않게 신라인과 일본인의 양주 출입도 빈번했다. 엔닌(圓仁)의 『일기』에 의하면 양주에는 신라와 일본의 관료나 대상인들의 왕래나 환송을 관장하는 당나라 관료도 주재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료로는 대사(大使), 판관(判官), 녹사(錄事) 등이 있어 안내를 도맡았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 때에는 고려관(高麗館)이 양주에 세워져서 고려의 관리들이 이곳에 왔을 때 숙박했다고 한다(신형석 외, 18, 31).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 상인들이 양주를 출입했다. 더구나 송대(960~1279)와 원대(1206~1368)에도 이 항구는 계속 번창했으며 심지어 최치원과 마르코 폴로 같은 인물도 이곳에서 상당한 기간 관료로서 머물렀다. 마침 ‘황소의 난’이 이곳에까지 미치게 되자

최치원이 격문(檄文)을 지어 황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곳도 바로 이 인근이었다.

최치원은 12세 때 양주에 와서 18세 때인 874년에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고 20세 때 인근의 울수현위(粟水縣尉)로 관직에 나가 귀국할 때까지 양주 인근에서 머물렀다. 양주에는 장보고와 그의 동료 정년(鄭年) 및 부하 최훈(崔暉)을 비롯하여 여러 신라인들이 한때 체류한 곳이다. 그들 가운데 현재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도 수십 명에 달한다. 또한 인근의 대명사(大明寺)는 신라의 승려들이 당나라에서 불법(佛法)과 구도(求道)를 연마하기 위해 출입한 사찰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는 여해(如海), 감진(鑑眞)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잘 알려진 스님으로는 의상(義相)대사도 있다. 그러나 의상 대사는 등주로 출입했다는 설도 있다. 즉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사이에 의상 대사에 대한 기록에 차이가 있다(신형식 외, 91~2).

그 때문에 최근에 중국 양주시는 당나라 때 이 항구와 한반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다 당성(唐城)박물관을 창설하여 그 속에 최치원 기념실을 부설하고 있었으나, 2005년 말경에는 이를 확대하여 최치원 기념관으로 승격시킨다는 신문기사가 발표되고 있다.

(라) 속로

a) 문화의 전달통로

대체로 문화 창조의 뭍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즉 도시 특히 문화의 발상지(發祥地,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삼각지, 인더스-갠지스 강 유역 및 황하 등)와 중흥지(中興地, 그리스, 페르시아, 중국의 한과 당 및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주로 맡았으나 전달의 뭍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적어도 전달의 뭍 가운데 일부는 초기, 즉 서기 기원을 전후한 시점까지는 운반수단이나 기동력이 신속한 유목민족도 한몫을 단단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설(假說) 아래서야 비로소 중앙아시아에서 문화교류의 역사가 설명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가설을 증명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대로 이 글을 이끌어 가겠다.

물론 모든 창조와 발명이 또는 모든 교역과 거래가 반드시 그렇게 진전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이 많다는 전제 아래 서기 기원 전후에서 10세기 전후까지의 실크로드(Silk Road, 비단길)를 통한 한반도와 중앙아시아와의 왕래와 그 영향을 논의 또는 서술해 본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적어도 원시적인 산업과 상업단계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교통수단이 원시적인 수준에서는 유목민의 본업(本業)은 유목이지만 부업으로 대상(隊商)의 역도 맡은 것 같다. 또한 실크로드처럼 장거리 교역의 원시단계에서 전문적, 즉 직업적인 상인이 나타나기 이

전까지의 기간에도 여러 종족 간의 교류와 교역이 진행되어 온 사실을 보면 어떻게 달리 설명할 것인지 극히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전체로 삼고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 놓인 한반도에 붙어 온 문화의 흐름을 맞보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중동을 잇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 둘은 땅길(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앞에서 취급한 바닷길이다. 이 세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초원길(또는 스텝로Steppe 路)이다. 이 길을 타고 문화 전달의 임무를 수행한 종족은 대체로 유목민이었다. 물론 문화와 문명의 교역은 어느 한 종족이나 민족의 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나름대로 각 종족이 제 몫을 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오직 그 족적(足跡)이 뚜렷한 몇몇 유목민만을 골라서 문화의 전달자, 즉 교역자로서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 가능하면 증빙 자료와 논리를 전개하려고 애써 본다.

또한 유목민은 종종 문화 창조 내지 보존적인 정착민을 공격함으로써 때로는 문화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음을 일반 역사책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역사에서는 보통 오랑캐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정착민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고 역습(逆襲)도 심심찮게 해왔다. 또한 정착민과 유목민 사이에도 항상 교류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이 둘 사이에는 각각 살아남기 위한 문화의 창조와 교류는 항상 지속되어 온 것이다.

먼저 초원길은 유럽의 발트 해 남안에서 시작하여 흑해, 카스피 해, 아랄 해 연안을 거쳐 카자흐스탄의 알타이 산맥에 이르고 그 남쪽의 준가리아(Zungaria) 분지에서 몽골 고비 사막의 북쪽 끝에

있는 오르혼(Orhon) 강에 접어든 후 동남향으로 중국 화북 지방에 이른다. 그 후 한 갈림길은 중원의 장안(長安)과 낙양(洛陽)과 연결된다. 또 이 주된 길은 다시 동북의 만주로 나가다 한반도로 이어진다. 즉, 시베리아의 침엽수림대(針葉樹林帶, Taiga) 지대에 펼쳐진 북위 50도 부근의 초원을 횡단하고 있다. 이 초원길에는 천산산맥(天山山脈)과 같은 태산준령이 없고 또한 넓은 강이나 경작지 또는 인구조밀한 주거지도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이 길은 오아시스 길처럼 어느 정도 고정된 통로가 아니고 단지 넓디넓은 초원의 연장이었다.

이 초원길의 특징은 넓고 깊은 강이나 높고 험난한 산악도 드물어서 건기(乾期)와 동기(冬期)를 제외하면 기후의 제약도 그렇게 냉혹하지 않아 유목민은 자유자제로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목민은 초원길을 통하여 말을 타고 한없이 넓은 평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었다. 즉 기마민족의 전용(專用)도로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 때문에 스키타이족, 흉노족 등 여러 기마유목민족이 이 길을 따라 동서로 쉽게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길은 낙타가 다니기에는 기후가 너무 춥고 또 남쪽의 오아시스길에 비하여 중국의 중원(中原)까지 길도 멀어 점차 그 이용도가 떨어져 갔다. 또한 물량의 수송량도 한 마리의 낙타는 말에 비하여 월등하여 점차 상업용으로는 오아시스길이 선호된 것 같다. 하지만 초원길은 군용(軍用)도로로서의 기능은 교역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오아시스길(또는 사막길)의 명칭은 중앙아시아

아와 서남아시아의 사막지대(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막의 이름만 열거하면 몽골의 고비, 신장성의 타클라마칸, 남러시아의 키질쿰과 카라쿰 및 이란의 루트와 카비르, 시리아 사막)에 있는 수많은 오아시스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중국 문화의 중심부인 중원(中原)의 장안과 낙양을 거쳐 지나기에 그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초원길보다 훨씬 더 증대했다.

오아시스길은 중원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분류되었지만 대체로 안서(安西)와 돈황 부근에서 남도(南道)와 북도(北道)로 갈라진다. 남도는 장안에서 출발해 안서-돈황-누란(樓蘭)-호탄-피산(皮山)-간다라-카불-칸다하르-케르만-바그다드-베이루트로 연결되며 여기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이집트)나 콘스탄티노플 또는 로마로 바닷길로 이어진다. 반면에 북도는 역시 장안에서 출발해 안서-이오(伊吾)-고창(高昌)-언기(焉耆, 카라샤르)-구자(龜茲)-카슈가르(소룩疏勒)-타슈켄트-사마라칸트-부하라-메르브-니사푸르-테헤란-콘스탄티노플-로마로 이어진다. 또한 오아시스길에는 남도와 북도 이외에도 이 둘을 종횡(縱橫)으로 연결해주는 수많은 샛길과 지로(支路)가 있다.

이 세 길(초원길, 오아시스길, 남해로) 가운데 오아시스길이 한대(漢代)와 당대(唐代)의 중국 심장부인 중원을 관통해 가기에 서기 1000년 경에 이르기까지 가장 분주했고 또 중요했다. 특히 한겨레 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한국 문화의 기본 요소가 되어 있는 한자와 유교 또한 불교와 그 부수적인 석조술(石彫術), 단청(丹青) 및 음악 등이 이 길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바닷길의 중요성이 입증하여 서기 1000년을 고비로 적어도 한반도에는 바닷길이 문화와 경제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점차 땅길(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을 서서히 압도하여 갔다.

일반적으로 비단길, 즉 실크로드라 말하면 보통 이 오아시스길을 가리킨다. 이 길은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가는 역사상 가장 오래 활용되어 온 상업도로다. 대체로 지중해 동부 해안의 시리아 사막에서 시작하여 이란의 루트(Lut)와 카비르(Kavir) 사막을 거쳐 중앙아시아의 카라쿰(Karakum), 키질쿰(Kyzilkum) 사막과 험준한 천산 산맥을 차례로 지난다. 그 다음 중국 신강성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동쪽으로 몽골의 고비 사막과 연결되어 있다. 대체로 북위 40도를 따라 펼쳐져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다.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의 중심에 중앙아시아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 인도 및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에 예부터 문명의 교류는 이 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10진법, 60진법, 역법(曆法), 그리스도교, 마니교 등도 이 지역을 통하여 다른 두 문명권에 전해졌고, 또 인도의 불교, 천문학, 점성학 및 많은 산물도 역시 이 지역을 통하여 전해졌다. 또한 중국의 비단, 도자기, 제지법, 차 등도 역시 이 지역을 통해 다른 문명권에 전해졌다.

중앙아시아는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거주한 종족은 매우 다양하고 또 유목민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시대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가 바뀌고 또 각 종족도 여러

군소 부족 또는 씨족으로 세분되어 갔기 때문에, 문명의 교역자로서 명성을 남긴 종족 또는 부족이 누구이며 또 어떤 역할을 했기에 우리 한겨레의 문화 형성에 기여했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다.

b) 문화의 교역자(交易者)들

한반도와 한겨레에게 문화의 전달자로서 최초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종족은 스키타이(Scythai)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종족의 기원과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많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투루크계 인종이라기보다 인도-유럽인종으로 보는 층이 더 두터워지고 있다. 또 그들의 거주 지역과 이동의 폭이 넓어 거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흑해 연안과 볼가 강 유역 및 중앙아시아가 그들의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

스키타이족은 이동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지만 또한 부업으로 초원길을 통하여 동쪽의 알타이 족 거주지역과도 교역하였다. 특히 시베리아의 모피를 지중해 세계에 운반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그들은 인도 유럽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한 영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에 그들의 이동 영역은 흑해 연안에서 알타이 산맥 부근, 때로는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동부 스키타이족은 이란에서는 사카(Saka)로, 중국에서는 Se, 또는 Sai(塞)로 알려져 있다.

어원적으로 보아도 고대 이란어의 Saka, 그리스어의 Scythai, 소그드어의 Sughde(여기서 Sogdiana라는 지명이 유래), 구약성서의 히브

리어 Ashkenaz(시리아어의 Askuzal을 통해 들어감) 등은 모두 고대인도-유럽어로 궁수(弓手, 영어 Archer)를 뜻하는 Skuza에서 나왔다. 이 어휘는 원시 인도-유럽의 Skeud, 즉 <활 쏘다>에서 유래했는데 오늘날 영어의 Shoot도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본다.

스키타이 족은 양, 염소, 소 등을 목축의 대상으로 삼고 말을 타고 이를 돌보았다. 더구나 말을 교통수단으로 또는 군사용으로 활용했기에 기마민족의 시원(始原)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 강력한 기마민족(騎馬民族)이 된 그들은 초원길의 주인공이 되어 이 길의 동서(東西)를 누비고 다녔다. 그들은 흑해 연안의 그리스 식민(植民)에게 축산물, 우랄 산맥에서 나온 황금, 시베리아 산 모피 및 약탈한 곡물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反對給付)로 포도주, 올리브유 및 각종 공예품을 그들로부터 구입했다.

이러한 교역의 결과 고대(古代) 이란계 문화 요소가 짙은 스키타이 문화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리스 고전 문화와의 접촉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스키타이족의 세력은 약 200년간 흥성하다가 기원전 2세기에 동쪽에서 쳐들어온 사르마트족(Sarmatians, 기원전 6~4세기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우랄 산맥으로 이주한 이란계 기마민족인데 일부는 후에 남부 러시아와 발칸 반도에 정착)의 공격을 받아 결국 망하였다.

스키타이 문화의 유물로는 아키나케스(Akinakes, 스키타이 등 원시 유목민이 사용한 단검 短劍에 대한 그리스어의 명칭 길이 40~60센티미터 정도)식 단검(短劍), 아궁이 부분(구연부口緣部)에 입체 장식이 있는 청동술, 대막대기 끝(간두竿頭), 세날개 화살촉, 손잡이가 하나인 주발형 흑

색 토기, 각종 장식판 등이 있다. 특히 장식된 모양새가 입체적 또는 투조풍(透彫風)의 동물 의장(意匠)이 눈길을 끈다. 그들은 또 그리스인으로부터 구리거울(동경銅鏡)을 받아들였다. 그 외에 황금으로 만든 수많은 용기와 장신구는 그들의 유품으로 남아 있는데 그 제작자들은 그리스의 장인(匠人)들로 짐작된다. 즉 이 장인들이 스키타이족에게 판매의 형식으로 물물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스키타이 문화는 높은 수준이라기보다 독자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문화는 초원길을 타고 동방의 여러 유목 민족 사이에 확산되어 각지에 스키타이풍의 문화가 생겨났다. 그 좋은 예가 알타이 산맥의 마이에미르(Maiemir) 문화(19세기에 나리브 강 상류의 마이에미르에서 <쿠르칸 고총高塚>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이 연유되었다. 전기는 기원전 7~5세기에 발흥했는데 청동기 문화이고, 후기는 기원전 5~4세기에 걸쳐 일어났는데 철기 문화이다), 오르도스 지방의 쑤이위안(綏遠, 황하黃河의 상류 굽은 지역인데 역시 기원전 5세기경에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다) 문화가 유명하다.

또한 요녕성의 청동기 문화 유지(遺址)에서도 스키타이 문화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더구나 요녕성의 서남부 여러 곳(朝陽, 錦西, 撫順, 瀋陽, 海城)으로부터 요동 반도의 여대시(旅大市)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분(古墳)과 석실묘(石室墓)에서 기원전 5~3세기에 제조된 청동제 단검과 칼, 도끼, 마구, 장식금구(金具)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요녕성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과 북방기마 문화와의 혼성이기 때문에 내몽골이나 오르도스의 쑤이위안 청동기 문화와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문화의 주인공은 동호(東胡)인으로 알려져 있다(정

수일, 586). 따라서 동호인이란 호칭은 여진족(女眞族), 만주족(滿洲族) 등과 더불어 한겨레를 가리키는 중국식 호칭인 동이(東夷)와는 비슷한 말이다. 또한 동호인은 혈통이나 언어로 보아서도 중국인에게 보다 한겨레에게 더 가까운 사이일 것이다.

즉 요녕성의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낸 동호인은 독창성과 우수성이 월등한 중국 문화를 한반도보다 더 일찍 더 빨리 받았다. 또한 초원길을 통해 들어 온 기마유목 문화의 영향도 한반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일찍 받았지만 우월한 중국문화에 더 빨리 압도되었을 것이다. 즉 기원전에는 몽골, 만주 및 한반도에는 초원길을 통해 들어 온 문물이 오아시스길을 통해 들어 온 그것보다 월등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 스키타이와 그 아류(亞流)의 문화는 화북 지방을 거쳐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파급되었는데 구리거울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신라 왕관과 고인돌묘(支石墓)는 스키타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학설이 유력시되어 있다. 즉, 초원길을 타고 퍼져 나간 그들의 문화는 동서로 급속히 전해져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민병훈 60~63).

특히 조우관(鳥羽冠)은 고깔 모양의 변형모(弁形帽)에 새의 깃털을 꽂은 것인데 그것은 북방 유목민이 수렵할 때 새의 깃털을 꽂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돈황 동굴사원의 벽화나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궁의 벽화에 그려진 여러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의 사신(使臣)은 새의 깃털로 만든 모자

를 쓰고 있어 고구려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우관은 북방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의 영향이라 한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김용문 195).

특히 스키타이족이 사랑하는 기마술(horse riding)은 새로운 창안(創案)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과문을 일으켰다. 이 기술은 기원전 17~15세기경에 소아시아의 후르(Hur) 지방에 거주했던 아리안(Arians)인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한다. 이 기마술을 일찍 받아들인 스키타이인들은 카스피 해 북쪽 연안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에 이르는 대초원을 오가면서 문명교역의 위대한 역군이 되었다.

기마술을 받아들인 부족이나 종족은 곧 대제국을 이루는 대변화를 맞보았다. 기마술은 보병을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가공할 신무기였으며 또한 대단위 목축 떼를 이끌고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게 하여 유목생활에 혁명의 바람을 일으킨 새로운 생산기술이었다. 즉 소떼와 양떼를 수천 내지 수만 마리씩 대규모로 유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거리 이동의 결과로 아리안(Arian)인들이 유라시아 지역의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당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거주민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민족적 혼합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이 가공할 무기와 생산기술이 여러 인종에게 전수 또는 수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장거리 이주의 좋은 예가 만주에서 요(遼, 또는 거란)의 멸망과 중앙아시아에서의 부흥에서 볼 수 있다. 즉 요나라가 1125년에 망하자 통치가문의 친족(親族)인 야율대석(耶律大石)은 만주 지역에서 무리를 이끌고 초원길을 통하여 몽골을 거쳐 중앙아시아에 도착하

여 서요(西遼, 또는 흑요 黑遼), 즉 카라 키타이(Qara Khitay)를 1132년에 세웠다. 불과 7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이것은 초원길이 아닌 오아시스길을 통해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아시스길을 통해서 는 수만에 달하는 부족이 일시에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말을 타고 험난한 산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기마유목민인 거란족에게는 초원길, 즉 스텝로를 통해서 오고 간 중앙아시아와 만주 간의 거리는 그렇게 큰 난관은 아닌 것 같았다. 12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아시스길의 위력이 초원길보다 문화 내지 교역상으로는 훨씬 더 중요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초원길이 월등히 중요했다. 이 현상은 칭기즈칸과 그의 제국시대 까지 약 200여 년간 더 지속되었다. 즉 초원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군(大軍)이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원(元) 제국을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세울 수 있었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나온 유물 가운데 말과 관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고구려벽화 가운데 무용총의 기마도에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을 두고 일본의 가모(加茂儀一) 교수는 고구려의 기마인(騎馬人)들이 스키타이 식의 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한국문화대백과사전, 말).

더구나 삼국시대의 호형(虎形) 또는 마형대구(馬形帶鉤) 형태의 자물쇠는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 오르도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신라의 <천마도>(천마총)에서도 말 모형의 몸체 내부에 중앙

아시아의 특징인 감옥(嵌玉) 흔적의 반달형 무늬가 그려져 있다. 더구나 경주의 신라 미추왕릉 지구에서 발굴된 순금보검장식은 전체의 조형은 물론이고 여기에 이용된 누금법(樓金法)과 감옥법은 둘 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근동에서 나온 정교한 세공수법인데 중앙아시아를 거쳐 신라에까지 전파된 기법이다(Daum 신지식 프로젝트 Beta, 중앙아시아의 미술, 간수, 284).

또한 경주의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은제사발은 이란의 사산 조 시대(224~651)에 만들어 모신 풍요의 여신 아나히타(Anahita)를 나타낸 것인데 그 표현양식과 그릇 안쪽에 타출법(打出法)을 활용하여 요철(窯出)을 그대로 노출시킨 점으로 미루어보아 신라인의 제품으로 보인다. 또 부산 복춘동 고분에서 발굴된 말머리(馬頭)장식 리톤(Rhyton, 고대 그리스의 뿔 모양의 술잔, 동아대 박물관 소장)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것을 근거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생활용기(用器)가 비록 신라제품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란적 또는 중앙아시아적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미추왕릉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영남대 박물관 소장)은 지름이 1.5센티미터의 작은 구슬인데 그 속에 눈썹이 짙은 서역계의 인물과 나뭇가지, 새 등을 모자이크 방식을 통하여 천연색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기술은 후한(後漢)대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응용되지 않았다.

그 외에 오이노코에(Oinochoe,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항아리, 보통 원통형) 형태로 된 봉황의 머리모양으로 만든 유리병, 사산조 계통의 컷글라스(Cutglass, 둘 다 황남대총에서 나옴) 및 점박이 유리잔(금련총) 등은

그 성분과 기형에서 볼 때 전형적인 로만 글라스이다. 특히 이 점박이 잔의 발굴 사실에서 적어도 통일신라 이전에는 유리제품의 상당한 양이 초원길을 통하여 수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daum, 신지식 프로젝트 Beta, 권영필, 한명희, 중앙아시아의 미술).

이상의 여러 물증에서 추증할 수 있는 것은 곧 삼국시대의 한반도는 문화수준이 훨씬 앞선 중국의 중원 문화와의 접촉 보다 초원길로 통해 들어온 기마민족과 더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볼 수 있다. 또 그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현저했고 또한 그들에게 더 친밀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상고대 문화 즉 한문 수용 이전의 삼국시대와 그 이전 문화는 북방기마민족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더 친화적이었던 같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보급과 대중화로 미술, 특히 공예, 회화, 조각, 건축 또한 음악 및 무용 분야에도 중앙아시아적 요소가 들어와 자리하고 있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민병훈, 60~80).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직수입했다기보다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것 같다. 그것은 신라 불승(佛僧)들의 절대다수가 중국 내지 천축(天竺, 인도)으로 유학을 간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 이전에 한겨레가 지녔던 상고대 문화는 북방 기마유목민족 특히 스키타이, 흉노 문화권과 그 교류가 더 밀접해 있었다. 이것은 곧 한문을 수용하면서 한겨레의 문화친숙도가 급속히 중국 문화에 더 친화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한문 수용 이전에는 초원길을 통해서 들어 온 문화가 오아시스길을 통해 일단 중국에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정착하여 소

화된 문화 즉 중원(中原, 즉 장안 과 낙양 지방) 문화보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강했음을 웅변해 준다.

여기서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을 비교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앞쪽은 대부분 초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말(馬)이 달리기에 적합했고, 또 말은 낙타보다 훨씬 빨라서 동서간의 교통이 보다 신속했다. 반면에 뒤쪽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기에 그 교통수단으로 말보다 낙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했다. 비록 낙타는 말보다 느렸지만 더 많은 상품을 운반하고 메마른 사막과 태산준령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이점이었다.

스키타이족의 뒤를 이어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초원길 주변에서 주인공이 되어 활동한 종족이 바로 흉노(匈奴)족이다. 스키타이족과 흉노족과의 관계는 아직 같은 기마민족이란 사실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서로 상당한 정도의 교역관계만은 유지했다고 본다. 흉노족은 기원전 4세기 말경부터 약 500년간 초원길 주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목기마민족이었다. 보통 몽골계보다 투르크계로 보는 측이 학계에서는 더 우세하다. 이 흉노족은 스키타이족과는 달리 거대한 국가를 세웠다.

흉노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모돈(冒頓 또는 목득 또는 목돌 Mote 몽골어 바트르, 기원전 209~174) 선우(單于) 치하에서 그 영역은 동으로는 한반도의 북부, 북으로는 바이칼 호와 이르티시 강, 서로는 아랄해, 남으로는 중국의 위수(渭水)와 티베트 고원에 이를 정도로 광대했다(정수일, 쉘크로드 181).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록 국토는 거대해도 본거지인 몽골초원에서 기병대가 달리면 50일 이내 즉 2,000

킬로미터(1일 평균 40킬로미터의 속도 가정) 정도의 범위에 속한다.

중국이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을 때 흉노족의 침략 내지 약탈행위가 극심 하자, 제각기 방어수단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 나중에 진시황 때 보완하여 만리장성으로 완성되었다. 더구나 진(秦)과 한(漢)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북방 기마유목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즉 화친, 외교 및 무력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했다. 화친의 좋은 예는 전한(前漢) 말 원제(元帝) 때 궁녀 왕소군(王昭君)을 흉노 통치자 호한 야선우(呼韓鄂單于, 기원전 58~31)에게 시집보내고 또 조공을 바친 것이었다.

흉노는 중국의 여인과 재물만 탐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우수한 중국 문화와 문물뿐만 아니라 스키타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및 고대 이란의 문물도 모두 받아들여 호한(胡漢) 문화란 혼성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사실은 그들의 유적지인 노인올라(Noin-Ula)와 미누신스크(Minusinsk)에서 나온 여러 지역 기원의 유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목민적인 호피(虎皮)를 비롯한 동물의 문양과 농경적인 중국 문화의 혼성임이 나타나 있다(정수일, 588~90).

그들은 또한 2세기경에 후한에 밀려 서쪽으로 쫓겨 가면서 이 문화를 서방에 전수했다. 특히 4세기 후반에 시작된 서천(西遷)의 과정에서 흉노족은 서양의 문헌에서는 훈족(Huns)으로 나타나는데 불가 강과 돈 강을 넘어 동고트(Goth)족의 땅을 정복하고 그 이웃의 서고트를 압박하자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의 영역 내로 이동하여 게르만족을 구축했다. 이것이 곧 서양사에서 커다란 획이 되는 민족대이동이다.

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좋은 예는 기원전 138년 이후 장건(張騫)을 네 차례나 대월지국(大月氏國)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에 파견하여 흉노에 반대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을 추진한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당시에 나온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사자성구(四字成句) 가운데 잘 알려진 것이 이이치이(以夷治夷), 즉 오랑캐를 통한 오랑캐 다스리기 또는 원교근공(遠交近攻), 즉 먼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한다는 것이 있다. 그 반면에 무력충돌의 예는 너무 많아서 별도로 그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흉노족 자신은 거대한 국가는 세웠지만 거의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더구나 흉노족을 문화의 전달 또는 교역자로 취급하기는 고사하고, 심지어 야만인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문화의 파괴자로만 몰아붙인 적대적인 중국 사료에만 의존해서는 그들의 역사적 족적(足跡)에 대한 연구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또 한계가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 중국 사료도 불충분하여 흉노족의 후손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밝힐 수도 없는 형편이 오늘의 실정이다.

기원전 155년에 흉노족은 신강성 타림분지를 공격하여 점령하니 그곳 주민 월지(月氏 또는 月支)족은 멀리 아프가니스탄의 발흐(Balkh)로 쫓겨 갔다. 이 이주(移住)도 아마 역사상 최원거리 민족대이동일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121년에 한무제(漢武帝)가 타림분지를 손에 넣고 흉노 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교역과 외교관계를 차단하여 흉노를 압박하였다. 더구나 그 후 흉노에 내분이 일

어나 기원전 54년에 결국 제국은 동서(東西)로 분열되었다. 그 결과 동흉노는 후한(後漢)과 화해하였고 또한 그 지원을 받아 서흉노를 멸망시켰다. 이때부터 흉노는 오히려 후한(後漢)의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기 48년에 동흉노는 다시 남북으로 갈렸다. 북흉노는 후한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쫓겨 갔는데 이들의 후손이 유럽에 민족대 이동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훈(Hun)족이라는 설이 유력시되어 있다. 남흉노는 중국 부근에 떠돌다 마침내 화북으로 들어와 오호십육국시대(五胡十六國時代)에 조(趙)와 북양(北凉) 등의 국가를 세웠으나 점차 한족에 동화(同化)되었다. 즉 중국 주변 민족의 중화 문화 수용 현상은 한겨레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또한 이 현상은 동이(東夷)민족 상호 간의 원거리 현상과 더 나아가 이질화의 시작이었다.

흉노족이 초원길에서 활동한 500여 년간에 그들이 동서 문화 교류사에 남긴 업적에 뚜렷한 것이 바로 말을 주고 비단을 받는 견마교역(絹馬交易)이다. 이 교역은 비록 흉노와 한(漢)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지속되었다. 이 교역은 스키타이족의 동서무역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흉노족의 흥성기에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흉노는 기원전 176년경에 초원길과 서역을 장악하자 원활한 동서무역을 도모하려고 언기(焉耆, 카라샤르)와 위수(危須, 구르라)에 동북도위(僮僕都尉)를 설치하여 대(對) 서역교역을 관장하고 또한 세금을 징수했다. 흉노는 서역에서 말을 수입하여 한나라에 팔았고 그 대

가로 비단을 받아 멀리 파르티아에다 운반하여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흉노는 초원길과 서역을 무력으로 압도함으로써 중계무역을 독점했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유적이 울란바토르 북방 110킬로미터 지점인 노인올라에서 흉노의 분묘군(墳墓郡, 총 212기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지에서는 비단을 비롯하여 건평(建平) 5년(기원전 2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칠기배(漆器杯) 등 한나라의 유품과 더불어 옛 이란 풍의 카펫과 스키타이의 청동제품, 마노(瑪瑙) 및 호박장식품 그리고 또 흉노의 의상, 깔개 및 금속제품 등 유물이 대량 발굴되어 당시의 동서교역상을 실증해 주었다(정수일, 153).

그 외에도 흉노족은 월지족을 타림분지에서 몰아내어 트란스옥시아나와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피난가게 했고, 더 나아가 흉노족의 후예인 훈(Huns)족은 유럽을 침략하여 그 대륙의 여러 토착민족(슬라브, 게르만, 라틴족 등)을 이동시켜 인종적 혼합과 융화를 촉진시킨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신라의 김씨 계통 왕들은 흉노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그 근거는 1973~1974년에 경주에서 발굴된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 흉노와 스키타이족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매장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옛 관행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신라 제 30대 문무왕의 능비문(경주박물관 소장)에서 자신이 흉노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고 해석하는 학자가 상당

수 나오고 있다. 특히 알타이는 알타이어로 금(金)을 뜻하기에 성씨(姓氏)도 김씨(金氏)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Daum 신지식 프로젝트 Beta, 흉노와 문무왕비문 참조). 그 외에도 각배(角杯)금관, 로마 글라스, 신라의 고분군 및 승석문(繩石文) 등도 흉노족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논거(論據)를 제기하여 한겨레의 기원은 북방기마 유목민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기 2세기경부터 흉노족의 활동은 초원길과 그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져 갔다. 그 뒤를 이어 돌궐(突厥, Turks)족이 등장하여 이 길의 주인이 되었다. 비록 돌궐족과 흉노족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로 밀접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단지 돌궐족이 흉노족의 직계 후손인지 또는 방계(傍系)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여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돌궐족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몽골고원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유목생활을 해왔다. 이 산맥의 동남쪽에 살던 돌궐족 족장 토문(土門, 원뜻 만인장萬人長)은 경쟁부족인 철륵(鐵勒)과 유연(柔然)을 무찌르고 552년 스스로 이리카간(伊利可汗)이라 칭하고 독립국을 건립했다. 제3대 카간 목간(木杆, 재위 553~572)은 예하의 서면(西面) 카간 이즈테미로 하여금 에프탈(Ephtalites 또는 Hephtalites, 읍달愾怛)을 공격하게 하여 멸망시키고 소그디아나까지 정복하여 강대해졌다. 그러나 예하의 여러 카간들이 서로 다투다가 수(隋)나라의 간섭을 초래했다. 결국 돌궐은 동서로 분열되어 동돌궐은 몽골고원을, 서돌궐은 투르키스탄을 지배했다.

돌궐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영위했으나 농경(農耕)에도 종사했다.

또한 돌궐족은 초원길을 장악하자 흉노족의 동서교역정책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로 중국화북 지방의 북제(北齊)나 북주(北周)에게 말을 공급하고 비단을 받아 서역으로 수출하는 견마(絹馬)교역에 종사하였으나 그 활력이 흉노 제국에 미치지 못하였다.

동돌궐은 계민(啓民) 카간 이후 한때 세력을 얻었으나 철륵부족의 반란으로 630년에 당나라에 예속되었다가 7세기 말에 한때 재기했으나 744년 결국 위구르에게 정복당했다. 반면에 서돌궐은 십성부족(十姓部族)들이 협력하여 당에 항쟁했으나 결국 7세기 중엽(857년)에 당에 의해 망하였다. 6세기 말 소그디아나 지역 일대에 정착한 서돌궐은 비잔틴(Byzantine, 일명 동로마) 제국과 여러 차례 교역하였는데 주로 비단을 수출하고 로마인 글라스 등 유리제품을 수입하는 등의 중계무역을 행하였다.

동서로 분열되기 전에 돌궐문자도 창안하여 자신들의 기록을 비문으로 남겼다. 이 비문의 구절 가운데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730년대에 새겨진 몽골의 오르혼(Orkhon) 비문은 고대 투르크어로 쓰여 있는데 오르혼 강 유역에서 1889년에 러시아 학술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몇 개의 비문 가운데 켈 티긴(Kol Tegin)의 비문에 고구려 사절이 조의(弔意)를 표하기 위해 예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켈 티긴은 당시의 투르크족 통치자 빌게 카간의 동생이었다.

이 비문의 네면 가운데 서쪽 면은 한문으로 새겨져 있으나, 나머지 세 면에는 고대 투르크어로 새겨져 있다. 이 셋 가운데 동쪽 면에 쓰인 40줄 가운데 네 번째 줄에 켈 티긴의 죽음에 즈음하여

“통곡하는 자로서 동쪽에서는 해 뜨는 곳으로부터 Bükeli Cöl사람들, 중국사람들, 티베트사람들, Avar사람들, 비잔틴사람들, ……중략……이 와서 울고 애도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Bükeli를 일본의 두 저명한 교수 모리(護離 夫)와 이와사(岩佐精一郎)는 bükeli(또는 iii)로 전사하고 이는 맥(貓)의 나라 곧 고구려라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동쪽 면 일곱 번째 줄에는 투르크인들이 중국의 칭호를 받아들였고, 또 중국 황제에게 봉사했다고 하면서, 여덟 번째 줄에서는 “동쪽으로 해 뜨는 곳의 Bükeli 카간까지 정벌해 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두 일본 교수는 중국 황제를 도와 고구려 정벌에 가담했음을 중국 역사서(『구당서』, 『신당서』, 『수서』) 등에 잘 나타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탈라트 테긴, 59~61, 우덕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4-2호 237~252).

오르혼의 투르크족 다음으로 실크로드에서 문화교역의 역할을 이어 받은 민족이 바로 월지족(月氏族)이다. 이 종족은 또한 대월지족(大月氏族)으로도 표기된다. 본래 이 종족은 중앙아시아의 타림분지(Tarim Basin)에 정착했는데 이곳은 현재 중국 신강성의 감숙 지방이다. 그러나 기원전 155년경에 흉노(匈奴)와 오손(烏孫)족의 연합세력에 패하여 주류는 트란스옥시아나(대체로 옛 소그디아나)와 아프가니스탄의 발흐(Balkh, 그리스 명 Bactria) 지역에 이주했는데 이것은 세계역사상 최장거리로 도피 이주한 것이 된다.

한나라는 기원전 126년에 트란스옥시아나와 발흐에 이주한 월지족과 연합세력을 형성 하려고 장건(張騫)을 특사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북쪽국경을 넘어 침략해오는 흉노를 견제하는데 있었다.

이것이 한나라와 월지족이 외교차원에서 만난 첫 번째 접촉이었다.

이 셀로키드 조(Seleucids) 치하의 발흐 지역을 『사기』에서는 대하(大夏)라 불렀는데 『대당서역기』에는 도화라국(覡貨邏國)으로 되어 있다. 즉 현 아프가니스탄의 북반(北半)인 아무 다리야 강 상류 지역이다. 이것을 더 정확한 한자 음역으로 토화라(吐火羅, Tocharistan)라고 칭한 것이다. 월지족은 이때부터 쿠산 제국을 세우기 전까지 약 150여 년 동안 다른 중국 사료에서는 토화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이 토화라 지역은 고대 이란의 아케메니드 왕조(일명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는 발흐(Balkh, Bactria)였다. 곧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마자레 샤리프(Mazar-e Sharif)의 교외이다. 이 지역은 기원전 330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군에 정복당했고 곧 이어 그리스계의 셀로키드 조 통치를 200년간 받았으므로 월지족은 자연히 그리스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월지족은 그리스 문자도 도입하여 활용했고, 화폐도 그리스 식으로 주조했는데 현재 상당한 분량이 남아 있다.

월지족은 타림분지에 거주했을 때 중국에 옥(玉)을 가지고 와서 판다고 상(商)나라 학자 관중(管仲, 기원전 645 죽음)이 기원전 645년에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그들은 그 대가로 비단을 받아 가서 서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이득을 즐기고 있었다. 중국사람들 특히 지배층이 옥을 패물(佩物) 또는 장식물로 매우 선호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商)나라 때 조성된 중원(中原) 지방의 무덤을 발굴해본 결과

신강성 호탄(Khotan), 즉 타림분지에서 들어 온 750여 점의 옥 비취가 나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인이나 한겨레가 옥을 매우 귀중한 보석으로 여기고 있는 사실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옥석(玉石)을 가린다’ 또는 ‘옥이 굴러 가는 듯한 예쁜 목소리’ 라는 어구(語句)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금강석(金剛石, Diamond)이 동양사회에 도입되기 전까지 옥을 대표적인 귀중석(貴重石)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옥은 신라의 귀족사회에서도 몹시 선호된 보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옥의 품귀형상 때문에 품위가 낮은 진골대(眞骨大)에게는 허리띠에 연문백옥(研文白玉) 사용을 금하고 옥두품여(六頭品女) 등은 비녀에 금은으로 아로새기거나 옥구슬로 꿰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금지 항목은 『삼국사기』 잡지(雜誌)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월지족은 코오카셔스 인종에 속하는 인도아리안계 내지 이란계로 밝혀졌다. 머리카락이 붉거나 노랗고 콧날이 높고 눈이 움푹 들어간 것 등 골격(骨格)이 타림분지에 있는 그들의 옛무덤에서 나온 미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민병훈 65).

옥의 주산지는 타림분지의 호탄(Khotan)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서는 오늘날까지 옥이 대량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가공(加工)기술은 중국에서 발달했다. 따라서 신라에서 옥으로 만든 귀중품이나 최근에 발굴된 신라의 옥기유물(玉器遺物)은 대부분 타림분지에서 수입한 옥을 재료로 사용했고 중국의 기법이나 형태의 영향이 현저하다(간수, 250~52, 정수일, 209~214). 즉 옥이 신라사회에 유행하

게 된 시점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짐작된다.

이것은 한반도가 기마민족친화에서 중화(中華), 즉 한족(漢族) 친화로 넘어 가는 과정이고 또한 초원길에서 오아시스길로 교역의 큰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생생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 문제해결의 확실한 실마리는 신라의 옥제유품(玉製遺品) 가운데서 중국식 옥가공법의 영향 유무를 분별하고 또 중국영향을 받은 유품이 그렇지 않은 유품보다 시대적으로 늦게 나왔다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러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식견과 옥의 세공기술에 상당한 조예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타림분지의 월지족은 한때 옥을 한나라에 수출했기에 그 관계가 긴밀했지만 토화라로 이동한 후에도 여전히 돈독했다. 기원전 1세기에 장건의 서역 탐사 이후 수많은 중국 사절이 여러 차례 토화라의 월지족을 방문했는데 그 규모는 큰 것은 수백 명에 달했고 작은 것도 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일 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심지어 열 번의 사절단이 파견 되었다고 『사기』는 전해오고 있으니 그 긴밀성과 거래의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후한서』의 서역전에는 월지족의 사절단이 한나라 수도 장안에 기원전 2년에도 왔으며 그때 불교를 강론했다고 전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월지족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이미 그 절대다수가 불교에 심취하여 개종한 것으로 보인다(www.Grohol.com/psypsych/waki/yuezhi).

기원전 1세기 말경에 월지족의 다섯 분과 가운데 하나인 쿠산(Kushan, 한자명 貴霜)이 현 파키스탄의 서북부 지방인 페샤와르를

수도로 삼고 일어나 여러 월지 족을 통합하였다. 그 후 판도를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대륙의 서북부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합하여 수세기 동안 통치했다. 이때부터 『후한서』는 이 나라를 대월지국(大月氏國, 반면에 소월지는 잔류과를 말한다. 즉 기원전 176년에 흉노족이 황하상류와 서부 감숙성의 월지족을 몰아낼 때 대부분은 천산 산맥을 넘어 피난갔으나 일부는 황하상류 일대와 부근의 남산(南山) 지역에 잔류했는데 이 소수 잔류과를 뜻한다)이라 불렀고 인도와 중근동에서는 쿠산(Kushan) 제국이라 일컬었다. 이 나라는 서기 1세기 초부터 3세기까지 존속했다. 그 전성기인 105년에서 250년경에는 그 영역이 오늘날의 타지키스탄에서 카스피아 해와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갠지스 강 계곡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난 세력이 되었다.

쿠산 제국은 로마 제국, 이란의 사산 제국, 한나라와도 외교관계를 가졌는데 때로는 해로를 통하여 다른 여러 나라와도 교류했다. 대월지국은 서기 1세기경에 불교, 특히 대승불교(大乘佛敎, Mahayana Buddhism)를 숭앙했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맡았다. 또한 불교에다 그리스의 조각술을 결부시켜 유명한 간다라(Gandhara) 미술을 탄생시켰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중근동 원정으로 그리스와 중근동의 두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헬레니즘(Hellenism) 문화가 탄생했듯이 불교와 그리스 문화의 결합으로 간다라 미술이 생성된 것이다.

불교와 간다라 미술의 결합은 불상(佛像)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초기의 불자(佛子)들은 부처를 너무 숭앙한 나머지 감히 인간 형체(形體)의 불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단지 부처의 발자국이나 빈 좌석 등으로 부처의 실체(實體)

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상(神像)을 만들어 숭상했다. 이 특이한 현상을 바라 본 불자(佛子)들도 곧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많은 종류의 석존상이 등장하게 되어 간다라 미술의 신선미가 불교에 가미되어 그 전파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간다라 조각의 특징은 인체(人體)를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면서 현실감을 살려내는 기법에 있었다. 또 동시에 조각술을 비롯하여 석굴(石窟), 불탑(佛塔) 및 사리탑(舍利塔) 등의 건축술의 전파에도 쿠산 제국의 공헌은 매우 크다.

또한 인도에서 불교 석굴사원의 원조로 손꼽히는 아잔타(Ajanta)의 벽화와 금세공, 상감 세공(象嵌細工) 등의 공예도 쿠산 제국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중국 및 한반도와 일본으로 들어가는 등의 동서 교류도 이루어졌다. 또한 이 건축술은 남해를 통하여 동남아시아로도 들어갔다(정수일, 369~76).

기원후 최초의 200년 동안에 쿠산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여 그들의 옛 고향인 타림분지도 일시 탈환하였고 또 중국, 인도 및 로마 제국(당시 시리아와 이집트 지배)을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지(要地)인 중앙아시아를 차지하여 세계 육상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서 그 이권을 독점했다. 특히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한(前漢)과 후한(後漢)과는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그 협력관계는 매우 돈독하였다.

예를 들면 서기 84년에 카슈가르의 토후가 쿠산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지원한 소그드족을 응징하는 토벌작전에 후한의

반초(班超, 32~102) 장군이 나섰고 쿠산 제국은 반초 장군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85년에는 이 장군이 동부 타림분지의 투루판을 공격할 때도 이 제국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쿠산 제국이 후한 공주와의 통혼(通婚)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86년에는 7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반초장군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후한 제4대 황제 화제(和帝, 89~106)에게 조공을 바쳤다(나가사와, 73, 정수일 434).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와 인도의 서북부를 영유(領有)한 대월지국 즉 쿠산 제국은 그들의 영역이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불교를 북부 내지 동북아시아로 포교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들은 선교사를 중국에 파견하여 불교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이 월지족 출신의 대표적 불교 포교자와 경전 번역자는 로각세마(Lokaksema)와 다르마락사(Dharmaraksa, 한자명 曇摩羅刹 또는 曇摩羅察)인데 둘은 중국에 가서 번역소를 만들어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로각세마는 서기 164년에 낙양에 와서 186년까지 체류하면서 불교의 포교와 불경 번역에 골몰했다. 그 뒤를 이어 다르마락사가 들어 왔는데, 중국에서는 그를 축법호(竺法護) 또는 지법호(支法護)라 부른다. 즉 그가 8세 때 축고좌(竺高坐)라는 외국인 승려에게 사사(師事)했기 때문에 그의 성(姓)이 축씨로 알려졌다. 아마 축고좌는 천축에서 불교를 배운 후 왔기 때문에 축씨로 알려진 것 같다. 또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돈황에서 살았고 그 또한 그곳의 월지족(月支族) 출신이었으므로 지(支)자를 성으로 따서 지고좌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불경의 하나인 정법화경(正法華經)을 중국어로 번역한 데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자와 서역의 여러 나라 말에도 정통(精通)했다(www.Historycooperative.org/proceedings/interactions/folts.html).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창조는 대체로 정착민의 몫이고 그 전달은 유목민적인 기질이 짙은 민족이나 종족이 주로 맡게 된다는 사실이 불교와 간다라 미술의 생성 및 전달과정에서도 어렵듯이 나타나 있다. 즉 불교는 인도의 갠지스 강변에 펼쳐진 평야에서 또 간다라 미술은 페샤와르는 평원에서 거주해 온 정착민에서 나왔지만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의 전달은 장거리를 이주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또 유목민적 기질이 전통적으로 강한 월지족의 몫이 된 것이다. 불교는 월지족의 포교활동에 힘입은 바 컸기 때문이다.

월지족은 기마유목민적인 자질과 근성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옛 고향이 타림분지였기에 이 종족 출신 선교사들이 떠나면 이국 땅과 이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역과 중국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으로도 포교차 나왔거나 지원했을 것이다. 고구려 소수림왕 2(서기 372)년에 전진(前秦)의 왕이 승려 순도(殉道)를, 또 2년 뒤에는 아도(阿道)를 보냈다. 그 이듬해 동진의 고승 지도림(支道林)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고구려 스님에게 글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고승 지도림은 월지사람인 것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그의 신원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위의 다르마라사, 즉 지법호 스님처럼 서역 특히 월지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쿠산 왕국은 또 로마 제국과의 교류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사료(Aelius Spartianus의 Historia & Aurelius Victor의 Epitome', XV, 4&Appian의 Praef. 7)에도 쿠산의 사절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Hadrian, 재위 117~138)과 그의 후계자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를 예방했다고 기록되었다. 또 『후한서』에도 북서인도(쿠산)와 대진(大秦, 로마 제국의 영토인 현 시리아)과의 교역을 언급하면서 그 품목도 열거했다. 즉, 면직 옷, 양털 양탄자, 향수, 사탕, 후추, 생강 및 흑 소금 등이었다. 또 여러 형태의 유리제품도 수입했다. 쿠산 제국은 서기 225년경에 동서로 갈라졌고 얼마 후 사산 조의 침략을 받아 오늘날의 편자브 지방으로 크게 위축되다 4세기경에 망하였다(EI, Wkipedia, Kushan 참조).

월지족이 불교의 포교와 무역에만 집착한 데 반하여 소그드(Sogd)족들은 동서교역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와 문화의 교류에 커다란 역할을 맡았다. 이들의 나라 소그디아나(Sogdiana)의 수도는 아프라시압(Afrasiab), 즉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사마르칸트였다. 이 소그드 왕국의 아프라시압 궁전의 벽화에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있는 외국사절이 있는데 이것을 고구려 사절로 보고 있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사진 92).

소그디아나는 박트리아의 북쪽에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아무 다르야(Amu Darya, 영어 Oxus)와 시르 다르야(Syr Darya, 영어 Jaxartes) 사이의 평야에 자리 잡았는데, 오늘날의 남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역, 타지키스탄 전역 및 북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합한 것에 걸맞다.

소그드족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면이 그 특징이었다. 그 결과 그들 중에는 불교, 마니교, 네스토리안(Nestorian)파의 그리스도교(경교景敎) 및 조로아스터교의 추종자들도 많았으며 결국 서기 1세기 부터 10세기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의 모든 종교는 이들의 손을 거치게 되었다. 즉 소그드족은 상품의 교역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의 전달자였다(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민병훈, 86).

특히 조로아스터교의 전파와 함께 아람(Aram)문자가 호레즘과 파르티아에 도입되었고 더 나아가 소그드어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글로도 전해졌다. 그 때문에 소그드족의 기록은 때때로 중앙아시아는 물론 가끔 다른 지역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위구르족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까지 약 100년 동안 몽골을 지배할 때 오르혼 강변에 자리 잡은 카라 발가순(Kara Balghasun, 즉 검은 성터)을 거점으로 삼고 당나라와 전통적인 견마무역(網馬貿易)을 해왔는데, 소그드족의 활동이 이곳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유물이 나타났다. 즉, 1890년에 이곳에서 ‘카라 발라사군 ……비문(碑文)’이 발견되었다. 이 비문은 위구르 제국의 제8대 칸(Khan) 보의(保義, 재위 808~821)의 공덕비인데 그 비문은 위구르어, 소그드어 및 한문의 세 가지 언어로 새겨져 있다(정수일, 590). 즉 이 비문은 소그드 상인의 활동이 중국인 거주 영역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산 증거이다.

더구나 소그드인의 명성은 『후한서』의 『서역전』에 상호(商胡)라 불릴 정도로 장사에 능하였다. 특히 그들은 어릴 적부터 글을 가르쳐 20세만 되면 사나이 대장부로서 장삿길에 나섰다. 물론 당대(唐代)에 들어와서 상호란 개념에 아랍과 이란계 등 서역 출신 상인 모두가 포함 되었고 또 당시 중국의 대도시에는 거상인 상호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특히 당의 수도 장안에는 서역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중에는 돌궐인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그드인들이 다수 있었다.

특히 소그드인들은 장안뿐만 아니라 오아시스길이 두 갈래(북도와 남도)로 갈라지는 둔황에도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아홉 성(姓) 바지에 300호 1,300여 명이 거주했다. 특히 당대에는 파미르 고원 이서(以西)의 소그디아나 지역 출신으로 중국에 머무는 사람을 소무구성(昭武九姓) 호인(胡人)이라 불렀다. 그 가운데는 강(康), 조(曹), 석(石), 미(米), 하(何), 화심(火尋), 무지(戊地), 사(史), 안(安)이라는 아홉 성이 있었다(정수일, 158, 450).

더구나 당(唐)의 말기 ‘황소의 난’ 때 광주와 천주에서는 상당한 수의 외국인 거주자가 살해되었는데 그중에는 소그드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 범위는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근동, 중국 전역과 몽골 및 만주 등 거의 아시아 전역을 망라하고 있었다. 소그드인들은 동부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근동도 출입하면서 문물교류에 크게 이바지했다(EI, Soghd).

소그드인들이 남긴 동방교역상의 특징은 실크로드의 요소마다 그들의 거점을 마련하여 업무에 활용한데 있다. 장안과 둔황은 물

론이고 몽골, 위구르 및 돌궐 등지에도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의 상업활동이 매우 출중한 나머지 그들의 언어인 소그드어는 한때 중앙아시아의 교통어가 될 정도였다(나가사와 110~112, 정수일, 158).

소그드인들이 대거 중국 본토로 이주해 살다보니 자연히 당나라에서 출세한 인물도 나오게 마련이었다. 한때는 소그드인들을 비롯한 서역인들이 당나라에서 특혜를 누렸으며 심지어 조정(朝廷)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휘두를 정도였다. 서역인들의 특혜와 영향력은 대신(大臣) 이필(李泌, 722~789)에 의해서 787년에 제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www.transoxiana.com.ar/Eran/Articles/com_pareti.html).

심지어 한반도에도 잘 알려진 소그드사람으로는 ‘안사(安史)의 난(亂)’을 일으킨 안록산(安祿山, 703~757)을 들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소그드인, 어머니는 돌궐 출신이었다. 젊었을 때 그는 영주(營州, 북경의 북동쪽)에서 호시아랑(互市牙郎, 무역중개인)으로 지냈는데 6개 언어를 구사했다. 30대에 유주 절도사(幽州節度使) 장수규(張守珪)를 섬겨 무장(武將)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나중에 742년에 평로(平盧)절도사로 출세하여 결국 반란까지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그의 성씨 안은 기원이 부하라(安國)이고, 또 이름 룩산은 중국어발음으로 ‘Rushan’, 즉 소그드어 또는 페르시아어로 ‘빛’을 뜻한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이 된 소그디아나의 공주 ‘Rouxana’란 이름과도 그 어원이 같은 것이다.

또한 안록산의 휘하에는 소그드인들이 상당히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그의 후계자가 된 사사명(史思明, Shi

Seming)도 소그드인이었다. 아마도 사국(史國, Kesh, 현 Shahresabj) 출신이기에 그의 성씨는 사씨가 된 것 같다. 또한 안록산의 반대편에서 그를 응징하는데 앞장 선 소그드인들도 많았는데 그 좋은 예가 안 중장(安重璋)이다. 그는 나중에 난을 진압한 공로로 당의 황제 숙종(肅宗)으로부터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제수(除授)받아 10년간(767~777) 봉직했다.

그러나 난이 평정된 후 소그드인들의 중국화과정은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구당서(舊唐書)』의 제132권과 『신당서(新唐書)』의 제 138권의 이포옥(李抱玉, Li Baoyu)전에 따르면 병부상서 안 중장은 안록산과 성씨가 같다 하여 부끄러워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이포옥으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또한 그의 조상은 원래 대상(隊商, Caravan)의 인도자 ‘sabao’(한문, 保 또는 甫 또는 寶, 소그드어, sartapao, 인도어 sarthavaha)였다.

그럼에도 그 후 소그드인들의 대상활동은 줄어들었지만 심한 타격은 받지 않았다. 안록산의 난 때 당나라의 조정은 위구르인의 도움을 받아 진압했다. 위구르인은 오아시스길을 통한 대상(隊商) 무역의 위축을 원치 않았다. 이제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한 관계로 자신들도 덕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그들은 소그드인이 누려오던 특혜를 계속 인정해 주었다.

결국 육로를 통한 소그드인의 동서무역지배는 한동안 더 지속되다가 마침내 권신(權臣) 이필(李泌)이 787년에 장안에 거주하고 있는 소그드인의 특혜를 폐기한 후 그 풀이 꺾였다. 더구나 아랍

인과 이란인이 9세기 초부터 중국 해안에 등장하게 되자 해로의 중요성이 점증(漸增)하고, 반대로 오아시스길의 빛은 점차 흐리게 되었다. 즉, 10세기경부터 중국 해안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일본 등에는 해로가 오아시스길을 포함한 육로를 인적, 물적 교류 즉 문화적·경제적·외교적 교류 면에서 압도해 갔다. 그에 따라 중국의 중심부도 당이 망한 후 중원(中原)지역에서 황해연안 가까운 쪽으로 옮겨 갔다. 그 결과 중국 속에서 소그드인 상호 간의 연결망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중국화는 더욱 촉진되었다(Vassiere, 105).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나라 때에는 많은 외국인이 중국 땅에 들어와 살았다는 얘기다. 황해 해변에는 신라방이 많이 산재해 있었고, 또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유학생들도 들어와서 과거시험도 보았고 더구나 합격해서 벼슬자리도 얻었다. 또한 광주와 천주 등 항구 도시에는 아랍인, 이란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촌을 이루어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내륙의 대도시에도 돌궐인과 소그드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당나라 조정의 관용성과 또한 융화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즉 그만큼 중국 전체에 해(害)보다 득(得)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책(施策)을 당나라 조정은 폈을 것이다. 또한 주변의 오랑캐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화적으로 중국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득책(得策)으로 본 것이다. 또한 중국 땅에 들어온 각 이민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고향땅에서 보다 중국에서의 삶이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더 문화의 혜택을 많이 입어 윤택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소그드족들은 또한 어학에도 뛰어났다. 그들은 통역과 번역분야에도 출중해서 이곳 출신의 번역자들은 불교, 마니교, 그리스도교 서적을 실크로드 주변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의 언어로 옮겼다. 프라크리트(Prakrit, 고대와 중세 인도의 일상어)어로 된 불경, 파르티아(Parthia)어로 된 조로아스터교 경전과 마니교 서적 및 아람어(Aramean)로 쓰인 그리스도교 성경 등을 박트리아어, 토하라어(Tocharian), 호탄어(Khotanese), 투르크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했다. 때로는 원본에서 때로는 소그드어 번역본에서 현지어로 옮기기도 했다.

소그드족들의 중국 문화에 기여한 공헌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도의 천문학과 점성술을 전파한데 있다. 그 때문에 중국 문화에 끼친 소그드족의 영향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달력의 요일 이름이다. 아직도 일부 중국인들은 일요일을 해의 날 즉 mir 또는 mihr라고 부르는데 한자로는 蜜 또는 蜜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소그드어의 영향이다(EB, EI, Soghds). 그 외에도 소그드족은 중국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었다. 예를 들면 말 사육법과 대상(隊商)의 상술(商術) 같은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8세기 이후에 이슬람화되기 시작하자 소그드족들은 불과 100년 만에 모어인 소그드어를 버리고 페르시아어와 이란식 이슬람(1500년에 싸파비 조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이란은 순니파 다수였음)을 받아들였다. 결국 2백 년도 못되어 소그디아나, 즉 트란스옥시아나는 사만 조(Samanids 819~1005 존속) 치하에서 이슬람화된 이

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결과 중세 이슬람에 최초의 페르시아어 시인 루다키(Rudaki, 940 죽음), 철학자 파라비(al-Farabi, 950 죽음)와 이븐 시나(Ibn Sina, 980~1037, 라틴명 Avicenna), 수학자 흐와르즈미(al-Khwarzmi, 850년경 죽음. 그의 이름에서 영어의 '아라비아 숫자' 또는 '0'을 의미하는 algorism이 나옴) 및 박물학자 비루니(al-Biruni, 973~1050 생존) 등 수많은 학자를 배출했다. 또 오늘날 이란의 시성(詩聖)으로 받아들여지는 피르다우시(Firdausi, 940~1020 생존)도 젊은 시절 사만 조 수도 부하라의 궁정 도서관을 출입하면서 유명한 이란 민족서사시 샤나메(Shahname, 왕서 王書)를 이곳에서 준비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化)에 대한 근거는 자연풍토가 사막과 초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생활방식이 중근동의 거주민들과 유사한 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희귀하지만, 아무튼 이슬람화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단순히 일반 대중의 개종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이 지역에서 무슬림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이었다. 적어도 8세기까지는 어느 특정 종교세력의 권력 장악이 반드시 일반 대중의 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두 번째 특색은 이슬람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정치적으로 지배하자 무슬림들은 무역 분야도 관할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에 비하여 매우 월등하게 되었다. 또한 중근동의 우수한 이슬람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로 몰려와 이슬람의 포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즉,

소그드족들의 모어(母語)는 이란어계에 속하는 소그드어였지만 그것을 버리고 역시 이란어권에 속하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페르시아 화(化)와 이슬람 화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 오늘날 옛 소그디아나 지역의 일상 언어는 이란어권, 즉 페르시아어의 방언에 속하는 타직어(Tajic)로 한동안 고착되어 갔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중근동에서 나온 유일신교(唯一神敎)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국가권력을 장악 하게 되면 선교사업에 박차를 가해 그 신민(臣民)들마저 개종시키는 현상이 흔히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 역사에서 10세기 이전에 이슬람에 정복된 지역의 주민은 오늘날 거의 이슬람에 개종해 있다. 유일한 예외는 8세기에 이슬람에 정복되었지만, 14세기에 그리스도교 세계로 환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주민은 대부분 10세기경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오늘날까지 독실한 무슬림으로 남아 있다. 대체로 이슬람을 비롯한 중동의 유일신교는 독선적이며 배타적인데다 또 운명공동체적인 특색이 진하여 다른 종교나 신앙의 설자리가 그만큼 협소해지는 것이다. 즉,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이슬람 성법(shari'a)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특히 유일신교가 정치력과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아 국가기구를 장악한 후 사회, 문화 및 종교적 측면에서 뒤떨어진 지역과 공동체를 정복했을 경우 피정복(被征服) 민족이 정복자의 종교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현상이 세계 역사에서 가끔 일어났다. 10세기 전후(前後)에 무슬림의 중앙아시아 정복에서 그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

슬람에 개종한 현상과, 또한 15세기 말 유럽인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정복에 이어 토착 인디언들이 그리스도교에 개종함은 서로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현상은 8세기부터 무슬림의 침략을 받아 점차적으로 11세기 경까지 거의 전(全) 국토가 정복당한 인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인도의 거주민은 비록 정치적 지배력을 무슬림에게 곧 뒤이어 영국인에게 빼앗겼지만, 전통적인 문화와 고유한 종교를 지녀왔기에 약 700년간의 무슬림 지배와 약 300년에 걸친 영국의 통치를 받고도 인도인은 힌두교적인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잃지 않고 지켜온 것이다.

이 절(節)에서는 육로(초원길과 오아시스길)를 통하여 문화 전달의 역할을 이행한 유목민족 가운데 역사상 두드러진 몇몇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예로 들어 보았다. 즉, 스키타이족, 훈족, 돌궐족, 월지족 및 소그드족의 문화 전달자적 역할은 주로 또 다른 유목민족에게나 또는 정착민족인 중국의 한족(漢族)을 상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목민족들과 소그드족은 중앙아시아를 장악하고서 동서 문화 교류의 주역을 맡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목 문화는 스스로 정착 문화로 변해가든가 또는 정착 문화에 흡수 되어 가는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유목민족들은 카스피 해의 불가 강 하구(河口) 지방을 차지한 하자르 국(Khazar, 630~965)과 또 불가 강과 카마 강의 합류지점에서 흥성했던 불가 불가르 국가(Volga Bulgar, 9~13세기 초

존속)를 비롯해서 시베리아, 알타이, 몽골 및 화북 지방에서 생산된 모피를 초원길을 통해서 중근동, 인도 및 유럽의 수공업품과 교환했다. 또한 중국의 비단과 서역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견마교역(絹馬交易)으로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 그 외에도 문화적·정치적·경제적 교류를 행하는 서기 400년에서 14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앞의 유목민족을 비롯한 중국주변 소위 오랑캐족들은 점차 중국화 내지 중화(中華) 친화적이 되어 갔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흉노의 호한(胡漢) 문화, 특히 오호십육국시대에 남흉노의 화북 진출과 한화(漢化)과정, 뒤이어 돌궐족의 오르혼 비문에 새겨진 한자 구문, 신라 지증왕 이후의 친중화 정책, 중국 해변에 산재한 신라방, 또 중국의 수많은 대도시에 들어온 돌궐족, 월지족, 소그드족 등의 정착촌 및 중국 해안의 수많은 항구 도시에 들어와서 집단거주지를 마련한 아랍, 이란, 그리스도교인, 마니교인 등 여러 종족들과 여러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은 결국 도도한 한화(漢化)의 물결 속에 들어가 중화 문화의 용광로 속에 융화되어 간 것이다. 오랜 기간 정착 문화의 터전에서 꽃피워 온 중국 문화는 주변의 유목 문화를 상대로 협조와 반목을 통한 교류에서 점차 무서운 융화력과 흡수력을 발휘하였다.

c) 실크로드상의 교류거점 도시 또는 지역

실크로드상의 여러 도시나 지역이 문화전달의 거점이었음은 새삼 논의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기원후 1000년 동안 실크로드의 역할과 그 변천의 흐름을 보면 도시나 지역이 바로 문명의 저장

기지이며 전달거점이었다. 다만 당시 중근동과 중앙아시아의 도시와 부락은 대체로 오아시스 중심적이어서 때로는 어느 특정 부족이나 종족에 속하면서 또한 자립 자주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었다.

이윤이 나는 곳에는 땅길 이든 물길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용감한 상인들인 나바테아족에 대해서는 앞의 제6장 (나) 아랍인을 기술할 때 이미 상당한 부분 언급했기에 여기서는 단순히 그들의 수부(首府)만 소개하는데 그치겠다. 그들의 수도 페트라(Petra, 그리스어로 바위, 현 Wadi Musa, 즉 모세의 계곡)는 같은 뜻의 히브리어 'Sela'와 아랍어 'al-Raqim'이란 지명의 번역어이다.

페트라는 기원전 4세기 말경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약 400년간 남부 아라비아의 예멘과 동부 지중해 연안을 해로와 육로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는 거점이었다. 이 도시는 주된 무역품목인 향료를 남예멘에서 아카바 만으로 땅길 또는 뱃길로 운반한 후 여기서 북쪽으로 페트라, 가자, 암만, 다마스쿠스, 팔미라 및 콘스탄티노플로 연결망을 따라 판매했다. 또한 이 도시는 중근동에서 정치세력의 원천인 로마와 파르티아(Parthia) 제국 사이에 끼인 완충국(緩衝國)으로서 두 제국의 유통망을 연결시키는 한편 또 이 두 제국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진 주변 지역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전달하는 기지였다. 이 도시의 황금 시기는 로마 제국의 후견(後見)을 받게 된 서기 1세기에 상당한다.

페트라의 세 측면, 즉 동·서·남쪽은 그 지리적 여건이 너무 험난하여 접근이 불가능했다. 더구나 도시 전체가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엄청난 크기의 바윗덩어리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또한 산자락이 거의 절벽에 가깝다. 또 거주민들은 이 바윗돌을 끊어 파내어 동굴 같은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거처하였다. 이 도시는 요르단과 아라비아 중심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또 물이 솟아나는 유일한 지점이다. 그 때문에 그 수리시설, 즉 저수와 배수시설은 매우 발달해 있었다. 이곳은 남쪽에서 또는 북쪽에서 온 대상들이 새로운 낙타와 필요한 인원을 대체하는 일종의 역마촌이었다. 이곳의 거주자인 나바테아족은 대상활동(隊商活動)을 통하여 이곳을 연결점으로 삼아 중동 각지와 교역하였다.

이 도시의 여신 알라트(Allat)는 그리스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라니아(Aphradite Urania)와 동등한 격으로 보이는데다 또한 포도의 상징이었다. 이 현상을 그리스의 영향인 것으로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다. 기원후 약 200여 년간 인도와 지중해 사이의 해로, 즉 홍해가 번창해지자 이 도시의 중요성이 줄어들어 결국 북쪽의 팔미라에 밀리게 되었다. 더구나 106년에 로마 황제 트라얀(Trajan)에 의하여 아라비아 주(Provincia Arabia)로 병합되자 그 번영은 종말을 고했다(Hitti, 74).

팔미라(Palmyra)는 라틴어로 야자수의 도시라는 뜻인데 아랍어로는 타드무르(Tadmur)로 불린다. 시리아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다. 서기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나바테아족의 페트라를 경유하는 옛 대상로가 쇠퇴하게 되자 팔미라가 그 대신 융성하게 되었다.

팔미라는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 왕에 의해 기원전 10세기에 사

막 한가운데 건립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열왕기 상 9:18, 역대기 하 8:4) 그의 왕국 영토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셀로키드 조(기원전 312~64)의 통치 아래 이 도시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번성했다. 서기 2 세기에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영향아래 들어갔으나 그 자치적(自治)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도시국가는 동쪽의 파르티아 제국과 서쪽의 로마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실속 외교로 일관했다.

그러나 로마황제 발레리안(Valerian)이 259년에 파르티아군에 포로가 되자 팔미라 지역은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팔미라는 그 통치자 오테 나투스(Odaenathus, 아랍어 Udhaynah)와 그의 아내 제노비아(Zenobia, 아랍어 Bath Zabbay, 아랍어 al-Zabba 또는 Zaynab) 아래서 형식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권한을 대행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했다. 오테나투스가 죽자 제노비아는 어린 아들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로마황제 아우렐리안(Aurelian)에게 273년에 패하고 팔미라는 초토화 되어 재기 불능에 빠졌다.

셀로키드 조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아랍어로 쓰인 기록이 2,000여 점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팔미라 거주민의 이름과 수많은 아랍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들은 아랍인에 속함은 확실하다. 하지만 종교는 아람(Arameans)인들처럼 발 신(Baal神)을 숭배였다. 또 그들의 일상 언어는 페트라와 나바태어와 매우 가까웠다. 또한 팔미라인들은 발 신과 더불어 해와 달 같은 신도 함께 숭배했다.

팔미라 인들은 심지어 티그리스 강 하구에 있는 항구 포라트(Farat, 현재의 Basrah)와 카락스(Charax)로 가서 거기서 인도까지 항해하여 목화와 중국의 비단을 수입해 왔다. 또한 1925~1945년 사이에 프랑스 고고탐험대는 팔미라 지역의 여러 유적지에서 한(漢)나라 때의 비단으로 만든 50여 점에 달하는 유품을 발견하였다. 이 유품은 실크로드, 즉 오아시스(또는 사막)길이 이미 서기 기원 전후(前後)경에 이곳까지 연장되어 있었고 또한 중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정수일, 35, 253).

서기 137년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이 도시의 무역 품목에는 노예, 대추, 고위관료들이 입는 자줏빛 관복, 기름에 절인 생선, 가축, 알곡 및 포도주였다. 서기 2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역사학자 아피안(Appian)에 따르면 팔미라인들은 인도와 이란의 산물을 로마 제국 영역에서 주로 판매했으며, 그 가운데는 비단과 향신료도 있었는데 그 수익이 상당했다고 한다.

부유한 상인들은 팔미라 시내의 대리석 돌기둥이나 석판(石板)에 다 자신의 출신내력과 경력 등과 더불어 얼굴상을 새겨 걸어 놓았다. 그 때문에 심지어 팔미라 출신의 두 선장 이름도 기록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EB, Palmyra). 이 점을 감안하면 팔미라인들도 해상무역에 참여한 것 같으나 그 규모는 나바태아인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팔미라인들이 드나든 지역은 중근동 전역에 미쳤고 멀리는 오늘날의 페르시아 만까지 약 1,500km나 다녔으며 또 중앙아시아에도 드나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서

기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약 250년간 지중해 지역과 인도, 이란, 중국과의 대상무역을 통하여 지역 간 또는 도시 간의 문물교류에 특히 페르시아 만 해안과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연결해주면서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Albert. E. Dien, Palmyra as a Caravan city, 1~10).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도시 발흐(Balkh, 그리스명 Bactria, 한자명 大夏)는 실크로드의 많은 교류거점 가운데 특이하게 오늘날 폐허가 되어 있다. 이 도시는 현재 마자레 샤리프(Mazar-e Shrif) 근교에 있었다. 이 도시의 특징은 그 운명이 기구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기원전 328년에 정복할 때만 해도 이 도시의 명성은 바빌론, 니네베(Nineveh) 및 엑바타나(Ecbatana, 현 이란의 Hamadan)에 견줄 정도로 대단했다. 그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은 여러 나라 말로 각각 다르게 알려졌다. 즉 힌두교의 성전 『리그베다』에는 <발히카>, 조로아스타교의 성서 『아베스타』에는 <바후 데이>,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바흐토라슈>, 아랍어에는 <움물 빌라드(도시의 어머니)>, 또 현장 큰 스님의 『대당서역기』에는 박갈(縛喝)로 표기되어 있다(정수일, 616).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유명한 고전(古典)에서 이 도시의 이름을 기재하여 널리 알려줄 정도로 유명했다. 이란 고대 종교의 여신 아나히타(Anahita)의 사원이 이 도시에 있었는데, 보물을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약탈의 대상이 되어오다 결국 당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신화적인 도시이다.

더구나 이란의 시성 피르도우시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교(일명 배화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Zoroaster, 기원전 630년경~552년 경 생존)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또한 그가 만년(晩年)을 보내다 죽은 성지로 묘사되어 있다. 즉 이 도시는 조로아스터교의 본산(本山)으로 그 명성이 높다. 『아베스타』는 비록 고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지만 주변의 여러 나라와 종족에게 포교하기 위해 이곳에서 아람어를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었다 한다.

하지만 불교가 기원전 1세기경에 들어오자 이 배화교 사원은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져서 그 이름도 나바 비하라(Nava Vihara 즉 새로운 수도원)로 개명되었다. 이것은 옛 조로아스터교 사원을 부정하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개축 또는 개선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배화교의 전통을 존중한 나머지 등불은 여전히 밝혀졌다고 한다. 당시 불교를 받아들여 숭상한 민족이 월지 족, 즉 쿠산 족이라 함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앞의 195쪽 참조).

현장법사가 이 사원을 방문했을 때 이 수도원에는 매우 값비싼 부처상이 즐비해 있었으며 또 이 도시와 그 주변에는 100여 개의 사찰과 3,000여 명의 승려가 있었고 또한 수많은 사탑과 기념물이 수없이 들어찬 불교 도시였다.

그러나 7세기에 이란이 이슬람에 정복당하자 사산조 최후의 황제 야즈다지르드(Yazdajird)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한동안 저항했다. 그러나 곧 이 도시마저 이슬람에 정복당하고 그 주민마저 개종하여 오늘날 이슬람의 도시로 남아 있다. 10세기의 지리학자 이븐 하우갈(Ibn Hauqal)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성벽은 찰흙으로

되어 있다고 묘사했다. 이 도시의 북서쪽에는 대상들의 숙소 건물(Caravanserai)이 남아 있는데, 그 시설이 꽤 편리하고 숙소의 한쪽에는 정원이 가꾸어져 거창한 숲을 이루어 매우 장관이었으며 또 그 그들이 매우 시원했다고 전하고 있다(www.afghan-network.net/Culture/old.balkh.html).

소그디아나(Sogdiana)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아무 다르야(Amu Darya, 영어 Oxus)와 시르 다르야(Syr Darya, 영어 Jaxartes)라는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아랍인들은 이 지역을 마와라 안 나흐르Ma wara al-nahr라 불렀다)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당대(唐代)의 중국서적에는 소무구성(昭武九姓)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그 거주민을 때로는 소그드인 때로는 소무구성사람들이라 표기했다. 그렇게 부른 연유는 임금의 성(姓)이 소무(昭武, shaushu)인 왕을 여러 명이나 섬겨 왔기에 이 지역을 6성 또는 9성 소무 지역이라 불렀다(정수일, 158, 175).

육성(六姓) 지역에는 소그디아나의 도시 사마르칸트(康國), 부하라(大安國), 소안국(小安國, 즉 가리캉가드Garizkangad), 사국(史國, Kesh 현 Shareshabz), 하국(何國, Kushaniya, 사마르칸트 서쪽), 조국(曹國, Kabudhan, 사마르칸트 북쪽) 등 여섯이며 구성(九姓) 지역에는, 소안국과 대안국을 안국, 즉 부하라로 합하여 하나로 보며 거기다 타쉬켄트, 즉 석국(石國), 미국(米國, 또는 미수 米遂, Maimargh, 사마르칸트 동쪽 60km에 있는 타지키스탄의 Penjikent 추정), 화심(火尋)과 무지(戊地)가 추가되어 소위 소무구성(昭武九姓)이 제각기 일종의 도시국가를 형성해 있었다. 이들 군소 도시국가들은 당나라의 그늘에 한동안 유라시아 대륙

의 동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무역 거점 지역으로 발전했다(森安, 실크로드와 唐제국, 92-95; 정수일, 158 & 175).

소그드인들의 활동 중심지이며 옛 소그디아나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옛 소그드어로는 ‘Smarakanda’이고 그리스어로는 ‘Marakanda’라 불렀다. ‘samar’는 산스크리트어의 ‘samarya(고대 페르시아어로는 hamar)’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뜻은 ‘만남의 장소’이고 ‘kand’는 도성 또는 마을이란 뜻이다. 즉 소그드인들 특히 상인들이 자주 만나는 곳이란 연유에서 이 도시의 고유한 지명이 된 것이다.

또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압 궁에는 7세기 후반 경에 이 도시의 왕 왈프만(『신당서』의 서역전에는 拂呼纒)이 여러 나라 사절단을 맞이하여 입궐 행렬을 짓고 있는 광경을 그린 사행도(使行圖)가 걸려 있다. 이 벽화 속에 조우관(鳥羽冠)을 쓰고 황색 상의(上衣)에다 흰 바지를 입고 환두대도(環頭大刀)를 차고 두 손을 공수(拱手)한 채 서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다. 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차고 있는 패용물, 특히 조우관을 보아 고구려사람으로 보는 것이 동서학계의 대세이다. 즉, 소그디아나와 한반도가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정수일, 610).

게다가 사마르칸트는 본래 수원이 풍부하고 수리조건이 좋아서 종이의 원료인 대마(大麻)나 아마(亞麻)를 재배하기에는 그 토양(土壤)이 아주 적합했다. 마침 서기 751년 탈라스(Talas) 전투에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인 고선지(高仙芝) 장군이 이끄는 당군(唐軍)이 아랍 무슬림군에 패했다. 그때 사로잡힌 당군의 포로는 약 2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제지법을 아는 기술자를 고용하여 이슬

람세계 최초의 제지공장을 이곳에 세웠다. 그 결과 8, 9세기에 이슬람세계 도처에 제지공장이 설립되어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게 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Hitti, 347). 그 결과 이슬람세계에는 물론이고 결국 유럽에까지 제지법(製紙法)이 전파되었다. 이 도시는 곧 중국의 제지술이 서진(西進)하는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6세기경에 현장 스님은 사마르칸트의 성벽이 매우 인상적이고 또 시장에는 먼 나라에서 들어온 이색적인 상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의 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말하고 있다. 도시 자체는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그디아나의 도시국가들은 당나라 때에는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와 강거(康居)도호부의 관할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 강거도호부의 소재지가 현재의 사마르칸트냐 또는 침켄트(카자흐스탄의 시르 다르야 강변 소재)인 근이나 하는 논란이 학계에 일고 있다.

중계무역지로서의 소그디아나는 이란, 인도, 중국의 중간지점에 있었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이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대상, 군대,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종류의 물품은 물론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를 받아들였으며 또 한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했다. 예를 들면 아랍 군대는 8세기에 들어와서 이슬람을 이 지역에 소개했고 동시에 중국의 제지법을 사마르칸트에서 배워갔다.

사마르칸트는 1220년에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정복했을 때 주민의 대부분이 학살당했다. 그 결과 1270년대에 마르크 폴로가 이 도시를 찾았을 때에는 그 경제적 활력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370년대 티무르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자 다시 흥성했다.

부하라는 산스크리트어의 ‘vikhara’, 즉 승원(僧院)이란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5세기경에 이란의 사산 조 때 한 왕자가 소그디아나의 왕 아프라시압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 감사의 표시로 이 도시에 성벽을 축조했다는 전설이 나돌고 있으나, 실제 내성(內城)을 쌓아 올린 이는 7세기 전반기의 부하라 영주였다.

이 도시는 한때 사만 조(Samanids, 819~1005)의 수도였으며 그 별칭이 ‘이슬람의 기둥’이라 불렸다. 게다가 이 도시가 당시 이 왕조의 종교와 예술의 중심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문화의 본산(本山)이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유적, 즉 이슬람 사원, 묘당(廟堂) 및 신학교(madrasa) 건물이 이 도시에 많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귀한 서적도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즉 982년경에 저술된 『후두드 알 알람(Hudud al-alam, 세계의 지역들)』이란 저자미상(著者未詳)의 페르시아어 지리서가 이 도시에서 1892년 러시아의 중동연구가 투만스키(Toumansky)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후에 페르시아어 원문을 재정리하여 1930년에 발간되었다. 곧 이어 1937년에 미노르스키(Minorsky) 교수에 의하여 런던에서 영문으로 해설과 주석이 더불어 출간되었다(Minorsky, Hudud viii-x).

문화적·정치적·경제적안 문물의 교류와 더불어 식물의 교류도 뒤따랐다. 한 무제의 특사 장건 일행이 24년간(기원전 138~115) 서역, 즉 중앙아시아 지역을 네 차례에 걸쳐 방문했는데 귀국길에 가지고 온 물품 가운데 몇 가지 식물도 들어 있었다. 서진(西晉)의

장화(張華)가 엮었다는 『박물지(博物志)』에 따르면 포도(葡萄), 석유(石榴), 홍람(紅藍, 잇꽃, safflower), 호두(胡豆), 호과(胡瓜), 호도(胡桃), 호안(胡荽, 고수풀, Coriander) 등이 서역에서 들어온 전래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학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단지 서역의 개척자 장건의 명성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Nagasawa 55쪽 주석 8 참조).

이 가운데 포도는 소그드어로 Bodow라 부르는 것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 보도우(葡萄)인데, 이 중국식 한자음을 다시 한국식 한자음으로 음역한 것이 포도이다. 이란어 계통에 속하는 페르시아어의 고어와 소그드어에서는 포도를 Bodow라 불렀고 지금도 이해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포도가 전래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충남 부여박물관에 소장된 백제의 해수포도무늬 거울(海獸葡萄文鏡)에 여의주 태극(1점, 2원 동심원) 안에 바다짐승과 더불어 포도와 그 덩굴이 그려져 있다. 또한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곡옥(曲玉)이 딸린 수태부(受胎符) 목걸이에 포도무늬와 또 그 안에 서역인이 상감되어 있다. 또한 고려청자 가운데 술병과 주전자에 동자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덩굴을 잡아당기며 노는 모습이 상감되어 있는 것이 흔히 보인다. 포도 덩굴무늬(葡萄唐草文)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민족에게는 불로장생의 상징으로서 공예품, 가구, 의복 등에 흔히 쓰여 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 때나 고려 때에 서역과의 교역이 간접적으로나마 이루어진 것 같다(한국 문화상징사전 2권, 717).

하지만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은 『세종실록』 제153권 『지리지』 강원도 조인데 즉, 포도와 다래가 공물(貢物)로 국가에 바치는 물품 가운데 들어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포도를 머루로 보는 이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포도나무 참조). 포도는 아마도 한겨레와 1000년 이상 인연을 맺어 온 것 같다.

소그디아나에서는 오아시스길의 천산(天山) 북도(또는 北路)와 중도(中道, 또는 南路)가 만날 뿐 아니라 오아시스길과 또한 초원길이 만나는 요지이다. 반면에 타림분지(Tarim Basin)는 천산 북도와 중도가 돈황 근처에서 갈라져 북도는 천산 산맥을 북쪽으로, 중도는 이 산맥을 남쪽으로 지나간다.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면 북도나 중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천산 산맥을 거쳐 타림분지를 지나오다 돈황 근처의 옥문관에서 만나게 된다. 즉 타림분지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요지이다.

비록 이 분지는 험난한 사막으로 덮여 있으나 한겨레의 정신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불교가 넘어들어 온 길목이며 또 한겨레가 배출한 세계적인 두 걸출, 즉 혜초 스님과 고구려유민 고선지 장군과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 흥미롭다. 더구나 이 분지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카슈가르는 위구르어로 ‘알록달록한’, 즉 다채로운 곳이란 뜻이다. 이 도시는 또한 중국역사에서는 그 서쪽 출입문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구자와 돈황을 비롯한 타림분지는 중국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중앙아시아의 사자춤(獅子舞)을 받아들인 곳으로 정평(定評)이 나 있다. 수·당대에 이곳에서 인기를 얻은 사자춤은 곧 각지로

퍼져나가 유행하게 되었고 9세기경에는 한반도에까지 전래되었다.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북청 사자놀이, 하회탈춤 등도 곧 그 기원은 중앙아시아임을 알 때 문화의 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되새겨진다.

특히 카슈가르의 위치가 산악과 초원(스텝), 오아시스와 사막, 동(東)과 서(西)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국, 몽골, 인도, 이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연결해 주는 교차점이 되어 왔다. 또한 티베트와 외부세계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관문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과거에 이 도시는 여러 문화와 사상이 어울리는 만남의 광장이었다.

먼저 이 도시의 명칭이 변한 유래만 봐도 그 다양성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 도시의 옛 중국이름은 Shule(소륙疏勒)인데 그것은 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suluk(투르크어로 물) 강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srikirati(행운, 환대)라는 이 도시의 명칭을 한자로 음역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송대(宋代) 이후 현재의 이름 카슈가르(Kashghar, Keshihar, 즉 可失哈兒 또는 Hadhihar, 즉 哈實哈兒)로 정해졌다(www.chinaknowledge.de/History/Han/citystates.html).

이 도시의 이름은 『한서』에 처음 언급되어 있다. 즉 한(漢)이 기원전 78년에 흉노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천산 산맥 기슭의 타림분지에 자리 잡은 호탄, 카슈가르 및 다른 여러 도시국가를 정복했다는 기록이다. 그 후 후한, 수(隋), 위(魏)의 시대에도 이 도시국가는 독립, 반독립 그렇지 않으면 중국 또는 흉노에게 예속되어 있

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있었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만은 조공(朝貢)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조정(朝廷) 간의 외교와 교역관계의 지속은 피할 수 없었다.

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 도시에 들어와 채 100년도 못되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곧 그 뒤를 이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야파 그리스도교(일명 景敎) 등의 종교들도 서기 2, 3세기경에 차례로 들어와 선교에 매진했으나 불교처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당대에는 현장법사가 6세기경에 인도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 도시를 찾았는데 그의 『대당서역기』에 몇 마디 남겼다. 즉 이곳 주민은 몸에 문양을 하고 있으며 눈빛은 초록색이라 했다. 또한 주민은 독실한 불교신자여서 수백 개의 수도원에는 만여 명의 승려가 수도(修道)에 여념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라 스님 혜초(慧超, 704~787)도 727년경에 이 도시를 지나 당의 수도 장안으로 돌아갔다.

고비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둔황(敦煌)은 타림분지 동쪽 변두리에 흘러가는 당하(黨河)강 하류에 위치해 있다. 기원전 111년에 한무제(漢武帝)는 이 도시에서 흉노족을 쫓아내고 요새로 만들어 서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았다. 이 도시에서 실크로드는 천산(天山) 남도(南道)와 북도가 갈라지는 요충이기 때문이다.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시대(기원전 206~서기 220)에 한족(漢族)의 이주정책을 시행한 결과 이 도시에는 중국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도시에 불교는 서기 1세기경에 들어와 꽃피우게 되었다. 특

히 1908년에 프랑스 동양학자 펠리오(Pelliot, 1878~1945)는 돈황의 천불동(千佛洞) 석굴 가운데 하나인 모가오(Mogao) 석굴에서 신라스님 혜초(慧超, 704년경~787년경)가 쓴 여행기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의 두루마기 원고를 비롯한 많은 귀중한 문헌을 발견하여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책은 인도와 서역 순례기(723~727년)로 간략하게 쓰여 있는데, 총 230행에 약 6천 자에 불과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혜초 스님이 해상으로 중국을 떠나간 것은 확실하나 인도 도착하기까지의 경로(徑路)에 대한 설명이 이 여행기에는 빠져 있어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동천축(東天竺)에 상륙한 후부터 인도의 여러 불교성지를 두루 여행한 후, 육로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지나 타림분지의 구자(龜茲)까지 돌아온 여로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다(정수일, 570). 그 속에 다섯 색깔의 소금(오색염 五色鹽)에 관한 기록은 그 원산지인 현 우즈베키스탄의 가르쉬(Qarshi)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다(왕오천 축국전 호국 胡國 참조). 최근에 이 책은 한국어로 여러 권 번역되어서 출간되고 있다.

혜초는 한반도 출신자로서는 최초로, 즉 서기 720년대에 현 이란의 니샤푸르(Nishapur) 땅을 밟았으며 또한 최초로 대식(大食 또는 大食, 즉 아랍인)을 언급한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최초로 이슬람권과 접촉한 한겨레였다. 물론 당시 니샤푸르를 포함한 후라산(Khurasan) 지역은 이미 이슬람의 영역이 된 지 5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여행기 속에 이슬람에 대한 언급은 없다(간수, 348). 아마도 당시 이 도시에는 아직 이슬람이 지배적이 되지 못한 것 같

다.

돈황은 당대(唐代)에 들어와서 그 이름이 사주(沙州)로 바뀌어 지기도 했다. 또한 당의 세력은 그 전성기에 이르러 서쪽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가게 되자, 그 전진기지도 돈황에서 타림분지의 서쪽 끝에 있는 구자(龜茲)로 옮기면서 그곳에다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이 관청 겸 군사령부가 당의 서역경영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 구자에서 고구려유민 출신으로 당의 명장이 된 고선지(高仙芝, 755년 처형당함) 장군이 어릴 적 장교인 아버지 고사계(高舍鷄)를 따라와서 장성할 때까지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장성한 후에는 약관 20세에 음보(蔭補)로 유격장군이 되어 서역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구자에서 안서도호부 도독(都督)이 되어 당의 서역경영 제일선에서 직접 지휘했다.

영국의 역사탐험가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은 고선지 장군이 1만 명을 이끌고 힌두쿠시(Hindu Kush) 산맥을 넘어 티베트를 쳐들어간 그의 대원정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Hannibal, 기원전 247~183경)이나 프랑스 대혁명군의 기수 나폴레옹(Napoleon)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원정보다 그 길이 더 험난했다고 평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고선지는 현재의 타슈켄트(석국 石國) 지역 왕을 사로잡아 장안으로 호송하였고 결국 당의 조정은 몇 년간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 시켰다. 그 때문에 왕자가 이슬람 아랍 군에 달려가 당군(唐軍)의 잔인함을 읍소하고 응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적극 협력하게 되었다(지배선, 174-179 참조).

고선지 장군 휘하의 당군(唐軍)은 751년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중국 문화권에 머무느냐 또는 이슬람권에 들어가느냐 하는 탈라스(Talas) 대결전에서 이슬람세력과 부딪혔다. 당시 중앙아시아의 요지인 소그디아나 지역은 비록 당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아직 느슨한 편이었다. 이때 서쪽에서 이슬람 제국(우마이야 조, 660~750 존속, 압바시아 조 750~1258 존속)의 동진(東進)은 당에게 커다란 도전이었다. 이 결전에서 당의 패배는 결국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동쪽은 중화 문화권에, 서쪽은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가 상호 병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특히 마흐무드 가즈나비(Mahmud Ghaznavi, 970~1030)는 투르크계 종족으로서는 일찍이 이슬람에 입문(入門)하여 술탄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또 그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가즈나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가즈나 조(Ghazna朝, 962~1186)는 투르크족이 이미 이슬람화된 영역에 들어와서 세운 최초의 왕조였다. 물론 서투르크스탄에 세운 투르크계 카라한 왕조의 사투크 보그라 한(Satuq Boghra Khan 955 죽음)이 이슬람에 개종한 최초의 군주였지만 그의 백성들은 아직 선조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그의 영역은 아직 이슬람 지역으로 볼 수 없었다.

그 후 마흐무드 가즈나의 성공에 영향을 받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부족들은 중국 쪽으로 향해 진출하기보다 중근동 쪽으로 눈을 돌려 대저 서진(西進)의 장거(壯舉)에 오른 것이다. 즉 가즈나

조를 뒤따라 투르크계의 셀주크족은 시르 다리야 하류에서 발흥하여 이슬람 영역의 중심지인 이란과 이라크에서 셀주크 조(Seljuk 朝, 1037~1186)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 영향으로 투르크족은 대거 이슬람교로의 개종이 촉진되었다.

그 연쇄반응으로 셀주크족의 일파인 오스만 씨족(Osmans)은 드디어 오스만 터키 왕조(Osman Turkey, 1300~1924)를 소아시아반도에 세워 이슬람을 등에 업고, 순니 무슬림을 단결시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세계의 대강국으로 600년간 군림한 것이다.

물론 탈라스 전쟁의 승리를 시작으로 투르크족들의 이슬람으로의 개종과 서진이 촉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사건을 탈라스 전쟁의 결과에 귀인 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그 이후 투르크족은 중근동으로 대이동하게 된 것이다. 즉 그 결과로 신강성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은 모두 무슬림이 되어 메카를 향하여 하루 다섯 번씩 예배를 봄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중국친화에서 이슬람 내지 무슬림친화로 바뀌었고 또 그것에 비례하여 중국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 상황은 12세기부터 시작되어 18세기 후반에 신강성이 청나라에 병합되기까지 지속된 것이다.

제7장

결어와 후기

오늘의 겨레가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모습, 활동상황 및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함은 마치 오늘의 내가 어제와 그저께의 나를 알고 있어야 함과 같다고 본다. 물론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남에게 비친 내 모습을 제대로 알기 힘들니까 알아두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같은 이유로 한겨레인 조상님들이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에게 비친 모습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적 참모습과 또 활동방향과 반경을 찾아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아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잘 아니까 그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들 또는 손자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어서 그만큼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상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겨레와 다른 민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우 우리의 역사학계는 그 사명이 조상님들의 족적을 찾아보고 또 그

접촉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고 자신의 조상을 평가하는 데도 객관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면 우리 조상의 평가도 역시 우리보다 남들이 해야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남들은 곧 나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겨레의 거울은 우리와 접촉하는 외국인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우리 조상님의 거울도 역시 그분들이 직간접으로 접촉한 외부인, 즉 다른 겨레였다.

물론 이 책의 주제인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상’은 우리 조상님들과 한반도의 극히 작은 부분만 비쳐줄 것이다. 또한 그 속에서는 비록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얼과 일상생활 내지 그분들의 터전인 한반도의 작은 단면만 언급하는 데 불과하겠지만 참모습의 부스러기라도 찾아볼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중세 이슬람 문헌에 비친 한반도상’이란 제목에 걸맞게 알찬 글을 한 번 읽어보겠다는 심정에서 시작은 했지만 막상 중세 이슬람 문헌의 개념부터 우선은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한반도를 언급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서적을 살펴보니까 최후 문헌이 거의 16세기 초에 나온 것이었다. 결국 중세 이슬람 문헌의 개념은 16세기 초 이전에 나온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모든 문헌을 취급하게 되다보니 중세란 이름은 단지 편의상일 따름이다. 그러다 보니 현 한국 실정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원문의 수집이 지극히 어려웠다. 그 때문에 번역문에 일치하게 원문을 이 글의 말미(末尾)에 상당한 부분 수록했지만 아직 남은 부분도 많

다. 언젠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중세 이슬람 문헌을 언어별로 분류해 보면 아랍어는 약 20만 권, 페르시아어는 약 5만 권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신학, 특히 코란 해설서, 이슬람 법학서가 근간을 이루나 역사, 지리, 천문학, 수학, 광학, 생물학 서적도 상당히 들어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언급한 서적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18권인데 역사, 지리 및 여행기 등이고 그 속에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18권 가운데 15권은 아랍어로, 3권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다. 아랍어 문헌에서는 한반도를 주로 신라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아불 피다만은 신라와 카울리(고려)를 같은 쪽에 나란히 기록하고 있어 유일한 예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3권의 페르시아어 문헌 가운데 먼저 나온 두 권은 한반도를 카울리라 칭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 놓았으나 카울리가 신라의 계승 국가란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에 인도에서 가장 늦게 나온 페르시아어 서적은 단순히 아랍어 문헌을 읽고 신라의 위치만 페르시아어로 기록해놓고 다른 언급은 전혀 없다. 중세 중동 무슬림에게는 국호(國號)의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여 지명(地名)과 거의 구분이 없었다. 비록 중국의 국명이 아무리한, 당, 송, 명, 청으로 바뀌어도 그것은 중세 중동 무슬림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왕조의 변화로만 보였고 국호로는 보지 않았다. 즉 중국은 중국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중세 유럽에서도 역시 같았다. 즉 프랑스는 항상 프랑스였다. 오직 동아시아, 즉 한자문화권에서만 국호의 개념이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중세 중동 무슬림은 신라와 카올리가 같은 나라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위에 언급한 18권의 중세 이슬람 문헌 속에 나타난 한반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가식적인 것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 등 4가지다. 사실적인 것으로는 국호(國號, 신라와 고려), 위치, 지형에 대한 것이다. 신라라는 국호는 신라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칸수, 155). 하지만 당·송시대에 황해나 남중국해 연안의 중국사람도 신라를 한국어 원음대로 또는 중국어도 ‘실라’로 발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당시 중국 한자의 표준발음과 또 방언 발음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신라의 지형에 대해서는 산이 많다든가, 신라는 섬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산이 많다는 언급은 지극히 정확하지만 여섯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당치 않다. 즉 잘 몰랐던 탓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중세 중동 무슬림은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까지 배로 왔기 때문에 신라를 섬나라로 묘사함은 무리는 아닌 것이다.

또한 신라의 위치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중국의 동쪽 즉 육지의 동쪽 끝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자상하게 동경(東經) 170도 내지 180도로부터 북위 5도에 있다고 단정까지 하고 있다. 또한 프톨레미의 지리학에 심취한 학자들은 신라를 제1지대(iqlim)

에 위치한 것으로 단정하나 옛 이란의 지리학을 계승한 학자는 제7지역권(keshwar)에 있다고 언급한다. 이 단정은 한반도의 실제 위치(동경124~130도 북위33~42도)와는 상당한 오차가 있다. 오늘날은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의 중심, 즉 0도로 보고 적도를 위도의 중심 즉 0도로 본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의 세계지리관은 메카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의 차이에서 상당한 오차가 생긴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한반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실제와 일치하면 진실로 인정되나 그렇지 못하면 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상적인 것은 신라를 동반구의 이상향으로 묘사하여 서반구에 있는 아틀란티스(Atlantis)와 비교한 데 있다. 더구나 아틀란티스는 무인도(無人島)로 본 데 반하여, 신라는 유인도로 추켜세워서 현실성을 한층 더 높여 놓은 데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를 그들이 직접 왔다는 물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근동의 사막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처럼 광활하지도 않고 동남아처럼 덥지도 않은 알맞은 기후에다 기름진 풍요한 땅을 중세 중동 무슬림은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에 한반도를 다녀온 뱃사람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맛에 맞아서 이상향으로 격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라나 고려를 언급한 18권의 서적 가운데 일부만 그렇게 언급했을 뿐이다.

가식적인 것은 곧 중동의 이슬람 역사적 실체를 한반도와 결부시킨 것이다. 즉 정권 투쟁에서 실패한 알리파(派)가 한반도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주장이 그 대표적이다. 특히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Ali ibn Ali Talib, 661 죽음)가 제4대 할리파로 지내다 암살당하자 그의 지지 세력인 알리파는 권력 쟁탈권에서 밀려나 박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의 일부가 이상향인 신라로 피신하여 잘 살고 있다는 식의 묘사는 바로 예언자의 후손들은 알라의 은총을 받아 어느 때 어디서나 건재함을 과시해 보려고 한테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산지(산카이) 섬, 우스티쿰, 암모니아 섬 등 지명(地名)은 아직 그 위치조차 생소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당시의 지명과 지리 지식을 아직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기 10세기 전후 200년간 즉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약 500년간에 이루어 놓은 중세 중동 무슬림들의 지리학적 업적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위의 여러 문제점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중세 중동 이슬람 문헌에서 한반도를 신라 또는 고려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한반도까지 직접 왔거나 또는 적어도 중국까지는 왔기에 그러한 이름을 들었을 것으로 본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고려 초에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碧瀾渡)를 출입한 대식국(大食國) 상인은 세 번에 걸쳐 모두 합해 약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기록되지 못한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 대식국 상인의 수는 더 많을 것이고 또 대다수가 아랍사람인데도 아랍어 문헌에는 신라로만 언급되고 있다. 단지 아불 피다가 지나가는 말로 고려국(bilad kauli)을 언급했을 뿐 고려

국에 대한 설명은 이 책의 어디에도 없다(앞의 102쪽 참조).

또한 당·송대에는 황해연안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발음도 신라에 대한 지칭(指稱)으로 현대중국어발음인 ‘sinlo’ 또는 ‘sinla’가 아니고 ‘sila’ 또는 ‘shila’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신라인의 발음을 존중해서인지 아니면 당시 황해연안의 중국어 발음도 그랬는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한반도에 대한 중국어 지칭은 아랍사람들에게 중요했기에 아랍어로는 계속 sila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송·원대에 많은 대식국 상인들이 고려의 벽란도를 출입했지만 고려란 기록은 없고 카울리란 호칭만 페르시아 문헌에 그대로 표기되었던 것이다(앞의 102쪽 참조).

또한 한반도를 언급한 18권의 저서를 집필한 저자들은 모두 한반도에 관해 듣거나 읽고 언급한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중국과 인도 소식』을 저술한 무역상 슬레이만이다. 그는 적어도 중국까지는 직접 와 본 것 같으나 한반도까지 왕래한 것 같지가 않다. 한마디로 저자들은 모두 단순히 듣거나 읽거나 하여 한반도를 신라 또는 고려 즉 카울리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이슬람 문헌 가운데 한반도를 최초로 언급한 이븐 후르다드비는 읽을 책도 없었으니까 오직 듣고서만 신라를 언급했음이 확실하다. 그 자신이 우편국 관리였기에 세계 지리에 관한 정보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즉 그가 한반도를 다녀온 여행자나 뱃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가 동쪽 끝의 나라라는 사실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들을 통하여 알았을 것이다. 즉 그들의 여로(旅路)를 추적했을 것이다.

이 여로에는 바닷길과 땅길이 있는데 대체로 중세 이슬람 문헌에는 신라는 해로(海路)를 통하여 중근동에 알려진 것 같으나, 고려 즉 카울리로 알려진 통로는 해로인지 육로인지 확정하기 난감한 형편이다. 대식국 상인들이 고려 때 벽란도까지 몇 번 왔지만 고려라는 이름은 이슬람 문헌에 나오지 않고 오직 카울리라는 중국어식 발음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한반도에 대한 이 단편적인 기사는 모두 땅길이든 바닷길을 통하여 또 이 길을 오간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하여 퍼져 결국 저자들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세 중동의 뱃사람과 여행가들의 여로를 한 번 되돌아봄도 10세기 전후의 세계와 또한 세계 속의 한반도와 그 주변의 변화를 터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적해 보았다. 그것도 단순히 바닷길과 땅길의 여로를 소개 내지 명시하기보다 뱃사람, 무역상, 대상, 여행자, 외교사절 등이 오가다 머문 항구나 또는 거점 도시를 몇 개 선정하여 한반도와의 연관성이나 문화교류상의 역할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지배적인 여러 가지 시대상황이나 동향을 엿볼 수 있었다.

또 문화교류에 이바지 한 북방 기마유목민족들도 한겨레와의 교류가 짙거나 또는 동서문물교류에 맡은 역할이 컸으므로 함께 취급하여 그들의 역할을 음미해 보고 평가했다. 즉 길 따라 세월 따라 중근동과 한반도를 잇는 바닷길과 땅길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을 한반도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묘사 내지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 보았다.

10세기 전후의 실정으로는 북방기마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부류의 여행자들은 배로 가든, 말 또는 낙타를 타고 가든 중근동에서 중국 또는 한반도까지 오가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도중에 항구든 도성(都城)이든 한 곳에서 몇 주 내지 몇 달간 머물면서 가져 온 상품을 팔고 또 그곳의 유명한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소일하면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갈 준비를 꾸려야 했다.

한반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곳까지 한겨레의 드나들이 적은 것은 확실하지만 바닷길이든 땅길이든 길은 역시 길이기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드나듦과 동시에 그들의 입김이 풍기거나 때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월한 문화나 종교 또는 무력을 지닌 민족이나 종족은 결국 길을 통하여 세력을 확립하면서 오가고 그때마다 족적을 남기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더구나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대외접촉 창구는 초원길, 오아시스 길 및 남해로(南海路)인데 그 중요성이 시대의 흐름과 동시에 그 비중(比重)도 변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반도의 상고사에 해당하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전에는 초원길의 비중이 높아 그 길을 통해 북방기마 유목민족에 속하는 스키타이, 흉노 및 투르크계 민족들이 전해 준 문물로 한반도는 영향을 많이 받아 온 것이다. 특히 흉노족과 투르크족들은 혈연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한겨레와는 더 밀접했기 때문에 훨씬 접촉이 손쉬웠을 것이다. 더구나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북 지역에는 상고시대에 선비, 말갈등 주로 동이(東夷)족이 거주하는 지

역인데다 지리상으로도 한반도와는 육로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초원길을 거쳐 들어온 여러 문물에 한겨레의 눈이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서기 기원 전후의 초원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북방유목민의 기마술도입이다. 이것은 곧 새로운 생산기술의 혁명이었다. 더구나 유목민은 부족 내지 씨족단위로 끼리끼리 집단적으로 이동생활하면서 소떼나 양떼를 기르는데 종래까지는 많아야 수백 마리 정도 방목하는 데 지나지 않았지만, 기마술의 도입으로 수천 또는 심지어 그 이상으로 방목규모가 확대되었다. 또 기마유목민족의 이동반경도 기마술의 도입으로 그 활동무대가 훨씬 넓어졌다. 더구나 유라시아에는 숙련된 기마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정착민을 굴종시킬 수도 있었다.

기마유목민족에게 초원길은 바로 하늘의 은총이었다. 그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서로서로 물물교환도 했기에 초원길은 동서문화교류에도 공헌했다. 그러나 초원길은 말(馬)로써 상품을 운반하기에 낙타를 활용하는 오아시스길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초원길은 인구밀집 지역인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한 황하 지역과는 거리상으로도 오아시스 길보다 더 멀어 결국 9세기 이후에는 그 경제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초원길은 여전히 군사이동용으로는 13세기에 몽골족의 유라시아 대륙정복 때까지 장기간 존속했다.

말이 초원길의 교통수단이었다면 낙타는 오아시스 길 즉 사막길의 배였다. 낙타는 속도 면에서는 말의 경쟁자가 될 수 없었지

만 한 마리당 운반물량으로 따져 보면 당연히 말을 압도했다. 더구나 한사람이 몇 마리의 말에 짐을 싣고 장거리를 가기는 쉽지 않으나 낙타의 경우는 말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안이했다. 즉 낙타는 소 보다 평균 세배 내지 다섯 배의 짐을 더 운반 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유순하여 다루기도 쉽고 그 걸음도 소보다 더 빨랐다. 오아시스길은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혹독한 겨울철이 초원길 주변보다 훨씬 짧고 온화하다. 따라서 중국의 중원 지역에는 초원길보다 오아시스길이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일찍부터 더 중요했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아시스길을 통하여 인도와 중근동 지역과 접촉하는 것이, 초원길을 통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가까웠고 또 더 신속했다.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 대(對)중국친화정책의 추진으로 중국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당시 한반도 사회에는 문자가 없었기에 한문(漢文)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점차적으로 중국에 더 친화적이 되었고 또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 후 점차 중국과의 바닷길 즉 황해의 횡단 해로도 트여서 교류는 더욱 가속화 되었고, 또 그에 비례해서 문화적으로는 더욱 중국친화적이 되었다. 즉 장보고가 활동한 9세기 전반기에는 육로보다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하는 비중이 더 증대했다. 그 이후 즉 고려와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이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북방 기마유목민족과의 접촉은 그 강도가 둔화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겨레는 비록 중국 문화에 친화적이 되어가는 데서 그쳤지만

중원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소위 오랑캐족은 점차 한족(漢族)에 완전히 동화되어 결국 중국사람이 되었다. 한족화의 가장 특징적인 시기를 중국역사에서는 오호십육국시대(五胡十六國時代, 304~439)라 부른다. 이 시기에 화북 지방에서 벌어지는 이 오랑캐족속의 한족화현상은 곧 유목민의 정착민화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다섯 오랑캐족이란 곧 흉노, 갈(羯), 선비(鮮卑), 저(氐) 및 강(羌)족이었다. 이들의 정착화와 한족화(漢族化)의 동시 진행현상은 후한(後漢, 25~220), 삼국시대(220~280)에 이미 다섯 오랑캐족이 서서히 화북 지방으로 이주해와서 유목생활을 버리고 농경업을 취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오호십육국시대에 들어와서 이 동향은 더욱 촉진되었다. 따라서 북경지방을 포함한 화북 지역에서 한(漢)족화 바람이 일어났고 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지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길 주변 지역으로도 이 바람이 불어서 결국 중국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화북 지역의 한족화과정의 바람에 날려 주변 지역도 뒤따라 친중국화과정이 진전됨을 감지 할 수 있다.

이 현상의 동인(動因)은 곧 중국 문화의 우월성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아시스 길에서 받는 첫 번째 두드러진 현상이다. 즉 여기서 특기할 점은 유목생활보다 정착생활이 인간성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과 낮은 문화 지역의 주민들은 더 높은 문화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아마도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 같다.

이민족(異民族)의 한족화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당대(唐代)에 들어와서도 중국 조정의 외래인 포용과 융화정책으로 수많은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고관대작을 역임하거나 높은 벼슬자리를 얻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절도사(節度使)나 도호부도독(都護府都督)을 지낸 안록산(安祿山)이나 고선지(高仙芝)를 들 수 있다. 또한 비닷길로 들어와 중국의 여러 항구에 정착한 신라인, 아랍인, 이란인 등과 내륙의 여러 대도시에 정착한 돌궐인, 위구르인, 소그드인도 결국은 모두 중국이란 커다란 용광로 속에 용해되어 중국인이 되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청나라의 중국대륙 지배와 더불어 그 지배 민족인 만주족의 한족화는 더욱 촉진되어 결국 만주족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 동향은 앞으로도 지속 발전 될 것 같다.

오아시스 길의 두 번째 두드러진 현상은 타림 분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이다. 이 지역은 8세기에 아랍인에 정복되어 이슬람화 되기 이전에는 그 주민의 대다수가 불교추종자였다. 이슬람화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아직 흡족치 못한 형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근거로는 첫째 중근동과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즉, 둘 다 사막, 오아시스 및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생활도 서로 닮은 점에 두고 있다.

둘째 중동 종교의 적극성이다. 이슬람도 다른 중동 종교(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스도교)처럼 독선적인 면이 강하다. 특히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신앙이 용납되지 않는다. 즉 진리는 하나지 둘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슬람이란 종교는 정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분

리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종교의 생명은 포교에 있는데 이슬람에는 정치도 일종의 종교 활동이기에 국가기관을 통한 선교활동도 서슴지 않는다<제6장 앞의 208쪽 참조>.

하지만 이슬람은 중국 본토에는 진출했으나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인도아대륙(印度亞大陸, Indo-Subcontinent)에서는 무슬림들이 델리술탄 조(Dehli Sultanate, 1206~1555)와 모굴 제국(Moghul Empire, 1526~1858) 등 여러 왕국을 세워 약 700년간 군림했다. 하지만 오늘날 포교의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의 포교활동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지역을 제외한 인도아대륙에서 이슬람교도는 소수로, 힌두교도가 절대다수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인도 고유문화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슬람은 중국 본토를 정복한 적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포교하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바닷길로 황해와 남중국 해상의 여러 항구도시에 정착한 무슬림과 오아시스 길을 통해 들어와 내륙의 여러 대도시에 정착한 무슬림도 높은 중국 문화의 절벽 앞에 포교가 어려웠던 것 같았다. 오히려 정착한 무슬림들도 종교만 이슬람을 대체로 고수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한족화되어 왔다.

인도나 중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또 독자적인 문화권의 종주국이란 점에서 이슬람의 포교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즉 이슬람교가 도입되었을 때 인도와 중국에는 각각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이미 성숙하여 이미 고전화 내지 규범화되어 있었다. 따라

서 외부문화권에서 들어 온 종교를 비롯한 외래문화의 이식(移植)과 대중화는 매우 어렵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인도아대륙에서 이슬람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주민의 절대다수를 개종시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중국불교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당나라 때만 보아도 불교는 중국 제일의 종교가 되었으나 결코 중국 문화의 핵심이 되지는 못했다.

오아시스길만 종교나 문화전파의 길이 아니었다. 바닷길인 남해를 통해서도 문물 전파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었다. 인간에게 이로운 문물은 날개를 단 듯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퍼져 나갔다. 하지만 바닷길의 특징은 홍해, 페르시아 만 및 인도아대륙의 연안 지역을 모두 포함한 인도양 지역과 중국대륙은 동남아 보다 그 문화수준이 훨씬 높았다.

먼저 인도양 해안과 지중해 연안에서는 문화의 수준차가 별반 없거나 또는 적어서 서로 물물교류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그리스, 고대 이란(페르시아), 로마 제국 등 인도양 해변에는 고대문명국가가 즐비하였기에 서로 정치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일방적이 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서로 보완적이었고 상호호혜적이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중근동과 중앙아시아 정복으로 인한 그리스 문화와 중동 고유문화의 결합에서 나타난 헬레니즘(Hellenism)이 있고 또한 인도 불교 문화와의 만남에서 나온 간다라 미술이 있다.

반면에 인도양의 동쪽에 있는 벵골 만을 사이에 두고 인도와 동남아의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 즉 동남아의 경우에는 토착적인 고유문화가 주변의 인도 문화에 비하여 기원 전후에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때문에 가까운 벵골 만에서 바닷길을 통하여 인도 문화는 힌두교와 불교를 앞세워 이 지역을 강타했다. 결국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처음에는 힌두교로 개종했으나 서기 3세기경부터 불교가 인도의 정치를 지배하자 그대로 모방했다. 즉 오늘날까지 버마, 태일랜드, 캄보디아 및 라오스는 불교 국가로 남아 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인도의 정치가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동남아 일부국가(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주민들은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인도의 정치적 변화를 뒤따랐다.

물론 바닷길을 따라 동남아에 들어 온 아랍, 이란 및 인도 무슬림 무역상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지만 주요인(主要因)은 이 지역이 인도의 문화권에 속한데 있다. 이 인도문화의 바람은 모두 바닷길을 통해서 불어 온 것이다. 동남아 지역(현 베트남 제외)은 일찍부터 인도의 문화권에 들어갔으므로 그곳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무척 민감했다.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동남아에 관심을 갖게 된 한(漢, 전환은 기원전 206~서기25, 후한은 서기 25~220)은 가까운 북부 베트남 지역에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국 이 지역만이 중국 문화 지향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남부 베트남 지역(Champa)은 상당한 기간 여전히 인도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남

부 베트남은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 사이에 벌리는 세력 다툼의 경계지역이 되어 오다 17세기에 북부의 안남(安南)이 남부를 정복함으로써 한자문화권이 오늘날 남부 베트남의 메콩 강 하류까지 내려 간 것이다. 즉 바닷길을 통해 서도 문화와 세력은 뻗어 나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크로드의 세 갈래길 즉 초원길, 오아시스길 및 바닷길(남해로)은 한반도의 입지에서 보면 곧 한겨레가 역사적으로 호흡하는 창구였다. 서기 500년(신라의 지증왕) 이전의 상고 시대에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및 신라는 주로 초원길을 통해서 외래문화를 호흡했다. 또한 당시의 주변정세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동력이 가장 우수한 기마유목민족(스키타이, 흉노 및 돌궐)이 초원길 주변에서 방목하면서 장거리로 이동했다. 이들은 또 이동시에 만나는 다른 유목민과 물물교환식 상행위도 부차적으로 행하였다. 또 초원길은 당시에 한겨레에게 유일한 대륙과의 교통로였고 더구나 만주 지역에는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가까운 동이족(東夷族 말갈, 예맥 등이 살고 있었다. 반면에 중원에 자리 잡은 한족(漢族)은 아직 동북 지방 즉 만주 지역까지는 진출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지증왕 이후에는 한족 거주 지역 주변의 소위 오랑캐족 즉 기마유목민족이 화북 지역에 정착화와 더불어 한족화가 촉진되었다. 특히 오아시스길을 통하여 들어 온 불교를 한족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서역계 오랑캐족과의 조화는 마찰 없이 진전되어 갔다. 또한 한반도도 불교화의 도도한 물결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당나라의 등장과 더불어 기마유목민족의 세력은 정체를 내지 쇠퇴하게 되었다. 또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초원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그 대신 당의 그것은 증대했다.

또한 당이 불교를 비롯한 서역의 문물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 한겨레 또한 오아시스길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이전까지는 대체로 고구려는 육로로, 백제와 신라는 주로 해로를 통하여 중국과 소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한반도는 바닷길을 통해서 해외와 호흡해 온 것이다. 더구나 일본과의 접촉에는 바닷길 외에 다른 접촉방도가 없었고 또 일본으로써는 한반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에 서로가 바닷길을 통해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바닷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했다.

세 갈래의 실크로드(초원길, 오아시스길 및 바닷길)의 변천과정에서 한겨레는 지나간 역사에서 너무나 수동적으로 실크로드에 접근해 온 느낌을 받는다. 유일한 예외가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다. 그 이후에 한겨레의 대외창구는 점차 좁혀든 것 같다. 특히 고려 이후에는 바다에서의 활약상은 더욱 그러하다. 그 때문에 신라의 이름이 고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세 이슬람 문헌에 알려진 것 같다. 비록 고려 왕조가 신라보다 더 오늘날에 가까운 시대에 존속했음에도 그렇게 비쳐져 있는 사실은 한겨레의 해상활동이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12세기 이후의 중세 중동 무슬림의 해상활동도 위축했기에 그렇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오늘의 한겨레는 교훈을 얻어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역량을 키워 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단연 하늘길의 중요성이 그 어떤 길보다 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한반도의 입지적 조건과 한겨레의 역량에 걸맞게 대외창구로 열려 있는 다양한 길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 아랍어 고전

1. Abu'l-Fida' : Taqwim al-buldan. texte arabe publie d'apres les MSS de Paris et Leyde, par M. Reinaud et M.G. de Slane, Vol. I. Paris 1840
2. Biruni : K. takhdid nihayal amakin ed. M. b. Tawit al-Tanji, Ankara 1962.
3. Dimashqi, K. Nukhabat al-dahr fi 'aja'ib al-barr wa'l-bahr, ed, A.F. Mehren, Leipzig 1923.
4. Ibn al-Faqih : Kitab al-buldan, ed. M.J. de Goeje, Leyden 1885(Bibl. Geogr. Arab. Vol. V)
5. Ibn Hawqal : K. Sural al-ard, ed. J. H. Kramers, 2 Vols. Leyden 1938~39(Bibl Geogr. Arab. Vol. II)
6. Ibn Khaldun's Muqaddimah, tr. Franz Rosenthal 3 Vols, New York 1958.
7. Ibn Khurdadhbih : K. al-masalik wal-mamalik, ed. M.J. de Goeje 1889(Bibl. Geogr. Arab. Vol. IV)
8. Ibn al-Nadim : al-Fihrist, Cairo 1346 H(=1929-30). repr. 1952.
9. Ibn Rusta : K. al-a'laq al-nafisa, ed. M.J. de Goeje, Leyden 1892(Bibl. Geogr. Arab. Vol VII)

10. Ibn Said : K.al-Jughrafiya fi'l aqalim al-sab'a,
Beirut, 1970.
11. Al-Idrisi : OPUS Geographicum, tasc. Primus, ed. E.
Cerulli & Others, Leyden 1972
12. Al-Maqrizi : al-Mawa'iz wa'l-itibar fi dhikr al-khitat
wa'l-athar, ed G. Wiet, Cairo 1911.
13. Marwazi : Taba'i' al-hayawan, 『epitome』, Sharaf al
-Zaman Tahir Marwazi on China, the Turks and India.
Arabic text with English tr. & Comm. V. Minorsky
London. 1942.
14. Mas'udi : K. al-tanbih wa'l-ishraf, ed.M. J. de Geoje,
Leyden 1894.(Bibl. Geogr Arab. VIII)
15. Mas'udi : Muruj al-dhahab wa-ma'adin al-jawhar.
Les prairies d'or. texte et tard.C. Barbier de Meynard et
Pavet de Courteille. Paris 1861.
16. Qazwini : 'Aja'ib al-makhlūqat wa-ghara'ib al-mawjudat,
ed. F. Wustefeld, Gottingen 1848.
17. Qazwini. Athar al bilad, Beirut repr.1976 .
Sulaiman al-Tajir : Akhbar al-Sin wa'l-Hind, texte,
trad. et comm. J. Sauvaget, Paris 1948.
18. Tabari : K. Akhbar al-rusul wa'l-muluk,ed. M. J.
De Geoje 1879~1901.
19. Ya'qubi : Ta'rikh, 2 Vols, Beirut 1960

B. 페르시아어 고전

1. Abu'l-Fazl : Akhbar Name, ed. M. Sadiq'Ali., Cawnpore/Lucknow, 1883. Eng. tr. H. Beveridge. Culcutta, 1948.
2. 'Ali Akbar Khata'i, Khatainame, ed. by Iraj Afshar Ali Akbar in 1516~1517. a Persian text describing avayage to China. Tehran 1357~1978
3. Hudud al-'Alam, The Regions of the World, a Persian Geography 982 A.D. 'tr. & comm. V. Minorsky
4. Rashid al-Din, Jami' al-tawarikh, ed. E. Blochet, Leyden 1911.

C. 한국과 중국 고전

1. 고려사(高麗史), 동아대학교고전연구실, 1982(태학사, 太學社)
2. 삼국사기(三國史記), 김부식(金富軾)저, 1982(景仁文化社).
3. 삼국유사(三國遺事), 최남선(崔南善)편, 1946(三中堂書店).
4. 구당서(舊唐書) 중화서국(中華書局)
5. 신당서(新唐書) 중화서국(中華書局)
6. 법현전(法顯傳)ed. & trans. By J. Legge. A record of Buddhistic Kingdoms. Oxford, 1886.
7. 혜 초, 왕오친중국전. 정수일 역주 2004(창자과 비평)

D. 현대어 문헌 및 번역서

가) 한국어 서적

1. 고병익, 러대(麗代) 동아시아의 통교(通交) 『진단학보 71과 72 합병호(1991년12월)』
2. 국제한국학회,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1999
3. 간수, 무함마드, 신라-서역교류사. 1992
4. 나가사와 가즈도시,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이재성 옮김(민족사), 1990
5.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982(동아출판사).
6. 문경현(文暲鉉), <新羅國研究>, 1970, <大兵史學> 第二호
7. 신형식 외 4인, 산동성 이남 지역의 신라유적조사 결과보고서 2006년 출간 예정
8. 신형식, 한국 고대사의 신 연구, 1984(일조각).
9. 온양민속박물관, 신강 위구르 자치구 문물사업관리국 공편 『실크로드 3000년 전』, 2000, 온양
10. 우덕찬,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24-2호
11. 윤명철, 바다 길은 고속도로였다. 2000(사계절)
12. 정수일, 실크로드학. 2001(창작과 비평)
13. _____역, 이븐 바투타 여행기 2001(창작과 비평)
14. 지배선,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석국원정의 문헌학적 고증, 동북아시아 역사재단 편, 중앙아시아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속의 논문. 2008

16. 최상수(崔常壽),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서울, 1971.
17. 탈라트 테긴 지음. 김영일·이용성 옮김, 고대 튀르크
비문의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출판부, 1996.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나) 외국어 서적

1. Baldridge, J ; Bereneke : Roman trade on the Red Sea
Coast of Egypt, London 1995.
2. Bhattacharyya, N ed. : Encyclopaedia of Ancient Indian
Culture, Manohar 1998.
3. Brockelmann, C : Geschichte der arabischen Litteratur,
2 Vols & Supple. 3 Vols. Leiden, 1937~49.
4. Burstein, S., M. : State Formation in Ancient Northeast
Africa and the Indian Ocean Trade, 2001
5. Compareti, M; The role of the Soghdian colonies in the
diffusion of the pearl roundrelspatterns
(www.transoxiana.com.ar/Eran/Articles/compareti.html).
6. Chung, Kei Won & George Hourani ; Arab Geographers
on Korea, in :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58 1938. No. 4 Pages 658~661.
7. Dibson, D ; Nabataea : Arabia (<http://nabataea.net/arabia.html>)
8.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Leiden 1960ff.
9. Haim,S. : The Larger Persian English Dictionary, Teheran

- 1991.
10. Hitti, P. K. : History of Arabs(10th edition), London 1970.
 11. Honigmann, E : Die sieben Klimata, Heidelberg 1929
 12. Hourani. G. : Arab Seafaring in the Indian Ocean,
Prinstone University Press, 1951.
 13. ISE Sentaro(伊勢 仙太郎), Study on the History for
Administration of Si-yu(西城)(in Japanese) Tokyo, 1955.
 14. Karttunen : India, 발행처 및 년도 미상
 15. Khalidi, Omar ; KokaniMuslims : An Introduction
(www.kokaniz.com/history.html)
 16. Kim, jong wee, Untersuchungen zum China-Bild der
Muslim. Kim e in der fruhislamischen Literatur,
Bochum 1975
 17. Kuwabara(桑原), 『東西交通史論叢』, 弘文堂, 1933.
 18. Laufer, B. Sino-Iranica, Chinese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Ancient Iran with Special
Reference
History of Cultivated Plants and Products(Chicago : 1919)
 19. Lexikon der islamischen Welt, ed. K. Kreiser & Others,
Stuttgart 1974
 20. Marquart, J : Osteuropaische und ostasiatische
Streifzuge, Hildesheim 1961.
 21. McCune, Shannon : Arab Accounts of the Geography of

- Korea, arranged & tr. from French by Shannon McCune. s. Ferrand.
22. Merindle, The Invasion of India by Alexander the Great
 23. Moriyas(森安 孝夫), 실크로드와 唐帝國, 2007, Tokyo.
 24. Nasr, Seyyed Hossein : Cosmography in Pre-Islamic and Islamic Persia, Tehran 1971
 25. Needham, J. ; Science and Civilisation of China, Vol. I, Cambridge, 1959.
 26. Pawlowski, A : Historique de la connaissance de la core d'apres la cartographis. Bulletin de la Societe de geographie de Rochefort, Vol. 26, Paris 1904, pp. 216~225
 27. Rypka, ; Iranische Literatur Geschichte, Leipzig 1959.
 28. Sezgin, Fuat : Geshichte des arabischen Schrifttums, 6 Vols, Leiden 1967
 29. Steingass, F. ; Persian-English Dictionary, Beirut 1970.
 30. Wehr, Hans ; A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Wiesbaden(Germany) 1966.
 31. Vassiere, Etienne de la ; Histoire des marchands sogdiens. Paris 2002.
 32. Yarshater, Ehsan ed. : Encyclopaedia Iranica, London 1985.
 33. 中央ユーラシアを 知る 事典(일본어) 동경 2005.

한반도 관련 중세 이슬람 문헌

아랍어 고전

1.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hbih, 912 죽음)의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Kitab al-masalik wa'-mamalik)』 p.70에서

وفي آخر الصين بازا قانصو جبال كثير و ملوك كثير وهي بلاد الشبلا فيها الذهب الكثير و من دخلها من المسلمين استوطنها لطيبها ولا يعلم ما بعدها

위의 책 p. 170에서

ان من دخل التبت يول صاحكا مسورا من غير سبب يعرفه حتى يخرج منها ، او ن من دخل من المسلمين بلاده في آخر الصين تدعى الشبلا بها الذهب الكثير استوطنها لطيبها ولم يخرج عنها البتة و من اقام بالموصل حولا وجد في قوته فضلا بينا

2. 무역상 술레이만(Sulayman al-Tajir)의 중국과 인도 소식 (Akhbar al- Sin wa'l-Hind) p.27에서

: و وراء بلاد الصين من الارض التغزغز و هم من الترك و خاقان تبت هذا مما يلي بلاد الترك. فاما ما يلي الجمر فجزائر السيلا و هم بيض يهادون صاحب الصين و يزعمون انهم ان لم يهاده لم تمطرهم السماء. و لم يبلغ احد من اصحابنا فيحكى عنهم. و لهم بزة بيض.

3. 이븐 루스타(Ibn Rusta, 912 죽음)의 값진 귀중품 목록(K. A'laq al-Nafisa) p.96에서

و من دخل من المسلمين بلادا في اخر الصين تدعي السيللا بها ذهب كثير
استوطنها و لم يخرج عنها بة

4. - 마수우디(-Masu'di, 957 죽음)의 『황금초원과 보석광(muruj
al-dhahab wa adin al-jauhar)』 p.131에서

وليس بعد بلاد الصين ممايلي البحر مملك تعرف ولا توصف، الا بلاد السلي و جزائ
رها ، ولم يصل اليها من الغرباء احد من العراق و لا غيره، فخرج منها ، لصحه هوا
ها، ورقه ما ئها ، وجوده تربها، و كثره خيرها ، و صفا ، جواهرها، الا النادر من الذ
لس ، و اهلها مبادئون لاهل الصين و ملوكها ، و الهدايا بينهم لاتكاد تنقطع ، و قد
. قيل : انهم تشعبوا من ولد عامور، ويسكنوا هناك

5. - 마수우디의 『학습과 개관(Kitab al-tanbih wa'l ishraq)』의
p.26에서

والقصي العمران في المشرق اقصى حدود بلاد الصين والسيلي الى ان ينتهي ذلك
الى ردم يا جوج و ماجوج الذي بناه الاسكندر دافعا لياجوج وماجوج عن الفساد في
الارض و الجبل الذي ورا

위의 책 p.84에서

والامه السابعه الصين و السيلى و ما اتصل بذلك من مساكن ولد عامور بن يافث
. بن نوح ، ملكهم واحد ولغتهم واحده

6. 아불 피다(Abu'l Fida' 1273~1331) 『나라들의 안내 목록
(Taqwim al-buldan)』 p.367에서

و يقال اها سيلا و هى فى لعالى الصين من الشرق و قلما يسلك اليها فى البحر
و هى من جزائر فى بحر الشرق كجزائر الخالدات و السعده فى بحر الغرب لكن هذ
. معموره فى خصب و تحيرات بخلاف تلك

위의 책 p.367에서

قال بعض من وآها هى مدينه كبيره من قواعد الصين المها سنك و بينها و بين خا
ن. بالق مسيره خمسه عشر يوما و هى بين بلاد الخطا و بلاد كاولى

7. 이븐 알 나딤(Ibn al-Nadim)의 색인목록(미-fihrist) p.492에서

فى بلد الصين السيللا و هى من اطيب البلاد و اجلها و اكثرها ذهباً

।

8. -이드리시(-Idrisi 1166 죽음) 『먼 나라를 종횡할 꿈을 가진 이

들의 산보(Nuzhat al-mushtiq fi ikhtiraq al-afaq)』 p.92에서

و من هذه الجزيرة يسار الى جزائر السيلا و هي كثيرة متقاربه بعضها من بعض
و فيها مدينه تسمى الكيوه من دخلها من المسافرين استوطنها ولم يرد الخروج عنها
لطيب ثراها و كثره خيرها والذهب بها كثير جدا حتى ان اهلها يتخذون سلاسل كلابه
م واطواق قرودهم من الذهب وياتون بالقمص المنسوجه فيبيعونها

9. -가즈위니(-Qazwini, 1203~1283) 『창조의 경이와 존재의 희
귀성』 Aja'ib al-makhluqat wa-gharaib al-masjudat pt. II
p.154에서

و منها جزائر اسلاهي و هي جزائر كثيره من دخلها من الادميين لا يخرج منها لكثير
ه خيرها و فيها ذهب كثير و بزاه شهب و شواهين. و من العجائب ما حكى ان ملو
ك السلاهي بها دون ملك الصين ويزعمون انهم ان لم يفعلوا ذلك قحطت بلادهم ولم
يمطروا ، حكاه ابن الفقيه في كتابه

10. 까즈위니의 여러 나라의 유적들(Athar al-bilad) p.50에서

شيلا

بلدة من اواخر بلاد الصين في غاية الطيب لا يري بها ذو عاهة من صحة
هوائها و عذوية مائها و طيب تربتها. اهلها احسن الناس صورة و اقلها امراضا
و ذكر ان الماء اذا رش في بيوتها تفوح منه رائحة الانبرو هي قليلة الافات و العلل

.قليلة الذباب و الهوام. اذا امتل انسان في غيرها ثم نقل اليها زالة علله

قال محمد بن زكرياء الرازي : من دخلها استوطنها و لا يخرج عنها لطيبها و وفور
خيراتها و كثرة ذهبها. و الله الموفق

11. 이븐 사이드(Ibn Said, 1213경~1286)의 7개 지역에 관한 지
리서(K. al-jughrafiya fi'l - aqalim al-saba) p.110에서

و تقع في البحر المحيط باقصى هذا الجزء جزائر السيلي و هي
مثل الجزائر الخالدات في البحر المحيط ليس حلقها عمارة و لكن هذه معمورة
فيها خصب و خيرات و اخرها للمشرق جزيرة صنجي التي بها الاصنام المشيرة
اللا مسلك خلفي . و انتهاء شرقيها حيث الطول مائة و ثمانون درجة
و في جنوبي هذه الجزائر جزيرة الفضة. ذكرها بطليموس و ذكر نهرها. و يقال ان
ارضها كثيرة الفضة
و الي جانبها في اقصى العمارة بالمشرق جزيرة الياقوت يدور بها من داخلها الجبل
الكبير الذي ذكره بطليموس

12. -디마쉬끼(-Dimashgi, 1327 죽음) 『대륙과 대양의 경이에
대한 정선(Nukhabat al-dahr fi'ajaib al-barr) p.14에서

لخذا الي جنوب ارض الصين و ينتهي الي اقصى المشرق حيث جزائر سلا و ار
ض لصطيفون

위의 책 p.17에서

والى اقصى ساحل البحر المحيط الزفتى المشرقى الواغله فيه جزائر السيللا و السد
. بلا و الياقوت و صيح و العبويه فى مشرق صين الصين طولاً لهذه الاقاليم

위의 책 p. 18에서

و هو من اقصى ساحل بحر الصين و جزائره التى هى جزائر سالا و السيللى و ا
صطيقون.

위의 책 p.64에서

و البلخش من توابع الياقوت فى القيمه و هو دونه فى الشرق و من خواصه انه ب
حملة يقبض النفس و يسى الخلق و بورت الحزن و كذلك البنفش قال بلنيس اليونانى
الجلش و السلى و البنفش و المادنى.

위의 책 p. 65에서

والسيللى و هو ما بحره السيل من جبل الراهون بسرنديب و بجزائر السيللى يجرال
صين و قل ان يوجد منه حجر نقى و مكى من وصل اليه و النقط منه بمواضعه ان
بغم الوادى بركا معمورات مملوكات للوك نلك النواحي الهنود و الزنوح و الغامرون ولم
بن دون اللوك من الاعيان هناك و حفائر بعها كذلك

위의 책 p.130에서

قال بطليموس وغيره ان في هذا البحر ست جزائر قسمي جزائر السيلي و سيلانها انواع الياقوت و الجوهر و هي عامره ماهوله وقل ان يدخلها احد فيختار الخروج منها لما يرى من صحه الهواء و حلاوه الماء و جال الصوره و كثره الخيرات .

위의 책 p.131에서

قال اهل العلم بذلك ان في البحر الزفتي المشرقي مما هو وراء جبال التشار و الا خوار قريب من سواحله ست جزائر كبار قسمي بالسيني لما فيه من الياقوت و الجوهر بالمعادن و المفاضات و في حر السيول دخلها قوم من العلويين و دفعوا فيها ما فروا من بني اميه فاستوطنوا و ملكوا و مانوا بها و هل الجزائر لم يدخلها احد من الغربا فطاوعته نفسه الى الخروج منها و ان كان منها في عيش قسني و هي في جهه الشمال من هذا البحر .

위의 책 p.132에서

و هو الخط المار من المحيط الى المركز الى المحيط النظير قال اهل العلم بذلك و من جزائر السيلي ثلاث جزائر قسمي جزائر سلا يعني من دخلها سلا وطنه و طايت له سكني و سلا ما عداها من البلاد و الله اعلم .

위의 책 p.168에서

و بساحل صينيه مغلض الدر و منها يدخل من يدخل الى ا لمحيط من بحر جزاء
ر السيلي وراء ارض اصطيقون

페르시아어 고전 원문

1. 라쉬드 알 딘(Rashid al- Din, 1247~1316)의 집사(集史,
Jamial-tawarikh) p.486에서

سوم شينك ولايت كولي و كوكولي كه ملكي علي حد است و ملك انرا
و انك كویند و قویلاي فان دختر خود بد و داده و بسرش از مؤانس
قالان مي باشد و او وانك انجا نباشد

2. 알리 아크바르 히타이('Ali Akbar Khitai) 『중국여행기
(Khitai' name)』 p.118에서

و قسم نهم از دوازده قسم ملك چین ، كولي كویند و این كولي استان ملكی است
ت در غایت معموری و پر مال، چنانکه ادنی بازرگان ایشان ده بار صد هزار سیر
نقره دارد و هر سیر او ده درم نقره بود و گاه باشد { که } يك يا دو كولي است
نی همه متاعهای مردم ما را بخرند

و از خزینه خاقان چین به لشکریان خطای چندین هزار تافته خام از خزینه می د
هند و به چندین هزار قلماق همچنان ، و به چندین هزار هندیان همچنان ، و جماعت
مسلمانان در عدد از همه کمترند و در عزت مقدم و در بخشش گرفتن بیشتر و ب
یستر و به گروه تبت و گروه اویغورو گروه اوجد و گروه جورجیت و غیره . و چند
ن هزار خلق را چندین هزار تافته خام بدهند و اطلسهای ملون { با آغوش و هر ک
س راسه جامه زربفت } به روی هم بپوشانند و انواع قماشها نیز بدهند. و آن جم
له مذکور را کولی استانیان بخرند و در بهای آن جمله متاعها زر و نقره بدهند و آ
ن همه تافته خام را " قلفی " سازند که باب شرف هند است و هندیان مشرق همه
" قلفی " پوشند .

متاعی که از کولی استان حاصل میشود همه طلاست و کتانهای نازک